

Hans-Jörg Ronsdorf

편을 바꾸다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편을 바꾸다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Hans-Jörg Ronsdorf

Christliche Literatur-Verbreitung e. V.

Postfach 11 01 35 · 33661 Bielefeld

초판 2011년

© 2011 by CLV · Christliche Literatur-Verbreitung

Postfach 11 01 35 · 33661 Bielefeld

인터넷: www.clv.de

표지 디자인: 안드레아스 페트(Andreas Fett), typtop, 마이너츠하겐(Meinerzhagen)

조판: CLV

인쇄 및 제본: GGP Media GmbH, 피스넥(Pößneck)

ISBN 978-3-86699-310-5

차례

머리말	12
1. 유람 비행	14
2. 착륙했다 - 이제 어떻게 할까?	27
2.1 자유냐 종살이냐 - 둘 다는 아니다	27
2.2 자유의 계명	28
2.3 피하기와 대적하기	29
2.4 감정	29
2.5 옛 선장과 새 선장이 탄 배	30
2.6 전속력으로 전진!	31
2.7 우리 아버지	32
2.8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33
2.9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34
2.10 새 생명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35
2.11 전체를 한눈에	38
2.12 산행	39
2.13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40
2.14 우리의 구원을 위해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했는가?	41
3. 로마서 5:12-21: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42
3.1 12절: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43
3.1.1 죄와 죄들	44
3.1.2 죄와 죽음	44
3.1.3 타락과 원죄	45
3.1.4 단순한 계명 하나	46
3.2 13절: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죄	47
3.3 14절: 오실 자의 모형인 아담	48
3.3.1 아담과 그리스도	49
3.4 15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손해가 넘치도록 회복되다	49
3.5 16절: 범죄의 결과와 은사의 결과	50
3.6 17절: 죽음의 지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하여지다	51
3.7 18절: 정죄와 생명의 칭의	52
3.8 19절: 죄인들의 법적 신분과 의인들의 구원의 신분	53
3.9 20절: 율법은 모든 죄를 드러낸다	54
3.10 21절: 죽음에서 영생으로	55

3.11 로마서 5:12-21 개관	56
4. 로마서 6장: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다	57
4.1 편을 바꾸다: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57
4.2 1-2절: 은혜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허장인가?	58
4.2.1 우리는 죄와 그 권세에 대하여 죽었다!	58
4.3 3-4절: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	59
4.3.1 죽음과 합하는 세례	60
4.4 4절: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살리심을 받다	62
4.5 5절: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그와 연합하다	63
4.6 6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 사람	65
4.6.1 옛 사람	66
4.6.2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	67
4.6.3 죄의 몸	68
4.7 7절: 죄에서 벗어나 무죄 선고를 받다	69
4.8 8-9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생명을 나누다	71
4.9 10절: 죄에 대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72
4.10 11절: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기다	73
4.11 12절: 몸에 대한 죄의 지배가 깨어지다	74
4.12 13절: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다	75
4.13 14절: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75
4.14 요약	76
4.15 골고다의 십자가와 죄	77
4.16 로마서 6:15-23: 은혜 아래 사는 해방된 사람들	77
4.17 구원의 직설법과 구원의 명령법	78
4.18 15절: 은혜의 목표	80
4.19 16절: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81
4.20 17절: 마음으로 순종하다 -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81
4.21 18절: 의의 종	83
4.22 19절: 자신을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에 내어 드리다	83
4.23 20-22절: 열매 없는 삶에서 영생으로	84
4.24 23절: 영원한 정죄 대신 영생	86
5. 로마서에 나타난 율법	87
6. 로마서 7장: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다	91
6.1 로마서 7장의 의미와 위치	92
6.2 성령과 육신의 싸움인가?	92

6.3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가?	93
6.4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94
6.5 로마서 7장: 꼭 거쳐야 하는 경험인가?	95
6.6 로마서 7장의 사람은 누구인가?	96
6.7 로마서 7:1-6: 율법에 대하여 죽다	97
6.7.1 1절: 율법은 살아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97
6.7.2 2-3절: 율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97
6.7.3 4절: 우리가 이제 속한 분 - 그리스도	98
6.7.4 5절: 율법은 의가 아니라 죄들을 부추긴다	99
6.7.5 6절: 율법을 넘어서신 새로운 섬김	100
6.8 로마서 7:7-14: 완전한 율법	100
6.8.1 7절: 죄를 깨닫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102
6.8.2 8절: 율법은 죄를 부추긴다	103
6.8.3 9-11절: 율법과의 만남은 죽음으로 이끈다	104
6.8.4 12절: 그래도 율법은 선택하다	105
6.8.5 13절: 다시 한번 - 율법의 기능	106
6.9 로마서 7:14-25: 율법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경험	106
6.9.1 14-15절: 선한 의지와 악한 육신	106
6.9.2 16절: 율법에 대한 동의	107
6.9.3 17-21절: 내 속에 거하는 죄	107
6.9.4 22-23절: 두 법과 그 작용	108
6.9.5 24절: 절망	109
6.9.6 25절: 로마서 7장의 교훈	110
7. 로마서 8:1-11: 마침내 자유!	112
7.1 이미 - 아직 아니	113
7.2 돌파	115
7.3 1절: 무죄 선고 - 더 이상 정죄 판결은 없다	115
7.4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다	117
7.5 3절: 하나님이 골고다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다	118
7.5.1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	119
7.5.2 골고다	120
7.6 4절: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결국 이루어진다	121
7.6.1 모세의 율법과 그 효력	122
7.7 5절: 육신을 따르는가, 영을 따르는가	124
7.8 6-7절: 죽음과 생명, 원수 됨과 평안	125
7.9 8-9절: 육신에 있는 것과 영에 있는 것	126

7.10 10-11절: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몸의 구원	127
7.10.1 우리의 구원의 신분 - 구원의 직설법 - “이미”	127
7.10.2 사는 것과 죽는 것	128
7.10.3 하나님의 영광과 몸	129
7.10.4 왜 지금 이미 죽지 않는 몸이 아닌가?	129
8. 로마서 8:12-17: 구원의 명령법 - 승리하는 삶	131
8.1 12절: 더 이상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다	132
8.2 13절: 생명이냐 죽음이나	132
8.2.1 약속과 경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	133
8.2.2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다	136
8.2.3 “죽은 자로 여기기”인가, “죽이기”인가?	137
8.2.4 죽이기 - 어떻게 하는가?	138
8.3 14절: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140
8.4 15절: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다	142
8.5 16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143
8.6 1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을 상속자다	144
9. 로마서 12장: 생각이 새로워진다!	145
9.1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146
9.2 로마서 12:1-2: 예배 - 논리적인 일!	146
9.2.1 여러분의 몸!	148
9.2.2 세상: 친구인가, 원수인가?	149
9.2.3 새로운 생각을 통한 변화	150
9.2.4 메타모르포시스	151
9.2.5 왜 새롭게 되어야 하는가?	152
9.2.6 새롭게 됨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153
9.2.7 전쟁터가 된 생각의 세계	154
9.2.8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155
9.2.9 백일몽과 공상	156
9.2.10 하나님의 뜻 - 분별하여 선하다고 확인하다!	157
9.3 로마서 13:13-14: 그리스도로 옷 입기 - 육신을 위하여 도모하지 않기	158
9.4 결론	159
10. 옛것과 새것 - 개관	161
11. 육신이란 무엇인가?	162
11.1 죄와 육신	164
11.2 육신과 믿지 않는 사람	164
11.3 육신과 그리스도인	165

12. 육신 대 성령	168
12.1 무엇이 문제였는가?	168
12.2 육신이 하는 일	169
12.3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인	170
12.4 율법과 육신 - 한 기어 장치 속의 두 톱니바퀴	172
12.5 아주 오래된 우주적 갈등과 지금 여기의 개인적 갈등	172
12.6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173
12.7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일함 - 서로 맞서는가?	174
12.8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 그런데 그것은 어떤 자유인가?	175
12.9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175
12.10 싸움의 한가운데서	176
12.11 바이러스와 백신	177
12.12 육신의 일이란 무엇인가?	178
12.13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179
12.14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181
12.15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뒤 사람은 누구인가?	182
12.16 날마다 십자가를 지다	184
12.17 성령으로 살고 행하기: 존재와 비존재	185
12.18 성령으로 행하기 - 어떻게 하는가?	186
12.19 넘어지고 일어서기	187
12.20 바른 길로 돌아오기	188
12.21 하늘에 계신 우리의 돕는 이	189
12.22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190
12.23 자백하기	191
12.24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 그런 구분이 있는가?	192
12.25 성령과 육신의 갈등의 본질	194
13. 새 사람과 옛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196
13.1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새 사람	197
13.2 골로새서에 나타난 새 사람	198
13.3 에베소서과 골로새서에 나타난 옛 사람	199
13.4 새 사람의 창조 이야기	200
13.5 많은 사람이 한 새 사람이다	202
13.6 개인의 인격이 새 사람이 된다	203
13.7 새 사람이란 무엇인가?	205
13.8 새로운 피조물	206
13.9 무엇이 새로 창조되었는가?	208

13.10 새 사람도 새롭게 되어야 하는가?	208
13.11 새 사람: 옷처럼 입다	210
13.12 요약 - 하나의 그림	212
13.12.1 옛 나무	212
13.12.2 새 나무	213
13.12.3 아직 살아 있는 옛 뿌리	215
13.13 오직 믿음으로	216
13.13.1 게으른 정원사	216
13.14 새 사람의 미래	217
13.14.1 미래의 삶을 지금 이미 살기	218
13.15 호소	219
14. 새 생명으로 거듭나다	221
14.1 본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222
14.2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224
14.3 영생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224
14.4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가?	225
14.5 거듭남 - 하나님께로부터 나다	225
14.5.1 물로 나다	226
14.5.2 성령으로 나다	227
14.5.3 에스겔의 예언: 새 마음과 새 영	228
14.6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다: 살리심을 받다	229
14.7 생겨남과 자라남의 비밀	230
14.8 성장 - 생명은 자란다	231
14.9 가꾸기	233
14.10 취미인가, 의무인가?	234
14.11 요한이 말하는 구원의 직설법	235
14.12 요한이 말하는 구원의 명령법	236
14.13 영생 - 질과 양	237
14.14 생명의 징표	238
14.15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239
14.15.1 구속사의 네 단계: 인간과 죄	241
14.15.2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242
14.16 온전함 - 그것은 무엇인가?	243
14.16.1 우리의 구원의 신분의 온전함	243
14.16.2 우리 삶의 온전함(성숙): 장성한 사람이 되기	244
14.16.3 장차 올 완성 때의 전인적 온전함	244

14.17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	245
14.18 새 본성과 옛 본성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다	246
14.19 결론	246
15. 기질과 성격	248
15.1 성경과 기질론	248
15.2 성격과 그 변화	251
16. 맺음말	253
17. 참고 문헌	

우리 아이들 펠릭스(Felix), 라우라(Laura), 알렉스(Alex), 페터(Peter),
안네마리(Annemarie)에게 -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께
붙잡히기를 마음 깊이 바라며.

머리말

이 책의 주제는 젊은 시절부터 저를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 주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의 심장입니다. 온전히 붙잡고 깨달은 구원에서만 자유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무엇을 깨달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실입니다. 거의 30년 전에 워치만 니(Watchman Nee)의 책 “Das normale Christenleben”(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저에게 돌파구를 열어 주었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이었지만 좌절해 있었습니다. 죄의 권세에 맞설 힘이 저에게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다른 많은 사람에게 그랬듯이 저에게도 해방에 대해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 해방을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경건의 더 높은 단계나 전문가 수준의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손에 무엇을 쥐여 주셨는지를 깨닫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주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히 이에 대해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100 %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글을 쓸 수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생이 많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선생 된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르침과 그 끊임없는 반복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거나 우리 스스로 이 일을 올바르게 붙잡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각 세대는 이 주제와도 스스로 씨름해야 합니다. 이 책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쓰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전혀 혹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이 중심 주제를 다시 살리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자극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꺼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교정과 생각할 거리를 준 토마스 예텔(Thomas Jettel)에게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여러 부분이 더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니스(Nizza) 근처에서 일하는 선교사 요수아 켈러(Josua Keller)와 브리기테 켈러(Britte Keller)에게도 건설적인 의견 교환에 대해 감사합니다. 헤르베르트 브림(Herbert Briem), 페터 슈트라이텐베르거(Peter Streitenberger), 하리 그라프(Harry Graf)에게도 비판적으로 원고를 검토해 준 데 대해 감사합니다. 이 형제자매들의 이름을 밝힌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의견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 자신에게 있습니다.

저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Elberfelder 성경 2003(Edition CSV Hückeswagen, 독일어 성경 번역본)을 사용했습니다. 예외는 대개 표시해 두었습니다.

Hans-Jörg Ronsdorf, 줄츠베르크(Sulzberg), 2010년 11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높은 요새이시니

시편 62:6

그때 너희는 안전하게 살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이사야 33:6 (NeÜ, 독일어 성경 번역본)

1. 유람 비행

타십시오.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우리는 멋진 유람 비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큰 산맥입니다. 우리는 새의 눈으로 장엄한 산괴를 내려다보려고 합니다. 저는 알프스 바로 기슭에 살고 있어서 제 사무실에서 산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늘로 날아올라 이 놀라운 창조 세계를 위에서 실컷 바라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짧은 유람 비행 한 번으로 그쳤지만, 그 비행은 더 하고 싶은 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그런 비행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돈이 전혀 들지 않는 비행입니다. 이 비행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산맥일까요? 이 산맥이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곧 크신 건져 내심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산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루신 것을 구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이나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충만함**을 다루는 것입니다! 한 번의 비행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을 거듭할 때마다 다시 새로운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행이 지루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비행기가 작은 2인승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가벼운 비행기는 꽤 심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너무나 엄청나서 다른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조종사는 누구보다 이곳을 잘 압니다. 그는 가장 좋은 항로, 가장 좋은 목적지, 가장 아름다운 전경, 알맞은 높이와 낮은 곳을 알고, 날씨를 알며, 우리를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데려다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행 공포는 안심하고 땅에 두고 와도 됩니다.

우리가 가려는 산은 엘브루스(Elbrus)입니다. 캅카스(Kaukasus)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높이가 5642 m입니다. 상당한 높이여서 비행기는 그 높이까지 올라가려고 정말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이 산은 무엇이 특별할까요? 물론 캅카스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점이 이 산을 두드러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산은 사화산이기도 합니다. 이 산에는 큰 분화구가 있는데, 오래전에 그곳에서 시뵌겐 용암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알듯이 화산은 다스릴 수 없는 엄청난 자연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세상을 홍수로 덮으셨을 때에도 그런 자연의 힘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경은 깊은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말합니다(창 7:11).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물을 땅 위에 쏟아붓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쩌면 이전 세계적인 홍수에 따른 거대한 지질학적 변화 때문에 화산들이 활동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때 물은 산꼭대기들 위로까지 차올랐습니다. 모든 산이 덮였고(창 7:20), 보이는 것은 오직 물뿐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매우 악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고, 하나님에게서, 곧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위해 생각하셨던 것에서 멀어졌습니다.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끝을 내셨습니다. 그 악이 얼마나 컸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창 6:5). 그리고 예수께서는 바로 그런 날들이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눅 17:26). 홍수는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심판에서 우리는 죄가 하나님께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죄의 부정적이고 끔찍한 결과들과 맞닥뜨리면서도 죄를 별로 문제 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가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들을 치명적이고 고칠 수 없는 병처럼 망가뜨리고 그분에게서 떼어 놓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을 너무나 바꾸어 놓아서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몹시 싫어하십니다. 죄가 그분의 모든 본질, 그분의 사랑과 거룩하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죄악 된 상태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렘 13:17; 14:17). 죄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죄는 그분에게 아무래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죄를 아시며, 그것을 그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느끼십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떼어 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그분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이어지는 생명줄을

끊어 버리며, 그래서 죽음 말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어질 수 없습니다. 죄는 친절할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가면일 뿐입니다. 죄는 추하며, 나타나는 곳마다 파괴합니다. 죄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는 진드기처럼 모든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죄는 씨앗처럼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에게서는 더 많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덜 자라났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람은 서로 얽혀 자라서 하나가 되어 있으며,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떼어 낼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멸하신다면, 그분의 멸망 판결은 결국 우리에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길을 찾으셨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문제에 손을 댄 것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라는 병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죄는 하나님께 죄가 의미하는 만큼의 것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있으라!”라는 그분의 전능한 말씀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분의 모든 사랑을 대가로 치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순수한 빛과 같으시고, 사랑이시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정결하시고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십니다. 죄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을, 그것도 신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대하고 흔히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뀌는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처형되신 곳인 골고다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끝없이 미워하신다는 것이 이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십니다. 왜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했을까요? 죄는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께서 거슬러 하시고 모욕으로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연히 속죄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의 죄 때문에 벌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언제나 그대로일 것입니다. 불의 뒤에 형벌이 따른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종교가 지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예를 들어 우리 법체계의 기초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것을 훨씬 더 순수하고 의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생각을 읽으십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친히 목격하십니다. 그분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에 혼자 있고 단 한 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희생은 필요했을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라도 하나님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워서 단 하나의 죄도 그냥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실패한 창조 실험처럼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죄인을 아끼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그 빛을 갚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계산서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그 한 분이 대신 드러지는 제물이 됩니다. 그 제물이 우리의 빛을 갚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한 사람이 - 비유적인 의미에서 - 대신 드러지는 이 희생양이 됩니다.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정죄와 형벌을 떠맡으시려고 우리의 죄를 지신 채 스스로 하나님 바로 앞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기꺼이 자신을 드리려는 것을 받아들여시고, 이 형벌의 심판에서 그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우리라면 스스로 자초한 문제에서 우리의 원수들을 갚을 치르고 건져 내려고 우리 아들을 내어 주겠습니까? 우리라면 우리 아들이나 딸을 벌하는 대신, 그들을 아끼려고 무엇이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명령 하나나 창조의 말씀 하나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다시 노아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심판의 물은 가장 높은 산봉우리들까지 덮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매우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 그리고 골고다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곳에서 집행된 심판, 예수께서 지신 짐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이 그분을 얼마나 처참하게 상하게 했는지,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을 둘러 씌우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떠올리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기다려 봅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들의 값을 치르신 고난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아무것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죄에 대한 그에 따른 판결의 집행은 그 성금요일 제육시, 곧 낮 12시쯤에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철쭉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의 빛을 썬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죄 없는 희생양 위에 온 힘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세 시간 동안 죄에 대한 (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진노에 자신을 내맡기셨고, 모든 사람을 영원히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그 말의 가장 참되고 가장 깊은 뜻에서의 흑암입니다.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난 일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행기 창밖으로 한때 불을 뿜던 화산이었던 이 산을 내려다봅니다. 붉게 이글거리는 용암은 저에게 유황과 불이 타는 못, 곧 영원한 지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마주하신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모든 것을 친히 견디셨습니다. 그것도 세 시간 안에 압축하여 견디셨습니다! 코리 텐 붐(Corrie ten Boom)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산불이 나면 불이 더 이상 탈 것을 찾지 못하는 곳이 언제나 있습니다. 불이 이미 휩쓸고 지나간 곳입니다. 이제 골고다는 죄인이 안전을 얻는 곳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이미 이곳을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골고다에서의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적으로 말하는 시편 기자는 홍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¹이 나를 휩쓸었나이다”(시 42:7; 88:7 참조). 노아의 때의 자연의 힘이 일으킨 광음(엄청난 물, 폭풍, 지진, 화산 등)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더욱이 흑암의 세 시간 동안 견디신 것의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문으로 짓이겨진 몸으로 큰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린 신 하나님의 아들 - 사람들에게

1. 이 파도와 물결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버림받고 하늘로부터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가장 바깥 어두운 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시간을 내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변화든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변화는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이 사로잡히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커서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엡 3:19). 그는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말합니다. 프랑스 군인들이 스페인에서 종교 재판 시대의 버려진 지하 감옥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죄사슬로 감옥 벽에 묶여 있는 해골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벽에는 십자가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네 끝에는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위쪽에는 **높이**, 아래쪽에는 **깊이**, 왼쪽에는 **너비**, 오른쪽에는 **길이**. 이 그림을 새긴 순교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난으로 가득한 그의 삶의 마지막, 가장 힘든 날들에 가장 그러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의 이 순교자는 이 사랑 때문에 그에 걸맞은 길을 걸으며 그의 주님을 본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책과 죄와 용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악한 본질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도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 사건은 왜 그토록 헤아릴 수 없이 끔찍했을까요? 주 예수께서 제가 한 일 때문에만이 아니라 제가 어떤 존재인가 때문에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큰 죄책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다고 합시다. 그것은 감탄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 악한 사람과 혼동할 뿐 아니라 일부러 그와 똑같은 사람으로 여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도 골고다에서 일어난 일에 비하면 희미한 비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죄악 된 것으로 묘사합니다. 죄는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합니다. 사람들이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믿은 지 오래될수록 특히 자기 자신에게서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도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는 죄를 점점 더 알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오래 살수록 죄가 얼마나 비열하고 역겨운지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에 이르렀을 때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살았던, 그것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 때문에 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분이 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분을 정죄하셨습니다. 행위들만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로 묶여 있는 죄까지 말입니다. 열매만 나뉘었던 것이 아니라 나무 전체가 썩어 쓸모없었습니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심판대에 서셨습니다. 흑암의 세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지금까지 들은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심판의 판결을 온전히 떠맡으시려고 주 예수께서는 죽으십니다. 죄의 값, 곧 우리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여겨 주시고 여러분 앞으로 기록해 주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옛 삶(우리가 한 모든 것과 우리의 존재 전체)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그분이 그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무엇인가 값을 치러야 할 것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죄 판결은 더 이상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행기 창밖을 내다보시고 이 거대한 산을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화산은 꺼졌습니다. 이처럼 삼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도 꺼졌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친히 짚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엇이 보입니까? 하얀 산입니다! 온통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화산이 아직 활동하고 있다면 산꼭대기에 눈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실체가 된 깨끗함과 흠 없음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말해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슬초²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깨끗하리이다. 나를 씻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7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18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대한 사역이 이론 것을 여기서 얼마든지 더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성경 말씀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30

우리가 옛 삶에서 가지지 못했던 모든 것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안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시고 그분과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과 그분이 지금 높임을 받으신 인자로서 하늘에서 어떤 분이신지가 모두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이 행하신 일과 지금 그 아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와 구원의 정점이 아니겠습니까? 눈처럼 흰 옷으로 감싸인 이 산의 고요함과 적막함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로 옮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떤 정죄 판결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 우슬초는 물과 피를 뿌리는 데 쓰던 잎이 있는 식물입니다.

개선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새로 시작하려면 먼저 옛것을 치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그리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의 죽음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의에 근거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의로운 요구와 온전히 일치하게, (순전히 법적으로 보면) 그분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죽음을 온전히 우리 앞으로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실제로 죽은 것처럼 효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본질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 판결은 그리스도에게 집행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산은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 줍니다. 그분은 그분의 의를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시편 36:6

때때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 개인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지 다시 조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주제넘은 것은 아닐까요? 비행기는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고,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폭풍이 우리를 뒤흔들더라도 이 산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어떤 폭풍도 이 구원의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산은 은혜의 산이며, 시온산과 같습니다.

그의 거룩한 산이 아름답게 솟아 있으니 온 땅의 기쁨이로다. 북쪽 끝에 있는 시온산은 큰 왕의 성이로다.

시편 48:1-2 (ER, 독일어 성경 번역본; 히브리서 12:18-20 참조)

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정적인 의미의 산입니다. 그랜드캐니언은 거대한 협곡, 거대한 골짜기입니다. 이 낭떠러지 앞에 서서 깊은 곳을 내려다보는 것은 정말 압도적인 경험입니다. 이것도 우리를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흙이며, 죄가 우리 삶에 들어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의 심연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십자가가 서 있던 “구원의 산”을 올려다봅니다. 십자가는 끝이지만 또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조종사가 천천히 비행 고도를 낮추어,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산과의 더 낮은 지역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산맥이 워낙 커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볼 수는 결코 없습니다. 고도가 낮아지는 동안 조종사는 산 쪽으로 더 가까이 비행기를 뚫니다. 거대한 폭포 하나가 보이고, 이어서 다른 작은 폭포들도 보입니다. 얼마나 웅장한 광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지요! 엄청난 물이 얼마나 장엄하게 골짜기로 쏟아져 내리는지요! 더 아래에서 이 폭포들은 하나의 강으로 모입니다. 눈과 얼음은 수백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엘브루스의 산비탈에는 70개가 넘는 빙하가 있고, 거기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물은 골짜기로 흘러 내려가 풀밭과 들판과 숲을 적십니다. 농사 전체가 이 물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물이 없다면 그 지역에서는 자라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도 비가 옵니다. 그러나 바로 눈이 녹는 동안 봄철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물이 골짜기로 쏟아져 내립니다.

산을 따라 쏟아져 내려와 강으로 모이는 힘찬 물줄기들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이 비유를 쓰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께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사람의 깊은 목마름 - 의미와 안전과 사랑을 묻고 찾는 것 - 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께 오는 사람은 삶의 목마름을 해소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목마른 마음은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살아 있는(곧 흐르는) 물, 그분 자신이신 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영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분은 생명과 힘과 인도와 위로의,

늘 그대로이고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 안에서 언제나 솟아나는 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산 하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세 제자와 함께 계셨던 산입니다. 그들은 높이 올라갔습니다. 어쩌면 그 산에서 눈이 쌓이기 시작하는 높이까지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³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변형 되셨고, 해처럼 빛나셨습니다. 그분의 옷은 그들을 둘러싼 눈보다 더 희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 예수께서 다시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이실지 미리 보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지금 권능의 우편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그려 볼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듯이,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곧 하나님의 우편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신 뒤에야 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영광을 받으시고 면류관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승리와 영광을 증언하고 우리 마음에 단단히 심어 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삶에 세 들어 사는 분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닙니다. 이 영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를 크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기는 삶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왜 흔히 그렇게 보이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은 뒤에서 반드시 다룰 것입니다.

이 전경을 즐기시다! 거대한 산, 눈부시게 빛나는 흰 봉우리, 그리고 위에서 골짜기로 쏟아져 내리는 솟구치는 시냇물들. 성장의 역동은 좋은 땅이 있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비행이 서서히 끝나 갑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착륙하고 싶지 않지만 연료가 떨어져 갑니다. 골짜기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짙고 무성해지는 초록 위로 몇 번 선회할 만큼만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덩불과 몇몇 초록 얼룩뿐이더니, 이어서 나무 몇 그루가 보이고, 어느새 우리는 울창한 숲 위를 날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벌써 골짜기의 밭과 경작지와 농원이 보입니다.

3. 어떤 주석가들은 해발 1800미터 이상에서는 한 해에 여러 달 동안 눈으로 덮여 있는 헤르몬산이 변화산이었다고 추측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의 물이 영적이지만 실제적인 성장을 일으켰다는 것을 아십니까? 구원은 그 자체로는 온전한 것이지만, 여러분 안에서는 동시에 하나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씨앗이 싹틔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겉으로만 보면(몸무게, 목소리 높낮이 등) 여러분의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새로,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씨앗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영생을 심으셨고, 이 생명은 자랍니다. 이 주제는 다음 장에서 더 깊이 다룰 것입니다. 밭과 나무와 농원의 온갖 초록을 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식물의 생명에 넣어 두신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증언합니다. 해가 비치고, 땅이 좋고, 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성장은 막을 수 없습니다. 식물이 아니라 “창조의 면류관”인 사람이 문제인데, 사람 안의 영적 성장이 그보다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흥미진진한 비행을 마치고 우리는 착륙합니다. 우리는 이 산과 그 주변의 크기와 아름다움에 깊은 인상을 받은 채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의 빛은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옛 사람으로서 어떤 존재였는지는 이제 지나간 역사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치워졌고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옛 사람 대신 새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이 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새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그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살아 있는 물을 자기 안에 가지고 계시며, 그 물이 새 사람을 자라게 하여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강해지게 합니다.

조종사가 거칠게 착륙합니다. 우리는 다시 땅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꿈만 꾸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본 이 모든 것이 사실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쭙면 이 유람 비행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을지 모릅니다. 다음 쪽들에서 여러분은 우리가 말 그대로 날아서 훑어보기만 한 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날기만 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갈 산행에 초대받습니다.

2. 착륙했다 – 이제 어떻게 할까?

덜컹거리는 착륙 뒤에 우리는 현실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토록 포괄적이고 단지 하늘로 가는 제 탑승권만이 아니라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제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자유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에서 보호하실 뿐 아니라, 죄의 종살이와 우리의 옛 자아 중심의 삶이 휘두르는 독재에서도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이론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곧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인 복음입니다!

2.1 자유냐 종살이냐 – 둘 다는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때 무자비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길도 자유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며 개입하셨습니다. 심판에서 그들을 보호해 준 유월절 어린 양은 아직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은 그들이 이집트를 뒤로하고 떠났을 때에야 비로소 경험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피의 보호 아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 새 생명으로 구속되고 해방되었습니다.

가까운 과거의 역사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무엇이 중요한지가 비유적으로 분명해집니다. 미국 헌법 수정 제13조⁴는 1865년 1월 31일 각 주에 비준을 위해 회부되었고, 1865년 12월 18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 전역에서 노예제를 최종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이 조항에 모든 주가 서명했을 때, 이 법은 즉시, 아무 조건 없이 효력을 가졌습니다. 이제 남부 주들의 많은 노예들이 그날 일하러 나가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법적으로 자유로웠고 주인을 떠날 권리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은 이 법을 알아야

4. The Thirteen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야 했고, 마지막으로 그 자유를 실제로 붙잡고 자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방법”은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서명되었습니다. 이 법은 (노예제 폐지법처럼) 오늘날까지 유효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유람 비행 때 이미 보았듯이,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저를 위해 제가 아무것도 보태지 않았는데 골고다에서, 곧 역사적으로 증언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유! 어떤 노예들은 오랫동안 이 새 법을 전혀 알지 못했고, 마치 그 법이 시행되지 않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부당하게 노예 노동을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마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언젠가 하늘에 가게 된 것만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골고다의 이 “해방법”은 하늘에서야 비로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해방을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 곧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 - 옛것은 지나갔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회계에서 쓰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의 논리이지, 변덕스러운 감정의 논리가 아닙니다.

2.2 자유의 계명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경험하려면 그 자유의 원리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구원의 사실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유효한 사실로 여기고 그 위에 섭니다. 자유롭다는 긍정적인 느낌이 먼저가 아닙니다.

두 번째 것은 첫 번째 것에서 나옵니다. 제가 시험에 빠질 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기다릴 때, 제가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이것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내십시오. 하나님께 그것을 기억나게 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는 죄 앞에서 두려움에 굳어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은 우리 삶 속의 죄들에 맞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런 죄악 된 것들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골고다에서 그분의 아들에게 죄의 심판을 내리셨을 때 똑같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 개인주의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중심에 서 있고,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맴돕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우리를 한 걸음도 나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적 사실로 신뢰하십시오!
- 죄가 다스리려 할 때마다 그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을 거듭 분명히 떠올리십시오!
- 시험 앞에서 굳어 버리지 말고 죄를 적극적으로 거절하십시오!
- 죄와 죄와의 싸움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에 집중하십시오!

2.3 피하기와 대적하기

그러나 이런 싸움에서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도 있고, 공세를 취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죄악 된 것들은 정죄하고 치우고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죄로 이끄는 시험과 그 바로 주변에서는 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적인 유혹이 문제일 때 그렇고, 탐욕과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바른 순간에 도망친 본보기입니다. 음행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둔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에 드는 것에서 그를 지켜 줄 수 있었던 것은 도망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4 감정

성경은 이런 뜻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살이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셈에 넣고, 그것을 전제로 삼고, 너희 것으로 주장하라! 해방된 사람으로 살 권리가 너희에게 주어졌다! 남부 주의 노예에게 여러분이 “저는 이 해방이 느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의아한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는 서명된 법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법은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제가 무엇을 느끼든 상관없이 언제나 유효합니다. 워치만 니(Watchman Nee)는 적절한 예를 듭니다. “어느 날 좁은 담 위를 사실과 믿음과 경험이 차례로 걸어가고 있었다. 사실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뒤로도 돌아보지 않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 뒤의 믿음이 사실에 눈을 고정하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잘되었다. 그러나 믿음이 경험을 걱정하기 시작하여 경험을 돌아보자 균형을 잃고 담에서 떨어졌고, 그 뒤를 따르던 착한 경험도 함께 떨어졌다.”⁵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감정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데 꼭 필요하고 놀라운 부분입니다. 기쁨은 감정(정서)으로 경험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며, 심지어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분이 선물로 주신 기쁨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 기쁨은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며, 진짜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뢰에는 감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감정은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에게는 성경이 약속하는 것이 참되고 실제적입니다. 믿음은 - 감정이 있든 없든 -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차분하게 자기 것으로 주장합니다. 낭떠러지 위에 매달려 있는 등산가는 자기 등반 로프에 대한 제조사의 설명을 100 % 신뢰해야 합니다. 그의 감정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2.5 옛 선장과 새 선장이 탄 배

우리의 삶을 배에 비유해 봅시다. 거둬나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항로와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배가 팔렸고,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새 선장이 생겼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여전히 저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새 생명과 그분의 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선장은 경험이 많고 일에 익숙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옛 선장이 배를 어떻게 몰았는지를 보여 주는 습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의 매매는 공증을 거쳐 이루어졌고, 소유주의 변경은 계약으로 정해졌습니다. 새 선장이 아무리 젊고 경험이 없어도, 그는 정당하게 새 선장이 되었습니다. 옛 선장은 - 그를 죄나 우리의 육신, 또는 옛

5. Watchman Nee, *Das normale Christenleben*, 47쪽.

최악 된 본성에 비유해 봅시다 - 우리가 완전히 구속되는 날이 올 때까지 배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의 현실입니다. 옛 선장은 아직 배에 있지만 선실로 물러나 있어야 합니다. 그는 더 이상 배의 운항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새 선장은 옛 선장이 제자리에 머물도록 주의해야 하며, 동시에 배의 항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그가 키를 잡고 있습니다. 그는 결정이 내려지는 조타실에 서 있습니다. 새 선주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일하시는 내 안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성경은 이 둘, 곧 육신과 성령이 서로 맞서며 삶에 대한 지배권을 똑같이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육신은 부당하게 이 권리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주장은 정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옛 선장은 습관 때문에 자꾸 새 선장의 일에 끼어들려고 합니다. 그는 다시 배를 넘겨받고, 새 선장을 자기가 있어야 할 선실로 쫓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배 위에는 긴장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새 선장이 - 자기가 어떻게 느끼든 - 그저 단순히 계약을 근거로 내세우면 그 긴장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는 옛 선장을 거둬 선실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옛 선장이 배위를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면, 일이 나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옛 선장이 관심과 주목과 배려를 많이 받을수록, 그는 더 자주 다시 키를 잡게 될 것입니다.

2.6 전속력으로 전진!

새 선장의 구호는 이것입니다. 전속력으로 전진! 우리 삶이라는 배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일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삶 가운데 왕 노릇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결정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집중력과 관심과 목표를 쏟아붓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새 소유주의 것입니다. 배는 새로운 항로를 따라가고, 새로운 의미로 채워져 있으며, 물결을 거슬러 나아갑니다. 폭풍도 있고, 좌절도 있고, 배에 물이 새어들어오는 일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속하는 끊임없는 움직임과 변화의 역동에 대해 말합니다.

- 달려가라
- 죽이라
- 자라라
- 쫓으라
-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 충만함을 받으라
- 새롭게 되라
- 넘치도록 풍성하라
- 벗어 버리고 입으라

이런 권면들과 그 밖의 권면들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우리 삶에 “마술처럼” 불러내지 않으십니다(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 오는 통로입니다.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도 참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런 호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숨 쉬는 것이 생명에 속하듯, 이 호소들과 그것을 따르는 것은 구원에 속합니다. 이 호소들은 그야말로 “구원의 논리”에 맞는 것입니다.

2.7 우리 아버지

온 힘을 다하는 삶이 날마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실패를 겪는다는 것을 알 만큼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늘 아버지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수를 기다리는 폭군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자기 아들의 생명이라는 한없이 비싼 값을 치르고 사신 그분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관계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자비하게 요구하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분은 용기를 주시고 도우시며, 동기를 주시고 거듭 우리를 북돋우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을 “아빠”(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거나 우리 삶에 약함이 드러나도 그분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일어나는 우리의 죄들을 우리는 그분께 자백합니다. 우리가 짓고도 자백하지 않는 모든 죄는 우리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치워 버려야 합니다. 용기가 없고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 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사 42:3).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걸음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분께는 용서와 은혜와 바로잡아 주심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헌신이 거의 꺼져 버렸어도, 그분 곁에서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삼손은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력은 되찾지 못했지만, 그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까지 이르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가 그 전에 죄로 말미암아 큰 패배를 겪었는데도 그의 가장 큰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2.8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이를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 기쁨과 깊은 감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착취하거나 삶의 기쁨을 빼앗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그것은 그분께 자신을 내맡긴 삶에서 찾을 수 있고,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제이 애덤스(Jay Adams)의 말을 인용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뚜렷한 결핍이 발견된다. 그들에게는 지구력, 곧 끈기가 없다. 지구력은 아마도 질서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쇠일 것이다. 충분히 오래 시도해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케이트 타기, 스키 타기, 피리 불기, 신발 끈 매기, 읽기, 쓰기, 운전하기를 배우지 못한다. 서툴고 실패하더라도 원하는 솜씨를 얻을 때까지 끈기 있게 계속함으로써 배운다. 배우고 싶은 것을 거듭거듭 함으로써 배운다. 성경은 거룩하게 된 삶의 방식도 꼭 그와 같다고 말한다.

성경이 자기 자신의 노력을 그토록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노력은 은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육신의 일’이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는 지구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의 일하심은 ‘신비적인’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일하신다고 증언한다.

우리가 기꺼이, 기도하면서, 끈기 있게 성경의 권면들에 순종할 때, 성경적인 삶의 방식이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된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읽은 것을 실천하도록 도와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다. 바로 그것을 위해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은혜’라는 말에는 여러 층의 의미가 있다. 그 한 측면은 ‘도움’이다. 성령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감히 행하는 사람들을 도우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미리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신다. 능력은 흔히 우리가 요구받은 것을 행할 때 (비로소) 온다.”⁶

2.9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것은 주 예수보다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에게서 이어받고자 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이 우리 평생 계속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그림은 요한의 이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문장이 말하는 바를 보여 줍니다. 빠기는 우리의 옛 삶과 우리 자신의 목표와 관심사에 해당하고, 더하기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 해당합니다!

(그림: 시간 축 위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곡선. 줄어드는 곡선에는 빠기 기호, 늘어나는 곡선에는 더하기 기호가 붙어 있다.)

- 옛 사람을 벗어 버림 -
- 새 사람을 입음 +
- 점점 자라 가며 머지않아 온전해질 그리스도를 닮음
- 믿음의 경주장
- 평생 계속되는 성장 과정
- 거듭남
-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

6. Jay E. Adams, Grundlagen biblischer Seelsorge, 255쪽.

2.10 새 생명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들(사각형, 원, 삼각형)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첫째 줄은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둘째 줄은 개인적인 삶의 전개를, 셋째 줄은 거듭남을 보여 줍니다. 넷째 줄과 다섯째 줄은 그가 믿음 안에서 자라는지 아니면 육신에 속하여 사는지를 보여 주고, 여섯째 줄은 목표, 곧 그리스도 결에서의 온전함을 나타냅니다.

세 가지 모양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의 모습 그대로, 누구든 서로를 구별하는 데 쓰입니다. 차이는 출신과 사회적 배경, 그 사람의 독특한 개성, 서로 다른 기질과 타고난 재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개인으로서의 인격입니다. 그것이 태어날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고, 그 사람 스스로 보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몇몇 예외를 빼면 그 사람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 곧 그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첫째 줄의 빈 모양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모양들은 비어 있는 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습니다. 그의 인격 구조는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방향으로 빗어집니다. 최악 된 습관들이 생겨나고, 그 습관들이 다시 나쁜 성격을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모양들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자기 안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각인되어 있습니다. 채워진 모양들은 거듭나기 전의 사람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개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십니다. 이 새것은 개인의 인격에 꼭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담 안에 이미 사람의 모든 인격 유형이 들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각 개인 안에 사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 안에 심긴 씨앗에 비유합니다. 이 씨앗은 첫날부터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본질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씨앗은 인격의 모양에 온전히 들어맞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지닌(곧 물려받은) 특성들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각 사람 안에 완전히 새로운 것을 넣으실 수 있으며,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에 온전히 들어맞는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은 그 인격을

파괴하려고 하신 적이 결코 없다.”⁷ 이제 각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 안으로 그리스도의 본질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여 예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유일무이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새 창조 안에 있는 다양성과 풍성함의 표현이며, 그것은 이미 첫 창조 안에도 있습니다.

(여섯 줄로 된 그림. 각 줄에 사각형 하나, 원 하나, 삼각형 하나가 있다)

(1줄: 세 모양이 회색이고 비어 있다)

각자의 인격을 지니고 태어나는 서로 다른 사람들

(2줄: 모양들이 작은 검은 모양들로 가득 차 있다)

개인의 인격은 거듭나기 전에 일상생활의 경험들로 채워집니다. 성격이 형성됩니다. 좋은 성격적 특징들도 있지만, 악한 마음에서 나오고 때로는 대부분 죄로 각인된 행동 방식들이 많습니다. 사각형과 원과 삼각형 안에 든 내용은 그 사람이 하나님 없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해당합니다.

(3줄: 각 모양의 한가운데에 같은 모양의 작은 흰 모양이 나타난다)

거듭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적인 씨앗이 사람 안에 심깁니다. 이제 그리스도 자신이 신자의 새로운 영적 생명이십니다. 이 새 생명은 그 사람의 인격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모양과 큰 모양이 서로 같다는 것(예를 들어 작은 사각형과 큰 사각형)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창조 때부터 각자에게 고유한 인격을 바꾸지 않고, 그 인격을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채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죄 가운데 태어난 인격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4줄: 흰 모양이 자랐고, 검은 모양들은 줄어들었다)

거듭난 날부터 신적인 생명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꾸준한 성장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서 점점 더 형체를 이루십니다. 옛 내용, 옛 삶의 방식, 옛 행동 양식은 줄어들고 점점 더 사라집니다. 씨앗은 계속해서 자랍니다. 곧 그리스도의 본질이 거듭난 사람을 점점 더 꿰뚫고 채우고 빛어 갑니다.

7. Custance, Arthur C., *Man in Adam and in Christ*, 171쪽.

(5줄: 사각형에서는 흰 모양이 다시 작아지고 검은 것이 많아졌다. 원과 삼각형에서는 흰 모양이 거의 전부를 채우고 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자라지 못했습니다. 옛 삶이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두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일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그들 삶의 내용과 목표로 신뢰하며 **그분**을 섬기는 데 힘썼습니다.

(6줄: 사각형, 원, 삼각형이 온통 **회다**)

영원 속에서 모든 신자는 부활의 몸, 곧 영광의 몸을 가집니다. 그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를 통해 그가 되게 하신, 곧 창조하신 그 개인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죄와 죄악 된 육신은 완성 때에 최종적으로 과거가 되고 지나간 역사가 됩니다.

심긴 씨앗은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본질이 인격을 점점 더 꿰뚫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분 자신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장의 정도와 속도에는 우리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옛 삶의 방식을 벗어 버리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더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림의 모양들은 언제나 그대로이고, 내용만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에게서 오지 않고 옛 삶에서 나온 다른 모든 씨앗과 식물을 철저히 없애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씨앗이 자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줄은 안타깝게도 뒷걸음질할 수도 있으며, 그 씨앗,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서 더 이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씨앗은 작아지고 옛 자아 중심의 삶이 다시 커집니다.

또는 원과 삼각형에 나타난 것처럼 성장이 꾸준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인격이 참으로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고 그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늘 영광의 온전함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 영원히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아무 죄도 없이, 그러면서도 주님과 같을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씨앗은 얼마나 큼니까? 그 씨앗은 어느 만큼 자랐습니까?

2.11 전체를 한눈에

이 그림⁸은 서로 직접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의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요소들을 간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단지 복된 영원으로 가는 탑승권으로만 예약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명, 그분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지금 이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유하시려고 모든 것을 내어 주셨듯이,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풀 수 없는 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고 만족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는 그것을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에서만 경험합니다. 그런 삶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의 내용과 삶의 목표와 미래로 삼습니다. 그분은 언젠가 우주의 구석구석을 채우실 것이며, 지금 이미 우리를 채우십니다. 이 충만함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꿰뚫고, 날마다 우리를 더욱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 자신은 가장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맨 처음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행동의 능력이며 기초이십니다. 여기에 일상의 경험이 더해집니다. 일상은 우리를 빔어 가고 선을 행하도록 도전하지만, 악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기장이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삶의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삶의 드라마들이 그곳에서 펼쳐집니다.

모든 일에는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노력, 그리고 진지하게 실천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뉘지 않고 채워진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야 하며,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 자신의 삶과 소원과 이익을 뒤로 미룰 각오와 절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림: 가운데 원을 향해 위쪽과 아래 두 꼭짓점에서 화살표 세 개가 가리키는 삼각형. 위, 원 안,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에 글이 있다)

8. Dallas Willard, *The Divine Conspiracy*, 347쪽의 착상에 따름.

우리 안에 거하시며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을 통한,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삶을 위한 지혜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안전하게 최종 목적지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의 땅 위의 삶에 대해 그분이 세우신 목표를 우리와 함께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생명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의 중심이며 한가운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형체를 이루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과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완성되지만, 도덕적인 면에서는 이미 땅 위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현실, 믿음의 경주장: 온갖 죄악 된 유혹과 미혹이 있는 일상, 그러나 또한 원수의 시험과 공격,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양육 가운데 겪는 여러 시련

우리의 믿음과 의지, 우리의 결단과 헌신, 우리의 노력과 절제와 지구력. 서툴더라도, 실수와 좌절과 실패가 있더라도, 하늘의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믿음의 경주장에서 계속 나아가고 계속 달려가는 것

2.12 산행

유람 비행이 강한 인상을 남겼으니, 이제 저는 몇 차례의 “정신적인” 산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 아이들은 산행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저도 마음을 다잡아야 겨우 나섭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깨달았습니다. 제 서재에서 알고이 (Allgäu) 알프스의 수많은 산봉우리를 볼 때, 그 봉우리 가운데 하나에 걸어 올라가 경치를 즐겼던 일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경험입니다. 힘들게 올라간 뒤에 맞는 그 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직접 산에 오르는 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이 산행은 평지에서 하는 가벼운 산책이 아닙니다. 제가 초대하는 것은 흥미진진한 산행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산을 오르고, 쉬운 구간과 어려운 구간을 만나겠지만, 언제나 목표를 분명히 바라봅니다. 그 목표는 우리가 이미 “**날아서 훑어본**” 구원의 사실들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산행은 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 자신이 이 글을 쓰면서 이미 이 산행을 했고, 그것은 깊은 인상을 남기고, 마음을 뒤흔들고, 눈을 밝히고, 자유롭게 하며, 큰 동기를 주는 발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산악 안내자는 성령이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진리, 곧 성경의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우리 삶에서 그분을 크게 하시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첫 번째 산행이 가장 길고 가장 힘들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이 봉우리에 오르고 나면 다음 봉우리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쓴 편지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보여 줍니다. 우리는 먼저 이 편지를 다룰 것입니다. 우리와 관련된 이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들이 이처럼 철저하게 다루어진 곳은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한 절 한 절 정상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2.13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우리는 로마서에 맨 앞에서 올라타지 않고, 이 “은혜의 열차”의 다섯 번째 “객차”에 올라타입니다. 그래도 처음 몇 장에 무엇이 있는지 짧게 짚어 보겠습니다. 1:1-17의 서론 다음에 바울은 1:18-5:11에서 온 인류의 죄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 죄들 때문에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 상태로 서 있습니다 (1:18-3:20). 하나님 편에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이 상황에 두 가지 구원의 사실을 맞세우십니다.

-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3:21-31)
- 그리스도를 다시 생명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4:1-25).

이 편지의 둘째 부분은 5:12부터 8:39까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칠 수 없는 우리의 죄악 됨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다룹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원리로서의 죄, 사람 안에 있는 강한 권세로서의 죄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1:17)?

2.14 우리의 구원을 위해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했는가?

사람이 그토록 타락했다면, 사람 안에서 무엇인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닐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전혀 다른 답을 준다. 일차적으로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야 했다. 우리의 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과 더불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도 구원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그때에야 비로소, 그보다 먼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차례가 된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첫째 사역은 완전히 우리 바깥에서 일어났고, 이미 이루어졌으며, 더 이상 아무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다. 둘째 사역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며, 아직 끝나려면 멀었고, 덧붙일 것이 아직 많다. 그러나 죄의 문제(죄의 권세, 악의 뿌리)의 해결도 죄들의 문제의 해결과 똑같이 구원의 사실에 속한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이렇다.

- 죄에서의 해방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며, 그때 그것은 칭의의 일부이다(6:7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⁹이라는 표현 참조). 이것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 그다음에 해방은 우리 안에서 형체를 갖추며, 그것은 성화의 일부이고, 이 성화는 우리의 영화로 이어질 것이다(8:30).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며, 우리의 땅 위의 삶 동안 한 걸음씩 이루어진다.”¹⁰

9. ER(독일어 성경 번역본)의 난외주 참조.

10. H. P. Medema, *Romeinen 7 enzovoorts*, 44쪽.

3. 로마서 5:12-21: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로마의 성도들은 낭독자가 5:11까지 읽는 것을 숨죽여 들었을 때 - 이미 믿음에 이르렀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렀는데도 - 다시 한번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 일이 방금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고, 이 하나님의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아니라 온 땅의 재판장에게서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범죄의 주제,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사실은 사실상 11절로 마무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하나님의 의에 관한 모든 질문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일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도는 다시 긴장을 썩아 올립니다. 이 편지의 처음 몇 장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긴장입니다.

죄는 어디서 왔을까요? 죽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왜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리고 물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정죄의 악순환에서 빠져나갈 길이 있을까요? 어쩌면 몇몇 사람은 어리둥절하여 서로 쳐다보았을지 모릅니다. 바울이 방금 구원의 환호성을 들려주지 않았던가요? 왜 이제 다시 죄와 죽음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이 주제가 아직 다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들어 보면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곧 분명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불의한 자들이며 죄인들임이 드러났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런 질문이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이제 주제는 **사람이 무엇인가**, 그가 왜 죄를 짓는가, 죄들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쁜 열매들을 다룬 바울이 이제는 뿌리를 파 들어갑니다. 죄인은 자기 죄들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곧 무죄 선고를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죄의 권세에서도 구속되어야 합니다. 그는 아담과의 연결 때문에, 말하자면 생명의 족보를 통해 이 권세의 지배 아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문제이며, 그는 이 연결 속에 붙잡혀 있어서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연결에서 빠져나갈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본문은 타락과 그 결과의 참상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본문은 두 주인공(곧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와 대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활짝 여셨는지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6장, 7장, 8장의 기초를 놓습니다. 이 본문은 실제로 서론과 준비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꼼꼼히 읽는 사람은 이어지는 장들에서 그다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3.1 12절: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같이 ...

단 한 사람이 죄에게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자기 삶 속으로만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열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그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하여 죽음과, 그와 결부된 모든 비참함까지 들여놓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하찮은 첫 행동 하나가 불씨처럼 큰불을 일으켰고, 그 불은 오늘날까지 어느 때보다 더 거세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인물은 곧바로 알 수 있듯이 역사적인 아담, 곧 첫 사람입니다. 바울은 불순종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딤후 2:14). 그러나 아담은 침묵했고 함께 따라 했습니다. 하와가 있기 전에 계명을 받은 것은 그였는데도 그는 자기 아내를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일어난 모든 일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주제는 두 주인공, 곧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입니다. 그들의 모든 “후손”이 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1.1 죄와 죄들

죄는 아담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요일 3:8). 사탄은 유혹하며 첫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유혹하는 자, 곧 옛 뱀은 여기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온전히 자기 책임 아래 행동했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개념은 단순히 죄들의 단수형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훨씬 더 큰 것이 문제입니다. 이 구절과 이어지는 본문들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다루는 것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원리로서의 죄,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에 맞서는 권세로서의 죄입니다. 모든 사람을 덮친, 생명을 위협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서의 죄입니다. 사도 요한은 “죄는 불법이라”(요일 3:4)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무정부 상태)을 포함합니다.

워치만 니(Watchman Nee)는 죄들과 죄를 다음과 같은 상황에 매우 생생하게 비유합니다. 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 한다면, 모든 술을 찾아내어 없애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급원, 곧 술을 만드는 곳들을 멈추게 하고 부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술 자체는 죄들을 나타내고, 공장들은 죄를 상징합니다.

3.1.2 죄와 죽음

죄가 죽음을 가져오리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도 알고 있었습니다(창 2:17). 하나님 자신이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그 결과로 죽음이 올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그들이 이 계명을 어긴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창조주께서 그분의 피조물과 나누시던 방해받지 않는 신뢰의 관계를 즉시 끊어 놓았습니다.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나 폐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분리를 뜻하며, 이전 상태의 변화, 곧 악화를 뜻합니다. 신약 성경은 영적인 죽음에 대해 말합니다. 이 죽음은 사람의 마음이나 영의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무능력을 뜻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죄의 결과로서의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 말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고 비켜 갈 수 없는 죄의 (나중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아서 아담의 본성을 지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사람들 가운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서도 죄가 없음이 진단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으며, 조만간 죽음을 겪습니다.

3.1.3 타락과 원죄

이것은 아담의 타락이 모든 사람에게서 되풀이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곧 각 사람이 아담처럼 죄 없는 상태에서 순종할 것인가 범죄할 것인가의 선택 앞에서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쩌면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데 성공할 수도 있고, 따라서 죽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악 된 본질을 물려받았고, 그래서 그의 삶이 죄로 각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후손으로 이어지는 줄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죽음이고, 둘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상황과 다른 점은, 오늘날 사람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의 본성 때문에 이미 도덕적으로 약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타락해 있고)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원죄”¹¹라는 신학 개념은 이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는 모든 사람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적대적인 원리로서, 고칠 수 없는 병처럼 사람의 존재 전체를 감염시켰습니다. 죄는 사람 전체, 곧 그의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몸을 사로잡았습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은 사람의 비물질적인 부분, 곧 그의 속사람을 사로잡아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인 죽음(엡 2:1)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몸)에도 해를 입혔습니다. 몸도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8:10).

모든 사람의 역사는 그의 시조에게서 떼어 낼 수 없습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얻는다고 해서 그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것이

11. 영어로는 original sin.

아닙니다. 그는 온갖 비극적인 결과를 안고 있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태어나는 아이 가운데 죄를 배워야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죄는 요람에서부터 그에게 주어져 있고, 오직 교육만이 죄가 전면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마치 우리가 아담 안에서, 곧 그의 범죄 안에서 (함께) 죄를 지은 것처럼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전혀 저지르지 않은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셈입니다. 요점은 아담이 이 행동으로 죄를 자기 삶 속에 들여놓았고, 그의 후손인 우리는 그 본질을 필연적으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3.1.4 단순한 계명 하나

그토록 끔찍한 결과를 낳은 범죄는 무시무시한 죄악의 행동, 곧 살인이나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계명 하나를 어긴 것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이 특별히 끔찍해야 비로소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행동은 (생각 속의 근원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 여기서는 단순한 계명 하나로 표현된 그 권위를 - 거부하거나 그저 잊어버리기만 해도 죄입니다.

이 장들에서 죄는 거의 죄악 된 행동들로 언급되지 않고, 거의 언제나 모든 죄악 된 행동들 - 곧 죄들 - 뒤에 있는 원리로 언급됩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삶을 스스로 손에 쥐고, 하나님의 뜻이나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끔찍한” 죄들이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의 삶도 살인자나 간음하는 자의 삶과 똑같이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들에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죄의 씨앗은 모든 사람 안에서 싹틔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에게서 똑같이 다 자라지는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바울이 향해 가는 큰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서나 화목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을 용서하십니다. 이

5장의 앞부분에서 이미 사도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곧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아담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서는 아직도 죄가 다스리는데, 하나님은 신자의 삶에서는 죄가 더 이상 다스리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하실까요?

12절은 긴 삽입구 때문에 중단되어, 겉보기에는 중간에서 끝나 버립니다. 우리는 본문 전체를 알고 있으므로,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여기서 한번 우리의 말로 그 문장을 끝맺어 보겠습니다. 이 12절이 삽입구 뒤에 이어지는 18절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며

이와 같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같이 …

… 이와 같이 한 사람과 그의 의로운 행위(골고다)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들어오고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으며

이와 같이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3.2 13절: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죄

… 율법이 있기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삽입구가 시작되어 17절에서야 끝납니다. 바울은 인류 역사의 어느 시대이든, 율법이 있든 없든, 아담과의 연결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담과 함께 시작되었고, 사람의 세계에서 죄와 죽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라, 곧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까지는 아마 약 2500년이 흘렀을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손에 잡히게 하고 드러나게 하지만, 죄는 이 율법이 아직 없던 시대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에 머물게 된 것이 아담으로 말미암았다는 그의 중심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의 모든 후손은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임이 드러났습니다. 율법이 죄의 이름을 부르고 고발할 수 없었더라도, 아담 이후로 죄는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 모든 사람의 죽음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로도 확인됩니다. 노아 때의 대홍수가 아마 그 가장 분명한 예일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이 편지의 처음 몇 장에서 율법 시대 이전 아담 후손들의 절망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던 시대에 나중에 율법의 기준을 적용해 본다면, 양심의 증언과 더불어, 사람들이 그때에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3.3 14절: 오실 자의 모형인 아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죽음이 왕 노릇 하였으니,

아담의 범죄와 같은 모양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그러하였느니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호 6:7 참조)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지배는 확고하며, 그것은 그만큼 무자비한 죄의 지배를 증명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계명이 없어도 죄가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것이 아니라(그것도 사실이지만),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오해의 여지 없이 분명히 보여 줍니다. 구체적인 범죄가 없어도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로써 아담과의 연결이 문제라는 증거가 주어집니다.

의식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아기들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강조해서 말하려는 것은 우리의 시조 아담과의 연결이 (율법이 있든 없든) 어떤 사람에게서도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맨 처음 조상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다음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는 세상에 들어왔을 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는 악한 행위들이 마음에서, 안에서부터, 가장 깊은 속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막 7:21-23). 악한 행위들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롬 5:19 참조; Luther 1912, 독일어 성경 번역본).

3.3.1 아담과 그리스도

이제 바울은 아담과 “오실 자”를 매혹적으로 대비하여 설명합니다. 오실 자는 분명히 그리스도이십니다. 미래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입니다. 이것을 반대 모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행위가 미치는 범위와 영향에서는 서로 일치하지만, 그 행위들 자체는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첫 아담은 죄와 죽음을 나타내고, **마지막** 아담(고전 15:45)은 생명과 의를 나타냅니다. 두 인물의 공통점은 둘 다 한 인류 가족의 머리나 근원이나 아버지로 불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둘 다 그들의 후손 또는 그들의 족속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3.4 15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손해가 넘치도록 회복되다

그러나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냐?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안에 있는 선물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와와의 대조를 통해 아담이 모형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그가 시조인 많은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담 가문을 돌보시는 것은 참으로 순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자기 잘못 없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죽음과 죄로 특징지어진 잃어버린 처지에 빠진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의 신조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미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의 선물을 낳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대비되는 한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선물은 한 인격이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흘러서 모든 독이 무너지고 (이 행성 어디에 있든) 모든 사람에게 이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마지막 아담의 인격 안에 있는 은혜는 첫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온 그 모든 것보다 강합니다. 죽은 사람이 많았고, 살게 될 사람도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인류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3.5 16절: 범죄의 결과와 은사의 결과

또 이 선물은 죄를 지은

한 (사람) 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냐?

심판은 한 (번의 실족) 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렀느니라 (곧 칭의 또는 의롭다 하는 판결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엄청난 결과를 낳은 결정은 모든 사람에게 정죄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그가 남긴 유산입니다. 15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정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한 그분의 의로운 심판과 판결을 집행하시며, 그것은 정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죄인의 칭의, 곧 정죄의 반대로 이끅니다. 그 정죄는 우리를

대신하신 분에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고발당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만이 아니라, 그의 수많은 후손이 저지른 많은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시대도 이제 여기에 포함됩니다.

3.6 17절: 죽음의 지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하여지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왕 노릇 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넘치는 풍성함 (넘치는 분량) 과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곧 생명의 능력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흐르며, 헤아릴 수 없는 넘치는 풍성함으로 나타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의 지배에서 건져 냄을 받습니다. 이제 죽음이 더 이상 그들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다음 장이 보여 주듯이, 그들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왕 노릇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승리자가 됩니다. 지금 이미 그렇고, 머지않아 그들이 예수님과 같아질 때 새 몸으로 온전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13절에서 시작된 삽입구가 끝납니다. 그 삽입구에서 바울은 율법이 없는데도 죄가 있다는 특별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는 아담이 한 일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모든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아담과 연결되어 있고 그의 범죄의 결과 아래 있습니다.

아담과의 연결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사실입니다. 이것은 선한 행위로 두드러지는 이른바 “착한 사람”, 곧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스스로 이 연결에서 풀려날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말씀이 보여 주듯이, 그는 절망 가운데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빠져나갈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아담의 죄 없는 상태를 되찾을 뿐 아니라, 그의 새로운 “가장” 이신 그리스도와 의 새로운 연결을 통해 아담이 일찍이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아담의 사명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 그의 모든 후손은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할 것입니다. 이 다스림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생명의 충만함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상황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걸맞은 사람, 곧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힘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에게 미치는 온갖 영향을 지닌 죽음과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 된 상태에서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그 존재가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뒤에서 더 자세히 풀어 갈 것입니다.

3.7 18절: 정죄와 생명의 칭의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정죄에 이른 것같이

한 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느니라.

또다시 아담의 비극적인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 범위와 영향에서, 한 의인의 한 행위와 대조를 이룹니다. 정죄는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 있을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입니다. 그러나 한 의, 한 의로운 행위도 그와 똑같이 효력 있게 서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발적이고 순종하는 희생의

죽음을 포함합니다. 이 하나의 비할 데 없고 단 한 번뿐인 행위는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효력을 미칠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의 칭의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이 편지의 첫 부분에서 이미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입니다. 이제 **생명의 칭의**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죽음보다 강한 생명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죄책의 문제, 곧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밝혀야 하는 재판 과정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내가 사람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으로서,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바뀐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명, 곧 부활하신 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죄들에서 나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곧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새로운 존재도 하나님의 의의 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죄, 곧 하나님의 유죄 판결은 내가 한 일 때문만이 아니라 나의 존재 때문에도 정당하게 나에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이어서 더 자세히 설명할 내용의 기초가 됩니다.

칭의는 생명이라는 선물을 가져옵니다. 칭의는 영생으로 이끕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결 속에서 나는 전혀 새로운 신분에 있습니다. 이 신분은 이제 새로운 생명의 수여자, 새로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절대적으로 결정됩니다. 이 상태에서 나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칭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8 19절: 죄인들의 법적 신분과 의인들의 구원의 신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의 신분에 놓인 것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의 신분에 놓이리라.

죄인의 신분은 그가 하나님의 판결로 말미암아 처하게 된 가련한 자리입니다. 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나의 존재 전체에서 죄인이며, 죄인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달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순종의 열매는 내가 의인의 확고하고 안전한 신분을 차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것은 두 주인공, 아담과 그리스도를 추상적으로 대비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의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5장 첫머리에서 나는 말하자면 무죄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나옵니다. 이제 삶은 계속됩니다. 나는 이제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내가 한 일이 문제였고,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의 신분에 두셨고, 그분이 친히 만드신 이 자리를 진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판결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죄인의 신분으로는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태어납니다. 의인의 신분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은 믿는 사람들에게만(“많은 사람”에게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에게는 아닙니다) 주어집니다.

3.9 20절: 율법은 모든 죄를 드러낸다

율법이 결들여 들어온 것은

범죄를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

율법은 아무것도 좋게 바꿀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처지를 개선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욱 넘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억눌리고 막히기는커녕 더욱 드러났습니다.

모세의 율법(그 핵심은 십계명)은 죄가 얼마나 강하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그분의 뜻을 계시하신 것은 그것으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사람을 넘쳐나는 그의 죄들의 홍수 속에서 멸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한없는 그분의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주인공의 비교는 단순한 대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에서만이 아니라 은혜에서도 더 크시다는 증거입니다.

율법은 이전에 이미 있던 것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아담 때부터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과 함께 이제 죄들이 그 이름으로 불립니다. 율법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이 율법과 함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변하지 않고 매수될 수 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3.10 21절: 죽음에서 영생으로

… 이는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 한 것같이

(죽음의 능력 안에서),

은혜도 또한 왕 노릇 하여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스리던 죄의 지배는 이제 과거입니다. 그들에게는 은혜가 다스립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그냥 눈감아 주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는 가장 좋은 기초이며, 절대적인 법적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아담”(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너무나 압축적이고 풍성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거의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은혜도 한때 죽음이 그랬던 것처럼 -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고 아무도 거스를 수 없게 - 다스립니다. 죄인이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우리도 은혜의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통치는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 처음으로 영생이 언급됩니다. 여기서는 생명의 부활 때 장차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없는 미래를 약속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3.11 로마서 5:12-21 개관

	옛 창조의 대표자이며 머리; 첫 사람	새 창조의 대표자이며 머리; 둘째 사람이며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의 모형	아담	예수 그리스도
행위	범죄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온전한 구속 사역
결과	죄와 죽음	의와 생명
모든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	유죄 판결과 정죄	은혜와 생명의 칭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	죄인	의인
옛 왕권 주장과 새 왕권 주장	죽음에 이르는 죄의 지배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은혜의 지배

4. 로마서 6장: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다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본질상”(엡 2:3; 롬 11:24) 그들의 시조 아담의 계보에 속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으로서 필연적으로 죄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계명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새” 아담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은 첫 아담과 인류 전체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아담과 달리 가장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평생 순종하셨고, 마침내 죄를 위한 제물로 자신을 자발적으로 내어 주시는 절정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의로운 행위(5:18)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달혀 버린 생명나무로 가는 문을 엽니다. 이 생명나무는 이제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으로서 말입니다. 이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의 세대가 생겨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개입으로(고전 1:30)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집니다. 구원의 전환, 곧 편을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아담과의 연결을 끊고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아담의 나무에서 잘려 나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 연합되었습니다(6:5).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6:11). 그들은 마지막 아담(고전 15:45)의 생명을 받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와 시작과 근원으로 하는 새로운 가족에 속합니다. 그분은 둘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이 새 창조 안으로 죄를 다시 들여올 수 있는 새로운 비극, 새로운 타락을 결코 없을 것입니다.

4.1 편을 바꾸다: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바울은 이제 이 주제를 어떻게 이어 갈까요? 로마서 5장의 둘째 단락은 이어지는 세 장을 위한 일종의 준비 작업입니다. 이제는 한 계보에서 다른 계보로 넘어가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문제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가는 이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런 사람들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죄는 어떻게

될까요? 신자들은 회심과 거듭남을 통해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 될까요?
6장에서 바울이 하는 설명 뒤에는 이런 질문들과 비슷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4.2 1-2절: 은혜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허장인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죄에 머물러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죄를 향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분명히 신자들은(바울은 여기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신자에게 더 이상 죄가 없느냐는 질문은 이미 답이 나온 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죄와 그 결과를 언제나 능가할 넘치는 은혜는, 일부러든 아니든 잘못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마치 아직 아담 가문에 속한 것처럼 늘 하던 대로 계속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의심할 여지 없이 잘못된 결론이며 모순이고, 바울은 단호하게 이에 맞섭니다. 그런데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아마 바울의 복음에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조에 따라 삽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런 결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4.2.1 우리는 죄와 그 권세에 대하여 죽었다!

신자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죄가 더 이상 그의 삶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결과가 따라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아직 팔팔하게 살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설명은 이 절에서는 아직 얻을 수 없고, 다음 절들에서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먼저 서론으로 이 사실 자체가 문제입니다. 죄에 관한 한 우리는 죽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생각을 한 걸음씩 펼쳐 가는 것을 따라가 봅시다. 여기서 이미 이 점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은 그 죽음은 우리의 존재를 끝내지 않습니다. 영이나 혼의 존재도, 몸의 존재도 끝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죽음이며, 오직 죄와만 관계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죄와의 연결이나 관계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문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형 판결을 스스로 끊어지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분은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10절). 그분이 제물로 자신을 내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4.3 3-4절: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

혹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과 합하는 세례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의 성도들은 “죽은 상태”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의 세례를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행위로 그들은 (로마서 5:12-21의 실마리를 이어 가자면) 공적인 고백으로서 아담 편에서 그리스도 편으로 옮겨 가는 일을 행했습니다. 강이나 호수에서 받은 세례로 그들은 그것을 본 모든 사람에게 그들에게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여기서 물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세례입니다. 세례 자체는 “죽은 상태”라는 내적 실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외적인 행위로서의 세례는 나의 죽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나의 거듭남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세례는 말하자면 믿음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실재의 외적인 면입니다.¹²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영적으로, 그러므로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 일을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4.3.1 죽음과 합하는 세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분의 죽음과 합하여서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또는 그 죽음을 향한 고백입니다. 세례받는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선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삶에 감탄하며, 그와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삶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세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모두 세상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례의 관계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그분의 죽음입니다. 세례의 관계 대상은 세례를 통해 어떤 인격에게 자신을 묶는지를 나타냅니다(예: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음; 고전 10:2). 세례를 받은 때부터 사람은 그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 인격을 따릅니다.

세례의 상징은 분명합니다. 세례 행위에서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은 죽이는 과정이 아닙니다. 세례는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아주 단순히 상징적인 장례, 말하자면 물 무덤 속으로 묻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12. 이것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분은 세례를 주시는 분이며,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렇게 하여 그들을 한 몸, 곧 교회에 더하시고 그 안에 지체로 들이십니다(고린도전서 12:13). 물세례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자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베풀며, 그렇게 하여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이룹니다. 성령 세례는 또한 죽음과 합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표징입니다. 물세례는 공적인 증언이며 외적인 행위입니다.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과정이며, 성령을 받을 때 단 한 번 이루어지고, 신약 성경의 뜻으로는 오직 교회에 속하는 것과만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곧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의 사형 판결에서 나를 구원한 것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형 판결을 받아 마땅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세례를 통해 나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죽음 안에서 나에게 사형 판결이 집행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회심하고 거듭나기 전까지의 옛 사람은 세례에서 상징적으로 무덤으로 옮겨져 장사됩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 없는 나의 삶이 오직 죽음을 받아 마땅했으며, 동시에 영원히 끝났다고 고백합니다. 아담의 계보와 족보 안에 있던 이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초원의 불이라는 그림이 이 생각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 큰불에서 나를 지키려면, 불이 이미 휩쓸고 지나간 곳으로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세례를 통해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자리, 곧 죽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이 장사가 죽음과 합하여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포함하는지는 바울이 믿음의 실재를 묘사하면서 곧바로 설명합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을 통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도 이미 그렇습니다. 세례는 이미 내적인 실재이고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영적인 사실만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으로서 세례는 외적으로 아담의 계보와의 결별(그러므로 세상과의 분리)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사람은 말하자면 세례 행위를 통해 세상과 갈라섭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외적 행위일 뿐이므로 내적 실재를 만들어 내지는 않습니다. 세례는 하늘을 위해 구원하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구원”합니다. 세례를 통해 세상과의 근본적인 외적 분리가 이루어지며, 그것은 믿는 세례받는 사람의 내적인 믿음의 실재에 상응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세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행 2:40; 벰전 3:21) 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가 영적 실재에 대한 고백을 포함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를 “성례”로 만들어서 마치 구원에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잘못된 교회의 세례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독교 세례가 세례로부터

만들어 낸 이 문제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에게서는 두 면(고백이라는 외적인 면과 참된 믿음이라는 내적인 면)이 서로 엮여 있어서, 서로를 떠받치고 심지어 서로를 전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강조하는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의 이런 분리를 바울은 거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세례받지 않은 그리스도인(곧 거듭남이 주어졌는데 세례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도 없었고, 세례받은 비그리스도인도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고백이 전부이고 죽음이 마지막 말을 한다면, 아무도 세례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례는 “장례”이지만, 동시에 소망의 표징이며 새 생명의 증거입니다. 한편으로 세례는 죄인인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형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또한 부활하신 분을 통해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걸음을 기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4 4절: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살리심을 받다

…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먼저 죽음을 말하지만, 그다음에는 생명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상태” 뒤에는 그분의 부활에서도 그분과 연합하는 일이 따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결은 우리가 그분의 사역 전체에서 -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장사되심과 다시 살리심, 그리고 심지어 그분의 승천과 즉위에서도(엡 2:1-10) - 그분과 연합되어(롬 6:5에서는 “함께 자란” [ER(독일어 성경 번역본) 참조]) 있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비록 마지막 것은 여기서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지만 말입니다(엡 2장 참조).

아버지의 영광(이 표현은 여기에만 나옵니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며 자신을 내어 주신 일에 응답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분을 다시 살리신 것은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위대하심과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이 유일무이한 온전한 헌신 앞에서, 말하자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살리지 않을 수 없는 “압박”

아래 있었습니다. 구속사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 자체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지켜져야 하고 침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영원하고 확실한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롬 3:23).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신적인 영광에 걸맞을 수 없고, 그것과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시고, 마침내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심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다시 살린 것은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죽음이 그분을 다스리고(6:9) 그 유일하신 분,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이 무덤에 계실 때, 아버지의 영광은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처럼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문자 그대로는 아니어도 간접적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옛 사람의 옛 삶은 끝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가질 수 있고, 일상에서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새로움”은 이전과는 정반대인 전혀 다른 삶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담 가문에 속해 있을 때 가졌던 삶과 다릅니다.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5:17)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의 새 생명은 우리를 죽음과 죄 위로 들어 올렸고, 섬기도록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사람들(6:13 참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는 것입니다.

4.5 5절: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그와 연합하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연합한 (함께 자란)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그러하리라 …

새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옛 삶을 끝내는 죽음을 거쳐서만 이어집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옛 삶을 끝내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며 오직

그분의 행위입니다. 죽고 장사된 사람만이 새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나의 것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결이 우리의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뜻한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한편으로 옛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거룩하고 의로운 본질에 따라 끝이 납니다. 곧 그분의 거룩하심의 의로운 요구가 심판 가운데 충족됩니다. 오직 이것만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이것만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께 합당한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와 의 연결은 매우 긴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함께 자라 하나가 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를 한 걸음씩 그리스도와 더 긴밀하게 묶어 주는 과정이 아니라, 단 한 번 일어나 완결된 사건입니다.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적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최종 행위”가 문제입니다. 이 일은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역사적인¹³ 죽음 안에서, 내 바깥에서 그리고 **나를 위해**(내 안에서가 아니라)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을 우리의 미래의 부활로 이해하지 않습니다.¹⁴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문자적인, 곧 육체적인 의미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의미도 우리가 부활하신 분 안에서 받은 우리의 영적인 새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그의 부활에서도 (반드시, 곧 확실히) 그러하리라.”¹⁵ 이것은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하는 말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 세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골 2:12; ER, 독일어 성경 번역본).

13. 여기서 “역사적”이라는 말은 실제로 일어났고 역사적으로 증언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뜻합니다.

14. 어떤 주석가들은 이 장에서 다시 살리심, 곧 부활은 언제나 몸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옛 사람이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을 옳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나를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기도 하신 그리스도와 연결합니다. 이 세례는 아주 의도적으로 물에서 베풀어집니다. 세례받는 사람이 물에 잠긴 뒤에 다시 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증언으로서 분명히 보여 줍니다. 그는 부활하신 분의 인도 아래 새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15. 사실 모든 신자가 육체적인 죽음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변화되어 휴거되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여기서 묘사된 부활(영적인 의미에서 삶을 바꾸는 부활)에 이미 참여할 것입니다.

생명의 새로움(4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입니다(곧이어 13절에 나오는 표현 참조).

4.6 6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 사람

…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무력하게 되어)

다시는 우리가 죄를 (중으로) 섬기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이 문장에서 이제 문제의 핵심에 이릅니다. 이것이 그가 이 장 첫머리에서 말한 것, 곧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형 판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하나님의 심판을 떠맡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옛 사람을 재판에 넘기셨습니다. 옛 사람은 그저 노쇠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옛 사람의 존재와 그가 한 일에 대한 법적인 재판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타협 없는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 또는 “깨닫는” 것이 문제라는 점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결정적인 관건입니다. 여기서 무엇인가가 내 바깥에서, 나를 대신하여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 심판에서 나를 대표하는 분, 곧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내 앞에 서서서 심판이 나에게가 아니라 그분에게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은 내가 느끼거나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이 사역은 나의 감정이나 느낌과 상관없이 100 % 유효합니다.

골고다에서 일어난 일의 목표는 사람을 지배하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 그것도 모든 신자의 삶에서 깨뜨리는 것입니다.

4.6.1 옛 사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개념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 안에 아직 살아 있는 **옛 본성**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의 문맥에서 이것은 아담에게 속한 사람, 또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뜻일 수밖에 없습니다. 옛 사람(헬라어 *palaaios anthropos*)은 회심하기 전, 거듭나기 전의 사람입니다. 옛 사람을 “육신”이나 옛 본성, 또는 죄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아담의 계보에 서 있는 사람, 곧 아담 가문에 속하며 죄에 의해 결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그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 된 사람이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사람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몸으로 땅 위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육신, 곧 우리의 옛 본성이 아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 일을 그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개인적인 일로 만듭니다. 그것은 회심하기 전에 책임 있는 사람인 나를 특징지었고 내가 그에 따라 살아온 **나의** 옛 삶입니다.

“옛 사람”은 다른 두 곳에서 언급되는데, 그것도 바울만 언급합니다. 이것은 아마 바울 자신이 만든 개념일 것입니다. 이 개념은 구약 성경에도, 헬라인들의 사고 세계에도 없었습니다. 이 개념은 이런 형태와 이런 뜻으로는 오직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이 구절들(엡 4:20-24; 골 3:9-10)에서는 우리가 옛 사람을 (옷처럼) 벗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세 구절 모두 단 한 번 일어난 완결된 행위를 묘사합니다.

그런데도 이 구절들은 우리가 옛 사람의 옛 삶의 방식도 실제로 벗어 버려야 한다는 것을 똑같이 강조합니다. 옛 사람을 단 한 번 벗어 버린 뒤에는 “새 사람”이 끊임없이 새롭게 되는 일이 뒤따르며, 새 사람은 말하자면 “옛 사람”을 점점 더 밀어냅니다.

이 옛 사람의 존재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묘사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혼(곧 이 사람을 이루는 모든 것)을 죄가 벗어 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것이 드러난 죄들로 나타났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스스로 결정하며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삶으로 나타났으며, 그런 삶은 종교적인 겉모습을 떨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와 달리 옛 사람의 자리에 들어선 “새 사람”에 대해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우리를 특징짓는 “생명의 새로움”에 대해 말할 때, 그는 같은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다른 말로 같은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 2:19-20). 여기서 옛 사람은 바울이라는 인격을 나타내는 “나”와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그의 “옛 자아”, 회심하기 전의 그의 옛 삶, 그의 옛 사람이며, 그것이 이제 새로운 자아, 곧 그리스도 자신으로 대체되었습니다.

4.6.2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

우리의 옛 삶은 우리가 한 일과 우리의 존재(그리고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의 존재)를 포함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죽음으로만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역사적으로 증언된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바깥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심판이 그분에게 떨어졌습니다. 윌리엄 켈리(William Kelly)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적절하게 묘사합니다. “율법을 이루셨고 약속의 상속자이셨던 그분이 면류관 대신 저주를 택하셨고, 하나님 나라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짊어지셨다. 그때 모든 행위 가운데 가장 놀라운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느끼시고 표현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의 머리 위에 쏟아부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 가운데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 한 번도 악을 행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던 그분에게 임했다. 그분의 친아들이시며, 그분의 온전한 기쁨의 대상이시고, 그분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은총의 대상이신 그분이 사정없는 심판에 넘겨지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다루셨다. 일찍이 누구도

그렇게 다루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다른 누구를 결코 그렇게 다루지 않으실 방식으로.”¹⁶

4.6.3 죄의 몸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는 죄의 몸이 멸하여진 것(더 정확히 말하면 **무력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몸”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단지 “옛 사람”이라는 표현의 다른 개념이나 다른 측면일까요, 아니면 죄악 된 “육신”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죄의 몸은 그 지체들과 함께 불의의 도구로 쓰이도록 자신을 내맡겼던 우리의 물리적인 몸입니다. 옛 사람은 몸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냈습니다. 몸은 그 충동과 욕심으로 자기 자신을 옛 삶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몸은 죄악 된 습관들을 키워 내고, 관찰하고, 삶의 법칙으로 높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사람 존재의 요소들”을 언급하는데, 영을 앞에 두고 몸을 뒤에 둡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몸이 결정적인 요소로서 맨 앞자리에 섰고, 그다음에야 혼이 따르며, 맨 마지막에 영이 따릅니다. 그런데 본래는 영이 사람 됨 자체를 특징짓고 결정해야 했습니다(살전 5:23).

물론 몸 자체가 죄악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몸은 죄에 굴복해 있었고, 죄를 위한 기꺼운 발판이었습니다. 몸은 죄악 된 독자적인 생명을 키워 왔습니다. 몸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종으로 삼는다고 말할 때(고전 9:27), 옛 사람에게서는 그 반대입니다. 몸이 그 욕심을 통해 사람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하여 몸은 죄에게 속하게 되었고, **죄의** 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롬 6:13, 19).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는 권면까지 받습니다(롬 12:1).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몸은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무력합니다. 더 이상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마비된 사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 골고다에서

16. William Kelly, *Die Lehre des NT über den Heiligen Geist*, 191쪽.

죄가 마음대로 활개 치는 일에 하나님의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죄는 우리의 죽을 몸(죄와 죽음의 몸; 7:24; 8:10)에서 더 이상 왕 노릇 해서는 안 됩니다(6:12). 이런 뜻에서 물리적인 몸은 더 이상 죄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몸은 하나님과 의를 위해 쓰이도록 드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의 둘째 부분에서 죄에서 해방된 결과로서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몸은 죄와 관련해서는 이제 쓸모를 다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바울이 이어서 묘사합니다. 우리는 -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로서 - 이제 몸의 각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6:11-13, 19). 그리고 죄에 관해서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하며, 이것을 기초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8:13). 이것은 뒤에서 다시 우리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4.7 7절: 죄에서 벗어나 무죄 선고를 받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무죄 선고를 받았음이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이라, 또는 농임을 받았음이라).

- 법적으로 또는 사법적으로 보면 - 나와 죄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 연결이 없습니다. 죄는 더 이상 죄책이라는 의미에서 나에게 지워질 수 없으며, 나는 죄 때문에 더 이상 고발당할 수 없습니다. 죄가 아직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격리된 이물질”이며, 내가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나의 새로운 존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죽음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은 죽음의 효력은 그만큼 근본적입니다. 상징적으로 이것은 세례를 통해 선포되며, 우리는 이제 “물 무덤”의 저편에 있습니다.

이 진술은 무엇보다 먼저, 어쩌면 오로지, 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진술은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화에서는 우리 자신도 흔히 모순된 경험을 하거나, 육신에 속한, 곧 최악 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죄에서의 청의(무죄 선고)입니다. 이 무죄 선고는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비로소 유효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자의 새로운

법적 상태를 묘사합니다. “죄는 더 이상 자기의 지배를 관철하고 신자를 통제할 법적 권리가 없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다.”¹⁷

여기서 아직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설명을 찾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절이 우리가 더 이상 종처럼 죄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6절)의 근거이기는 하지만, 바울은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기 위해 무엇이 일어나야 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는 그가 이 주제를 포괄적으로 풀어낸 뒤에 8장에서 말합니다. 그 뒤에 그는 성령을 통해 살아가는 능력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여기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반드시 산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기는 삶에 관해 여기서 이미 모든 것이 밝혀졌다면, 7장과 8장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2000년 전에 내 바깥에서 만들어진 법적 사실이라는 것은, 내 실제 삶에서 아직 죄가 일어난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집니다. 법적으로라는 말은 내가 죄 때문에 더 이상 고발당할 수 없고,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법적 상태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 놓으신 의인의 신분(5:19)이며, 그분께는 이것이 내가 차지하고 있는 유일하게 유효한 신분입니다. 다른 신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나는 어떤 때는 의인이고 다른 때는 죄인이거나, 또는 동시에 둘 다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모순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모순됩니다.

이미 사용한 비유가 이해를 돕습니다. 1865년 12월 18일 미국에서 노예제 폐지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은 모든 노예에게 해당되었습니다. 이날부터 모든 노예는 법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이 이 법에 서명하는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이 일은 그들이 아무것도 보태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일어났지만, 그래도 완전히 유효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것을 들고, 자기 것으로 주장하고, 주인을 떠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17. John A. Witmer, *The Bible Knowledge Bible Commentary*, Walvoord & Zuck (편), 463쪽, Victor Books, 1988.

4.8 8-9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생명을 나누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믿노라,
우리가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을.
이는 우리가 얹이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사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죽음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두 번째로 결론을 이끌어 냅니다. 4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결과는, 우리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확인합니다.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8절에서는 다시 부활이 다루어지는데, 이번에는 장차 있을 몸의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분으로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부활 생명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과 연합된 우리는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물려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물려받았습니다. 죽음의 영역, 곧 죽음의 나라(사람들이 아직 “아담 안에” 있는 그 영역)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떠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셨을 때 죽음이 그분을 지배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스스로 원하여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생명 자체를 죽음에 내주셔야 했습니다. 그때 죽음은 잠시 동안 그분을 이긴 승리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은 그 유일하시고 온전하신 분을 새 생명으로 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 해당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죽음의 지배는 깨어졌습니다. 몇 절 뒤에 나오듯이 우리가 아직 죽을 몸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승리에는 우리의 부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썩어 버린 몸들이 죽음의 지배에서 건져 내어질 때입니다.

4.9 10절: 죄에 대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고 싶다면,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그분께 무엇을 뜻했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죄를 위한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에게 내려진 정죄 판결을 친히 건디심으로써 말입니다.

이렇게 그분은 죽음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죄의 빚을 갚으셨고, 동시에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뒤로하셨습니다. 새로운 부활 생명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오직 그분께만 바쳐진 생명입니다.

죄의 문제를 두 번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히브리서가 분명히 확인해 주듯이, 죄를 위한 두 번째 제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라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가! 그분은 친히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을 죄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이전의 모든 일에서처럼 거룩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지워진 모든 것, 곧 은혜로 그 책임을 떠맡으신 모든 것 때문에 정당하게 정죄받도록 자신을 내어 주셨다. 그분은 아무것에서도 자신을 아끼지 않으셨다. 하나님도 아무것에서도 그분을 아끼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분을 버리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와 그 모든 결과와 자신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셨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자유롭게 풀려나게 하려 하심이였다.”¹⁸

이처럼 단 한 번 드러진 제물과 거기서 나오는 분명한 신분, 곧 이미 이루어진, 편을 바꾸는 일은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확신할 수 있고 또 확신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인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받은 그 자유를 누리느냐가 결정됩니다.

4.10 11절: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기다

이와 같이 너희도

여길지어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바울이 방금 펼쳐 보인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믿을 만하고 우리에게 유효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긴다”는 말은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계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회계에서 온 말입니다. 결산은 끝났고 장부는 마감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일이 100 % 내 개인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생명은 나의 생명입니다.

이 구절은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죄와 싸우는 열쇠가 **아닙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죽었다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전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유혹에 반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유혹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바울이 8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 사실을 날마다 실천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실천에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8. William Kelly, *Notes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88쪽.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거나 죽은 척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죽었다고, 이미 죽은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로써 내 삶에 대한 죄의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옛 삶이 십자가에서 끝났고 그로써 자기 삶에서 죄의 지배가 깨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구원의 기초 위에서 나는 똑같이 믿음으로 또 하나의 구원의 사실을 내 것으로 붙잡습니다. 이제 나에게 새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해방되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워치만 니(Watchman Nee)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깨닫는 것 - 여기는 것 -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순서다.”¹⁹

4.11 12절: 몸에 대한 죄의 지배가 깨어지다

그러므로 죄가 왕 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죽을 몸에서,

그 욕심에 순종하지 않도록.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골고다의 목표입니다. 죄의 독재는 깨어졌습니다. 그 조종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은밀하든, 가장 잔인한 힘으로 휘두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는 내 삶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에 근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은 (사람의 비물질적인 부분, 곧 속사람과 마찬가지로) 죄의 결과 아래 놓여 있습니다. 몸은 죄가 손과 발을 얻는 도구입니다. 죄 자체는 아직 내 안에 있습니다(곧 내 육신 안에; 7:18 참조). 그러나 죄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습니다(6:6b, 14). 몸은 죄의 영향을 너무나 깊이 받고 있어서, 늘 채워지기를 요구하는 죄들과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갑니다.

19. Watchman Nee, *Das normale Christenleben*, 58쪽.

바울은 구원의 법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 측면은 언제나, 그리고 모든 신자에게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문제로 머물지 않습니다. 구원의 법적인 측면은 내 일상의 삶이 더 이상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기초가 됩니다.

4.12 13절: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다

또한 너희 지체를 죄에 내주어

불의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로서 드리고,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의의 도구가 되게 하라.

이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근거하라는 것 말고는 아무런 요구도 없었습니다(6:11). 이제 그로부터 실천이 따라 나옵니다. 몸의 지체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을 내어 드린다는 뜻입니다. 내 손과 발, 내 눈과 귀, 그리고 내 입(한마디로 모든 감각과 능력을 지닌 나의 인간적 존재 전체)이 이제 그 본래의 목적에 걸맞게 쓰여야 합니다. “이미 우리인 그 모습이 되어 가는 것”²⁰ -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의 비밀이자 긴장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자의 이 생명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지, 더 이상 불의에 바쳐진 것이 아닙니다.

4.13 14절: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20. F. 고데(F. Godet).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상태는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는 앞을 바라보며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생명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설명했듯이 율법은 죄가 넘치게 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합니다. 율법은 정당하게 요구하지만, 순종할 힘은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은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데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삶의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주고, 율법은 요구합니다. 율법과 친해지는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7장에 묘사된 것, 곧 무능과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 그 받아 주심 안에서,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삽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8장에서 다루어지는 사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내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면, 나는 마침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²¹

바울은 여기서 율법을 짧게만 언급하지만, 이 한 문장으로 가장 결정적인 것을 모두 말하고 7장에서 이를 더 자세히 풀어 갑니다. 아마도 이 장을 듣거나 읽은 사람들은 곧바로 율법을, 죄의 지배를 깨뜨릴 수 있는 알맞은 수단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4.14 요약

아담 편에서 그리스도 편으로 옮겨 가는 일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의 과거, 곧 나의 옛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정죄받고 심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것을 떠맡으셨습니다. 이제 그분 안에서 나의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죄가 내 삶에 대해 내세우던 권리는 십자가에서 소멸되었고, 나에 대한 죄의 권세는 거기서 깨어졌습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로 거룩하거나 죄 없는 삶을 사느냐가 아닙니다. 신자에게는 몸 안에 있는 동안 그

21. 한스요아힘 에크슈타인(Hans-Joachim Eckstein).

안에 남아 있는 죄가 아직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타깝게도 죄 많은 육신에 의해 각인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 쓰는 것과 정면으로 모순되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롬 6:1-14) 다루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가는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전환을 설명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렸거나, 스스로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려 하거나 죄에 대하여 차차 죽어 가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을 그 절대적인 의미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의 실제적이고 신분에 따른 위치를 묘사하는 이 본문이 그들이 큰 모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려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도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역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죽음은 우리가 없어져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든 육체적인 죽음이든) 함께 속해 있던 것들이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옛 사람이 죽음으로써 죄는 나에게서 분리되고 연결이 끊어졌으며, 그리하여 죄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4.15 골고다의 십자가와 죄

그것은 우리를 위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1-5:11: 속죄	로마서 5:12-8:13: 해방
죄들의 문제	죄의 문제
죄 된 행위들과 죄책의 문제	죄들의 근원인 죄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그리고 본래부터 우리의 옛 사람을 각인하던 우리의 죄 된 본질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4.16 로마서 6:15-23: 은혜 아래 사는 해방된 사람들

이 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해 설명한 것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면서) 사람은 한 주인만 섬길 수 있고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4.17 구원의 직설법과 구원의 명령법

복잡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한 동전의 양면에 관한 것입니다. “직설법”과 “명령법”은 문법에서 온 두 용어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용어들을 “구원”이라는 말과 함께 써서 “구원의 두 측면 또는 두 면”이 무엇인지를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직설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 곧 객관적인 구원의 실재를 보여 줍니다. 이 측면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실제로 주시고 유효하게 하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구원이 포함됩니다.

구원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이 나옵니다. 구원은 새로움 가운데 살고 행동할 의무를 지웁니다. 이것이 구원의 명령법, 곧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구원 안에서 받은 은혜는 우리를 가르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딤후 2:12 참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도덕적 의무를 함께 받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명령법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설법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가리키며, 따라서 구원의 실재를 묘사합니다. 구원의 명령법은 거룩한 삶을 향한 명령이자 격려입니다. 둘 다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이 두 측면을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의 직설법을 묘사하고, 11절부터는 구원의 명령법을 다룹니다.

구원의 명령법은 구원을 얻어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에서 나와 살라고 요구합니다. 구원의 명령법이 시험받는 자리는 은혜의 다스림 아래이며, 그곳에는 용서와 너그러운 회복이 있습니다. 구원은 강한 사람들을 골라내고 해내지 못할 사람들을 걸러 내려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의 명령법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며, 믿음이 실패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잃어버릴 수 없지만, 그에 맞게 살라는 권면과 경고는 이 사실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를 “궤도 위에”, 곧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믿음의 길 위에 붙들어 두려는 것입니다.

개관²²

구원의 사실 - 구원의 직설법 선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구원을 내 것으로 삼기 - 구원의 명령법 과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러한 존재인 것 을 ...	...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롬 6:2	자신을 죄에 내주지 마십시오! 롬 6:13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골 3:3	여러분의 지체를 죽이십시오! 골 3:5; 롬 8:13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 롬 5:1	... 그리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딤후 6:11
우리는 더 이상 욕신이 있지 않습니다. 롬 8:9	더 이상 욕신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롬 8:12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물로 말미암아 단번에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히 10:10	거룩함을 따르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히 12:14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엡 4:1; 롬 8:28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엡 4:1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	...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 곧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골 3:10, 11; 엡 4:24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롬 13:14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엡 1:7	우리는 서로 용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엡 4:3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롬 5:5	사랑 가운데 행하십시오! 엡 5:1, 2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롬 5:1; 빌 4:7	화평을 구하며 따르십시오! 뱀전 3:11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롬 8:2; 갈 5:1	그러므로 자유 안에 머물러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갈 5:1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고전 15:57	우리가 싸울 때 승리를 내 것으로 삼습니다. 딤후 2:5 등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엡 5:8a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십시오. 또는: 여러분의 빛을 비추십시오! 엡 5:8b; 마 5:16
우리는 새로운 구원의 질서를 경험하고 ...	... 새로운 창조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골 3:4; 갈 2:20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기다립니다. 골 3:4

22. 스위스 하이멘하우젠(Heimenhausen)의 페터 H. 울만(Peter H. Uhlmann)의 자료를 따랐습니다. 허락을 받아 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속을 받았고 ... 엡 1:7	...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롬 8:23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로 입양되었고 ... 롬 8:15; 요일 3:2	... 그것이 드러나기를 기다립니다. 롬 8:23; 요일 3:2
새 사람은 그를 지으신 분,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엡 4:24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고후 3:18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요 3:36	... 그런데도: 영생을 붙잡으십시오! 딤후 6:12
우리는 교회로서 한 몸입니다. 엡 4:4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십시오. 엡 4:3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합니다 ... 골 2:10	...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빌 3:12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 100 %!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 100 %!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고 또 행하게 하시느니라.” 빌립보서 2:12

이미	아직 아니
존재 - 믿음의 신분	되어 감 - 믿음의 실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행함

우리는 이미 온전히 구원받았습니다 -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측면은 모두 이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너인 그 모습이 되어라!**

“모든 배터리에는 음극과 양극이 있다. 이 대립이 있어야 전압이 생긴다. 그래야만 전류가 흐르고 불이 켜진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의 사실과 구원을 내 것으로 삼는 일이라는 두 ‘극’을 의식하고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때에만 살아 있는 (그리고 자라 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긴장이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역동성을 선물한다.”²³

4.18 15절: 은혜의 목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23. 스위스 하이멘하우젠(Heimenhausen)의 페터 울만(Peter Uhlmann)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허락을 받아 실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그럴 수 없느니라!

또다시 누군가가 바울이 가르친 것에서 잘못된 결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은혜 아래 있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를 마음껏 이용하여 방종하게 살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다시 터무니없는 결론일 것입니다. 그런 결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4.19 16절: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는 너희가 순종하는 그 자의 종이 되느니라.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은혜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죄를 지어도 되는 권리로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죄에 내주고 죄를 다시 자기 주인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갈등 없이 두 주인 모두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황금의 중간 길은 없습니다. 오직 두 가지 매인 상태가 있을 뿐입니다. 죄가 결정하는 삶이거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행하는 삶입니다.

4.20 17절: 마음으로 순종하다 –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도다.

교훈의 본에,

너희가 넘겨진 그 본에!

바울은 로마 사람들을 시험하지 않으며, 그들의 구원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이제 누구의 종인지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각인한 그들의 종살이가 과거의 일이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확인합니다. 그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로마서 5:8에서 그는 이미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그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살이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 “옮겨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음의 영역에서 옮기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영역은 이 장들에서 “교훈의 본”을 통해 인상 깊게 묘사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르침은 기초가 됩니다. 그 기초 위에서 우리는 먼저 새 생명의 법칙들을 이해해야 하고, 그래야 그에 맞게 살 수도 있습니다. 가르침은 우리의 경험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앞서 정해 줍니다. 우리는 가르침에 비추어 우리의 경험을 재고 점검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를 바로잡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교훈의 본”이라는 말은, 이 가르침이 추상적인 조항들로 가득한 일종의 법전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삶의 지혜”이며, 그로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교훈의 본 …에 넘겨졌다”고 말합니다. 곧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루게 하려는 목적에서입니다.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을 위해 만든 학문적 가르침과 이론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어떤 배경에서 건져 내셨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가르침은 삶과 맞닿아 있고 삶에 꼭 필요합니다. 결코 늘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 이 장들은 신학자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관련된 실존적인 질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했느냐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 질문들에 개인적으로 답하지 않으면 여러 해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의 본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 순종은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속에서 나온 순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겉으로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참되고 지속적인 삶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순종이 온전한 확신과 기쁨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아무 가치가 없으며, 외적인 형식과 위선일 뿐입니다.

4.21 18절: 의의 종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담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옮기신 이 “하나님의 옮기심”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6장의 첫 부분에서 설명했습니다.

해방은 마치 악성 종양을 제거하듯이 죄를 “제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그림을 사용하면 바울의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종양은 레이저로 치료되었습니다. 죄는 십자가에서 심판받았고, 육신 안에서 정죄되었기 때문입니다(8:3). 그러나 동시에 죄의 몸도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곧 이 종양은 더 이상 퍼져 나갈 몸(작용할 영역)이 없습니다. 종양이 아직 있는데도 나는 더 이상 환자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 성장은 억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죽을 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죄가 여전히 내 안에(내 육신 안에, 내 육신적인 본성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본질적으로 여전히 죄인인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입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4.22 19절: 자신을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에 내어 드리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라.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내주어

부정의 종으로

또 불법의 종으로 삼아

불법에 이른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내주어 종으로 삼되

의의 종으로 삼아

거룩함에 이르라.

바울의 가르침은 너무나 “사람의 예대로” 되어 있어서 그를 오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는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배려합니다. 이 말은 연약한 영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바울이 이 가르침을 위해 보통 같으면 선택했을 표현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부족했고, 바울이 나중에 쓰듯이 성장과 새롭게 됨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부름, 곧 구원의 명령법이 나옵니다. “생명의 새로움”이 참으로 효력을 나타내도록 자신을 종으로서 의에 내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또는 “성화”라는 목표는, 우리를 성도, 곧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로 만든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 변화를 뜻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에 철저히 맞추어 살아야 할 구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4.23 20-22절: 열매 없는 삶에서 영생으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바울이 여기서 그리는 것은 참으로 흑백의 그림입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거듭나기 전에, 곧 신분이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와 아무 상관이 없었고 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둘이 섞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에게 지금 둘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이에 대해,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오직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죄는 그들의 삶에서 단지 추상적인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죄는 대가를 요구했고, 그들이 지금 부끄러워하는 행위와 일들로 이끌었습니다. 그런 삶은 죽음으로 이끕니다. 거기에는 다음 절에 묘사된 길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죄와 그 권세에서 해방된 것, 그리고 이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자유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을 포함합니다. 이 새 신분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놓고, 그 사람의 삶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고, 영생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음으로써 얻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 절이 보여 주듯이, 이 생명은 하나님의 구원에 확고하게 속한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의 생명, 곧 우리가 미래에 이르게 될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의 끝에는 마침표가 아니라 쌍점이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방해받지 않는 사귄 속에서 누릴, 헤아릴 수 없이 영광스러운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은 썩지 않음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 특히 사도 요한에게서 우리는 이 생명이 “길이”나 “양”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질”을 포함한다는 것도 배웁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목표는 영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으며,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4.24 23절: 영원한 정죄 대신 영생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6장의 내용만이 아니라 복음 전체를 한 문장에 압축합니다. 첫 사람은 죄를 “사들였습니다”. 그 값을 그는 치려야 합니다. 거꾸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선하지 않고 악했던 일에 대한 품삯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죽음은 반품하거나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삯이나 품삯은 자기가 일해서 번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와 다릅니다. 그분에게서는 은사, 곧 받을 자격 없이 받는 선물이 옵니다. 죽음에 대한 그분의 대답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의 경우처럼 단순히 죽음을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뒤 언젠가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부활하신 분의 생명이며, 죽음의 영향권 저편에, 죽음이 결코 닿을 수 없을 만큼 멀리 있는 부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생명이 사람이 되신 “그 아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요일 5:11-13).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 우리의 개인적인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5. 로마서에 나타난 율법

율법이라는 말은 로마서에 72번 나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을 모두 119번 사용합니다. 각각의 문맥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이 언제나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은 로마서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 개관은 여러 가지 의미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용어	의미	성경 구절
율법(관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율법 아래, 하나님의 뜻, 진리의 구현, 율법의 규례, 계명,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의의 법	일반적으로는 언제나 모세의 율법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도덕적 부분을 가리키며, 제사 규정, 곧 의식법은 거의 또는 전혀 가리키지 않습니다. 율법의 이 부분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졌습니다.	2:12, 13, 14, 17, 18, 20, 23, 25 3:19, 20, 21, 31 4:13, 14, 15, 16 5:13, 20 6:14, 15 7:1, 4, 5, 6, 7, 8, 9, 10, 11, 12, 13, 14, 21, 22, 25 9:4, 31; 8:3, 4, 7 10:4, 5; 13:8, 10
“기록된 것”(다른 번역: 낡은 문자로, 곧 기록된 [율법]으로)	기록된 율법, 두 돌판, 또한 모세 오경	2:27, 29 7:6
믿음의 법	행위와 행위로 얻는 의와 대조되는, 믿음과 신뢰의 원리	3:27, 28
스스로 자기에게 율법이 됨;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양심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과 요구(사랑; 13:10)에 상응하는 율법의 도덕적 부분입니다. 이 법은 모세의 계명을 알지 못하는 몇몇 이방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본성으로 사랑의 법에 순종할 때마다 그는 이 법을 행하는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거듭 이 법을 거슬러 죄를 짓습니다.	2:14, 15
남편의 법	남편과 관련된 법(곧 아내를 남편에게 매는 모세의 율법)	7:2, 3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을 섬기려는 새 생명의 작용이자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새 생명의 자연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새 생명 안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7:23
죄와 사망의 법	죄가 법칙처럼 사람을 지배하고, 죄가 빠져나갈 길 없이 죽음으로 이끈다는, 깨뜨릴 수 없는 원리	7:23 8:2

5. 로마서에 나타난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	죽음을 이기신 분,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원리, 힘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이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강합니다. 비유: 중력이라는 자연법칙은 다른 법칙, 곧 공기역학의 법칙으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8:2
----------------------	--	------------

6. 로마서 7장: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다

5장과 6장의 주제 전개에서는 점점 고조되는 흐름이 느껴지며, 이 흐름은 7장 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7장의 둘째 부분에서 우리는 사고의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두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7장은 삽입된 부분입니다.²⁴ 여기서 바울은 율법에 대한 우리의 관계, 율법의 작용과 그 목표를 다룹니다. 모세의 율법, 곧 토라를 그는 로마서 6:14-15에서 이미 두 번 언급했는데, 놀라운 결과와 함께였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인(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의 삶에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아래 있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그는 파급력이 큰 근본적인 사실을 확정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이것이 어쩌면 납득할 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어땠을까요? 그에게 이것은 도발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런 반응을 예상하면서 여기에 물음표를 남겨 두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한 장 전체에 걸쳐, 곧 하나의 긴 괄호 문장 안에서 이 주제를 다룹니다.²⁵

만일 로마서 6:23 바로 다음에 8:1이 이어진다면, 곧 7장이 없다면, 우리는(이방 민족 출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마 아무것도 아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의 가르침은 이 주제의 전체 맥락에서 없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의 큰 줄기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열매 없는 삶에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고 더 이상 죄에 굴복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셨으며, 나는 오늘 어떻게

실제로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6장에서 이미 말했듯이, 그러기 위해 정말 율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쨌든

24. 저는 7장 전체를 8:1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괄호 문장으로 봅니다. 1-6절은 주제상 6장에 속하지 않고, 이 괄호 문장의 서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25. 덧붙여 말하면, 바울은 유대인을 배려하여 9-11장에서도 같은 일을 합니다. 그는 한편으로 복음이 왜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언약 백성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미래에 성취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 아닌가?

6.1 로마서 7장의 의미와 위치

로마서의 이 장은 서로 엇갈리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가장 뜨거운 질문은 이 장이 사람의 어떤 상태를 묘사하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상태
- 비정상적이고 원치 않는 예외 상태
-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상태
- 성령을 받지 않은, 거듭난 사람의 상태.

이 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실제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존적인 주제입니다. 많은 것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정말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뿐입니까? 7장에서 선을 행하려는 시도는 대개 시도로만 끝날 것이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하늘에 가서야 있다고 주장하는 현실주의자의 말이 옳을까요? 그렇다면 로마서 7장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6.2 성령과 육신의 싸움인가?

7장은 갈라디아서 5:16-25에 묘사된 것처럼 육신과 성령이 서로 맞서 일어나 씨름하는 그리스도인의 끊임없는 갈등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얻는 승리가 다루어지는데, 로마서 7장에서는 그런 승리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 묘사된 경험에서는 좌절만 보입니다. 이 사람은 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오직 자기 안에서만 힘을 찾습니다. 승리는 사실 로마서 6장에서 이미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7장이 묘사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면, 그것이 무슨 승리이겠습니까? 로마서 7장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율법을 자기 삶의 규칙으로 삼고 자기 힘으로 그것을 지키려 애쓰는 그리스도인의 딱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는 6:14-15가 말하는 것, 곧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해낼 수 없다는 쓰라린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그를 절망의 벼랑 끝으로 몰아잡니다(“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24절).

6.3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가?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우리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²⁶이라고 말했습니다. 루터에 따르면 바로 로마서 7장에서 죄인 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5장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전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5:8; 5:19).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입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신분상 아직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장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곧 그럼에도 여전히 성도로 남아 있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새 생명은 모세의 율법이나 다른 어떤 법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옛 사람과 관계가 있지, 새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조만간 여기 묘사된 것과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 말하면, 이것은 자기 경험에서 한때 로마서 7장을 벗어나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간 사람들에게도 해당합니다. 율법주의적이 되어 율법을 그리스도인의 규범으로 삼을 때면 언제든지 “재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은 율법으로부터의 본래적인 해방을 알면서도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의 경험도 묘사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로마서 8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의

26. 루터의 명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simul justus et peccator). “보라, 내가 위에서 말한 그대로다. ‘성도들은 의롭다는 것과 동시에 죄인이다. 그들이 의로운 것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을 덮고 그들에게 돌려진다. 그러나 그들이 죄인인 것은 율법을 이루지 못하고 죄스러운 욕심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은 의사의 돌봄을 받고 있는 환자와 같다.’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병든 환자이지만, 시작으로는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는 건강한 사람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건강하게 된 사람, 곧 건강해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Römerbriefvorlesung* 1515/16(로마서 강의 1515/16년).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결과가 이것이라면 쓰라린 실망일 것입니다.

6.4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7:14부터 나오는 현재형은 (7:7-11의 과거형과 달리) 여기 나오는 사람과 그의 경험의 그리스도인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5:12부터 6장 끝까지(또는 7:6까지) 두 개의 큰 줄기가 묘사되는데, 바울은 이 줄기를 중단했다가 8장에서 다시 이어 갑니다. 그 사이(곧 7장)에서는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도 종교적일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할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가 속속들이 악하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의 이 사람은 바로 그런 자기 인식에 이릅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은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는 깨달음은 하나님의 영이 비추어 주셔야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7:14 이하) 다루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무능한 이유를 그가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6절에서 한 번 언급한 뒤에야(“영의 새로운 것으로”) 8장에 가서 비로소 성령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그러나 7:7-25에서 성령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바울이 (8장을 준비하면서) 먼저 율법과의 관계와 육신의 무력함을 보여 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도록 돕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로마서 7장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다룬다면, 이 장의 교훈은 결국 이미 펼쳐 보인 가르침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이 - 종교적이든 아니든 -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이 편지의 첫 장들에서 자세히 다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그가 여기서 묘사하는 것은 육신의 본질과, (거듭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의 무능입니다. 그는 바로

구속받은 사람이, 그 뒤에도 여전히 율법의 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면 7:14-25의 이 딜레마를 겪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합니다. 그것도 그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하는 동안 내내 그렇습니다.

6.5 로마서 7장: 꼭 거처야 하는 경험인가?

로마서 7장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실제적인 성화의 정상적이고 또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한 사람이 회심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 나면 얼마 뒤에 로마서 7장의 경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의 권세를 느끼고 그것을 당해 낼 수 없습니다. 이 절망은 그가 로마서 8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야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는 승리의 힘이 자기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일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신앙생활의 일종의 필수 과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장은 먼저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 해당하며, 그들은 대개 유대인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유대인(곧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대상입니다. 이방인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았습다.

더 나아가, 로마서 6장(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과 7:1-6(“율법에 대하여 죽었다”)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로마서 7장의 비참함에 빠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8장에 가서야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7장도 잘 알지 못한다면, 그는 아마 거기 묘사된 문제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5장부터 8장까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상적인 과정이나 진보를 끌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7장을 그렇게 쉽게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흔히 거기 묘사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해당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며,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율법을 자기 삶의 규칙으로 삼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옛 아담의 본성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신분에 관한 한, 유대인과 이방인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묘사된 경험을 겪는다면, 그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경험일 수도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로마서 7장의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직도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의 경험”을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8장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살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어야 합니다(갈 5:16-26; 고전 3:1-3 참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해 두신 삶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운 “로마서 7장의 경험”을 했을까요? 회심한 뒤에 죄가 얼마나 강한 권세인지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맞서 싸우려 했지만, 잘못된 무기를 들고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쓴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고, 동시에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될 모든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장이 있다는 것에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장 덕분에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이 어려운 시기(그런 시기가 있었다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곤경 속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빠져나갈 길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6.6 로마서 7장의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 묘사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두고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1인칭으로 말하는 사도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일까요? 그렇다고 볼 근거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근거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흥미롭지만, 여기서는 더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저는 바울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알고 경험한 것을 하나의 본보기로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바울은 스스로 “나”의 역할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갈 2:18; 고전 10:30도 참조).²⁷

27. 이에 대해 헬라이어 문법을 참조한 M. 아르헬거(M. Arhelger)의 말을 인용합니다.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을 한 개인의 예를 들어, 말하자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여 주기 위해 일상 언어는 1인칭과 2인칭 단수를 선택한다.” (F. Blass, A. Debrunner, F. Rehkop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Göttingen 1979, 231쪽, § 281에 대하여).

6.7 로마서 7:1-6: 율법에 대하여 죽다

처음 여섯 절은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원칙적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6장에서 죄와 관련하여 그랬듯이, 여기에서도 먼저 **법적인** 측면이 묘사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은 마치 우리가 실제로 죽은 것처럼 우리에게 돌려집니다. 여기서는 그 결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6.7.1 1절: 율법은 살아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는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바울은 여기서 정말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면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설명하는데 쓰이는 아주 단순한 논리를 끌어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 아니 모든 법은 순종이나 불순종의 형태로 그 법에 반응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죽은 사람은 그 어떤 법과도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6.7.2 2-3절: 율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남편 있는 여인은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불리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한 가지 예가 이 법적 상황을 더 깊이 설명하고 또 다른 측면을 덧붙입니다. 누군가가 율법에서 벗어나려 한다면(그것은 죽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는 비유적인 의미에서 간음을 저지르는 셈입니다. 죽음 말고는 율법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결혼법의 예입니다. 이 결혼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듯이 남편과 아내를 법적으로 평생 떼어 놓을 수 없게 묶었습니다. 결혼법은 배우자 한 사람이 죽으면, 여기서는 남편이 죽으면, 그 부부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남편이 아직 살아 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한다면, 그녀는 간음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처지도 이와 똑같습니다. 죽음 말고는 풀려남도 해방도 없습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혼인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아닌 다른 길로 율법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그는 더욱더 범법자가 될 것이며 비유적인 의미에서 간음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남편은 율법을 가리키고, 아내는 바울이 여기서 말을 건네는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6.7.3 4절: 우리가 이제 속한 분 – 그리스도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죽음으로만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으므로, 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제 바울은 이미 6장에서 죄와 관련하여 묘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율법에 대한 관계에 적용합니다.²⁸

이 그림의 등장인물들은 역할이 바뀌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신자는 아내에 비유됩니다. 남편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율법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죄도 아닙니다. 6장 참조) 우리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다른 분이 떠맡으셨습니다. 이 그림에 머물러 말하자면, 새 남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였다”는 말은 그분의 처형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이 자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할 때 뜻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갈 2:19-20). 율법을 어긴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바울은 한때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데 따르는 이 법적

28. 갈라디아서 6:14에는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것의 세 번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결과를 자기 위에 짊어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죽었다는 데에는 동시에 율법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출구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바 된 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몸을 언급하는 것은, 그분의 처형과 십자가에서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공포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끔찍한 죽음이었고, 그 죽음 안에서 우리의 옛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기서도 하나의 바깥이 이야기됩니다. 율법과의 연결이 풀리고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여기서는 혼인 언약에까지 비유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한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다. 결혼하는 여인은 남편의 이름과 지위를 얻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6.7.4 5절: 율법은 의가 아니라 죄들을 부추긴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회심 이전의 우리의 과거와 관련하여 새로운 개념을 도입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있었습니다(8:8-9 참조). 이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 하나의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계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죄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에” 있을 때 “죄의 정욕이 역사하였습니다”. 이 육신은 죄와 그 정욕이 속속들이 스며든 인간 존재를 묘사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존재**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이 상태는 오직 죄 많은 육신 안에서만 삶의 영역을 가지며, 죄 말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서는 새로 태어나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6). 이 대목에서 거듭남이 주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같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육신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죄를 “넘치게” 했습니다(5:20). 율법은 죄를 드러냈을 뿐 아니라 죄를 부추겼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율법 아래 둘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밝혀 줍니다. 이 장의 뒷부분에서 바로 이 경험이 묘사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6.7.5 6절: 율법을 넘어선 새로운 섬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옮겨졌으니), 이는 우리가
엿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지니라.**

율법은 아무도 풀어 주거나 무죄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언제나 (정당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곧 우리의 옛 사람)가 죽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새로운 혼인 관계”를 맺을 길이 열렸습니다.

“문자”(직역: 기록된 것)는 순종을 요구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데 필요한 힘은 주지 않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건너편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작용과 능력과 말씀하심에 대해서는 바울이 나중에 쓸 것입니다. 6절에서 이 장에서 유일하게 성령이 언급되는데, 8장과는 아주 다릅니다.

6장에서 **생명의 새로움**이 다루어지듯이, 여기서는 **영의 새로운 것**이 다루어집니다(다른 번역: “새로운 것, [곧] 영”).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6.8 로마서 7:7-14: 완전한 율법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졌으므로(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다른 분, 곧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곧바로 8:1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이 이어집니까? 율법에 대한 변호가 이어집니다. 이 변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것이지만, 신자와 율법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거나(7:1-6 참조), 그래도 율법의 도움으로 목표에

이르려고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이제 그의 경험이 묘사됩니다.

바울이 방금 사용한 결혼의 예를 이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말하자면 간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는 새 남편, 곧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서도 율법과의 관계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 셈입니다(갈 2:18).

율법은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규칙이 아닙니다(또는 삶의 터전이 아닙니다. 물고기에게 땅이 삶의 터전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 달리 될 수도 없는 일이지만 - 하나님의 율법의 도덕적 계명들을 자연스럽게 이룬다 하더라도(8:4)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삶의 과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세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삶의 내용과 삶의 규칙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의 영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과 “영의 새로운 것”은 율법의 특징이었던 금지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마음속에서 형상을 이루시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 드러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명이 아니라 한 인격입니다. 그분이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결코 법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우리는 종처럼, 곧 주인에게 매인 종처럼 그분을 섬깁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정당한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따르며, 이 계명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룹니다(갈 6:2; 고전 9:21 참조). 우리는 법에 따라 그리스도께 매여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율법이 (바로 대부분이 금지 조항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의인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법 없는 자들을 위해 세워진 것이라고 말합니다(딤후 1:9).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6.8.1 7절: 죄를 깨닫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더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²⁹

이 질문은 그야말로 저절로 떠오릅니다! 율법이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말고는 그 무엇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면, 율법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다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원인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배웠고, 동시에 이 율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 바울은 이제 이 율법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드러냈습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면 무엇이 죄, 곧 범법인지를 정확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로써 무엇이 죄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대인이지만, 결국 이 율법과 접촉하게 된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바울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본보기로 끄집어내어 자기 생각을 이어 갑니다. 무엇인가를 탐내지 말라는 금지를 어기는 것은 아마 가장 널리 퍼진 죄일 것입니다. 모든 듣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자기 삶에서 알고 있는 숨은 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아무것도 탐내서는 안 됩니다. 이 죄는 먼저 내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며, 반드시 그에 맞는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장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큰 죄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는 먼저 속에서 강하게 느껴지며, 행위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이런 의미에서도 따르도록 합시다. 곧 잃어버린 사람들이 죄를 깨닫도록 율법, 곧 하나님의 기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그들은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29. 출애굽기 20:17; 신명기 5:21 참조.

6.8.2 8절: 율법은 죄를 부추긴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계명이 사람을 만나면, 의도했던 반응인 순종이 곧바로 뒤따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죄는 반항하는 권세로 정체를 드러냅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회로 삼아, 율법이 금하는 바로 그 일을 합니다. 죄는 잠자는 개처럼 깨어날 뿐만이 아닙니다. 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러 반역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한 가지 대상만 향하지 않습니다. 탐심은 탐낼 만한 모든 것을 노립니다. 탐심은 그 점에서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려 하는 강한 자석과 같습니다.

5장에서 이미 율법이 없을 때에도(그리고 율법과 상관없이) 죄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다만 죄가 죄로서,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리로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죄는 율법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아무도 죄 때문에 고발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 죄가 죽은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이 없었다면 죄는 영원히 죽은 채로 있지 않았을까요? 율법은 죄를 넘치게 하려고 **결들여** 들어왔습니다(5:20 참조).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을 덮친 죄라는 병은 율법으로 말하자면 고쳐질 수 없었고, 단지 병으로 진단되었을 뿐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은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엄한 선생”(갈 3:24; ER, 독일어 성경 번역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갈 3:23-26).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전도할 때 율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6.8.3 9-11절: 율법과의 만남은 죽음으로 이끈다

전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주어진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바울은 본보기로(곧 반드시 그가 직접 겪은 일로서가 아니라 - 바리새인이었던 그는 아마 한 번도 “율법 없이” 살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일을 재현합니다. “... 계명이 이르매”.

사람은 율법이 없으면 죄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죄를 죄로 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율법이 주어지면 죄들이 그에게 점점 더 드러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가 살아났습니다”. 게다가 전체적으로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부추김을 받고, 죄는 본디 율법을 거슬러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살아나는데 신자는 그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는 마치 죽어 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는 대략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하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가망 없이 그는 율법의 판결을 자기에게 받아들이고 “죽습니다”. 이 죽음은 죄와 율법에서 해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닙니다(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 앞에서의 모든 무능과 연약함을 한데 모은 죽음입니다.

무능 말고도, 율법으로 말미암은 죽음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는 죽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얼마나 반역적으로 반응하는지만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반역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 그것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는 죽입니다.

죄는 율법을 이용한 원수입니다. 죄는 어떻게 속였습니까? 죄가 그리스도인을 속여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율법을 삶의

규칙으로 삼는 데 집중하도록 피었을까요? 이 장의 몇몇 말씀은 낙원에서의 상황을 생각나게 합니다. 거기에도 속이는 자, 곧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인 자가 있었습니다.

죽인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죄가 죽였습니다. 이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주어졌지만, 사람은 자기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만큼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이 이런 “부정적인” 빛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시편 19편과 119편만 생각해 보아도),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율법은 큰 복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특별한 기능이 강조되는데, 이 기능은 사람의 실패와 무능을 부각합니다. “부정적인” 빛이란 이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사람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우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뒤쫓아 다니며 그가 세운 교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퍼져 나가면서 비로소 옛것과 새것, 곧 모세의 율법과 복음의 은혜 사이의 이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특히 율법에 정통한 바울은 로마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들,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구원의 길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칙으로서의 모세의 율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그토록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6.8.4 12절: 그래도 율법은 선하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죄입니다. 율법은 율법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 자신이 지니신 모든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제부터 은혜 아래 있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줍니다. 그것은 율법의 질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무능입니다.

6.8.5 13절: 다시 한번 – 율법의 기능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³⁰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의 죽음을 뜻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가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는 선한 계명으로 말미암아 억눌리거나 덮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납니다.

죄가 더 죄스러워질 수 있습니까? 죄를 지금보다 더 나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것은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죄를 하찮게 여길 수 있고, 자기 양심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하는 눈을 나에게 되돌려 줍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그대로 죄를 보게 하여, 나를 구주께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6.9 로마서 7:14-25: 율법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경험

6.9.1 14-15절: 선한 의지와 약한 육신

**우리가 율법은 영적인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인정하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 조명이 율법에서 사람에게로 옮겨 갑니다. 율법은 영적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 곧 본성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을 압니다.

30. 이 구절의 문구는 여러 독일어 성경 번역본(Elb와 ER도 포함)에서 이 대목이 완전한 문장에 이루지 않는데,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죄가 그렇게 한 것이니 …” (예를 들어 Schlachter, Schl 2000, Menge 참조. 모두 독일어 성경 번역본).

어두운 우물 속의 요셉처럼 홀로 버려져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모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왜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으로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고, 그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팔려” 들어간 죄의 권세와 독재를 보여 줍니다.

6.9.2 16절: 율법에 대한 동의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옳은 (훌륭한) 것을 시인하노라.

이런 처지에서 사람은 율법이 훌륭하고 영적이며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람의 깨달음은 한 걸음씩 자라 갑니다. 사람은 율법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그로써 율법을 주신 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이제 그는 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다른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6.9.3 17-21절: 내 속에 거하는 죄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은 찾지 (인정하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옳은 것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사람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5:12에서 바울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묘사합니다. 여기서 죄는 그날부터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사는 원리로 묘사됩니다. 죄는 내 주변 세상에 있는 추상적인 원리, 곧 (예를 들어 수도원에 들어가서) 피할 수 있는 원리가 아닙니다. 죄는 사람 안에, 그의 마음속에

거주권을 얻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죄 자신입니다. 여기 로마서 7장에 묘사된 사람은 그 근원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죄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자신이 자기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죄가 거하고, 그래서 그의 육신에서는 아무 “선한 것”(ER)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자기 인식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겼습니다.

선한 것이란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곧 모세의 율법이 다루어집니다. 내가 스스로 법처럼 나에게 지우는 모든 규칙도 법과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7:8-9의 관사 없는 “율법”(Gesetz)이라는 표현 참조). 이 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스스로 선택하고 옳은 규칙을 지우는 거듭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자기 힘으로 이 규칙들(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그 연관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안의 죄를 자극한다는 데 있습니다. “해야만 한다”³¹는 원리 아래 자신을 두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규칙만 바라봅니다.

6.9.4 22-23절: 두 법과 그 작용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자가 진단”은 이제 안에 거하는 죄를 깨닫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는 그저 있는 것만이 아니라, 법칙처럼 자기를 관철합니다. 악에 근원이 있듯이,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원인은 “속사람”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속사람은 죄와 맞서 있으며, 마찬가지로 “속사람”을 말하는 다른 구절들(엡 3:16; 고후 4:16)과 일치하게 신자의 새 생명을 나타냅니다. 속사람은 겉사람, 곧 몸과 대조될 뿐만이 아닙니다. “속사람”은 단순히 혼이나 영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31. H. P. 메데마(H. P. Medema), *Der Brief an die Römer*, 111쪽.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은 사람의 내면적 측면을 묘사하는 인간관에서 (인간학적으로) 먼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³² 속사람은 오히려 구원의 관점에서 (구원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은 아직 우리 몸을 사로잡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영적인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것은 아직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몸의 완성은 부활이나 변화 때에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을 찾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거듭났습니다.

속사람에게는 “마음”(헬라어 *nous*, 곧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생각입니다. 이 생각하는 마음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 안의 승리한 원수로 나타나는 죄가 더 강합니다. 죄도 “자연법칙”을 하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죄는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죄의 법(죄의 법칙)입니다. 다음 절이 말하듯이, 좌절한 사람은 이것을 느낍니다.

6.9.5 24절: 절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사람의 자가 진단은 끝에 이르고, 이 괴로운 부르짖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 몸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해결책이 죄의 문제에 대한 답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몸을 모든 악의 원인으로 여기고, 영 안에서 자유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망의 몸”은 죄의 작용 아래 있는 사람의 몸입니다. 이 죄는 그의 인간적 존재 전체에 소유권을 주장하며 퍼져 나갑니다.

사망의 몸은 6장의 죄의 몸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사람의 물리적인 몸입니다. 이 몸은 죄 때문에 죽음에 바쳐져 있습니다(롬 8:10-13). 그리스 사람들의 해결책과 다른 점은, 그리스도인은 몸을 (그것이 죽음에 바쳐져 있음에도) 긍정하고 주님께 내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32. 위르크 부헤거(Jürg Buchegger), *Der neue Mensch in Christus und seine tägliche Erneuerung*, 199쪽, 수록: *Ein Mensch – was ist das?*, Wuppertal, 2004.

최종적인 해결은 몸의 부활에 있습니다(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사람은 성령으로써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롬 8:12-13).

여기 나오는 부르짖음으로 이 사람은 단지 구속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구속자를 갈망합니다! 율법의 문자는 힘을 주지 않은 채 아무 감정 없이 요구했습니다. 구속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사랑으로 각 사람을 위해 개인적으로 자기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빌 4:13; 고후 12:9 등).

6.9.6 25절: 로마서 7장의 교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처음으로 구주의 이름이 불립니다. 이것이 신자가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견고한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처지에서 건져 낼 분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자기 주님께 대해 말하는 신자를 가리킵니다. 이제 마침내 방향과 목표가 맞습니다. 성경의 다른 어떤 장보다 로마서 7장에서는 “나”와 “나”와 또다시 “나”가 많이 나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나”와 “자아”와 율법으로 가는 길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하려고 일부러 이 예를 이렇게 골랐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기 내면의 싸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성령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절망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전처럼 닳을 자기 배 안에 던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닳을 내립니다.³³

갑작스러운 감사는 비참한 처지 속의 전환점입니다. 감사란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8장은 이 감사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 보여 줍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구원 행위는 내 죄책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죄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본성상의 나는 제거되었고 끝났습니다.

33. 윌리엄 맥도널드(William MacDonald), *Kommentar zum NT*, 제1권, 641쪽.

율법의 산인 시내산을 힘겹게 오르는 일은 끝났습니다. 골고다와 거기서 선물로 주어진,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이제 목표입니다!

7장의 결론은 신자 안에 있는 두 본성을 서로 마주 세웁니다(7:25). 그러나 이 대목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에 묘사된 것과 같은) 육신과 성령 사이의 끊임없는 날마다의 싸움이 아니라, 신자 안에 두 가지 법칙이 있다는 획기적인 깨달음이 다루어집니다. 내 안에는 두 원리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 육신으로 - 죄를 섬깁니다. 이 원리의 출처는 이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내 육신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나는 - 새롭게 된 생각하는 마음으로 -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이 출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속사람, 곧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 생명입니다.

육신은 “옛 자아”, 곧 하나님 없는 것과 이 세상에 속한 것,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아니 죄가 가지고 들어온 모든 것의 역동성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은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자 할 때 쓰는 수단입니다. 7:25에서 바울은 이 딜레마를 요약합니다. 새롭게 된 생각으로 그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칙을 섬깁니다. 이쪽이나 저쪽을 섬기는 것은 인격, 곧 “나”이며, 그것도 자기 결정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고 섬깁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능력 또는 역량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³⁴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이 능력을 사용합니다. 두 역량 가운데 하나는 언제나 활동하고 있으며, 중립적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행동(한마디로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이 능력들 가운데 하나가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내 삶에서 돌파를 이루게 됩니까?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고 어떤 길을 보여 줄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 대답을 미리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고(역사적 사실로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루십니다”(실제 경험으로서).³⁵

34. 찰스 C. 라이리(Charles C. Ryrie), *Ausgewogen statt abgehoben*, Dillenburg 1994, 43쪽. 영어 단어 “capacity”에는 “능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35. 고든 피(Gordon Fee), *Der Geist Gottes und die Gemeinde*, Metzingen, 2005, 188쪽.

7. 로마서 8:1-11: 마침내 자유!

처음 다섯 장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의 죄책과 죄에 대해 펼쳐진 논증의 사슬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3:23-25).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뒤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제 거룩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5:1에서 바울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느니라!

여기까지 읽으면 이 편지의 절정에 이르렀고, 그 이상의 절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더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다룹니다. 5:12부터는 더 이상 죄책과 속죄가 아니라 사람의 도덕적 본질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과 떼려야 뗄 수 없이 하나로 자라 버린 권세이자 원리로서의 죄가 문제입니다. 사람이 행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덕적으로 볼 때) 어떤 존재인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죄를 정당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장에서 바울은 죄의 기원과 작용을, 6장에서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설명합니다. 7장에서 바울은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그 후반부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아도 좋은 한 사람의 경험을 묘사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좋은 동기에서, 율법을 자기 삶의 규칙으로 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것을 놓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하여도 죽었습니다. 그는 시내산의 율법이 성과의 원리가 지배하는 하나의 “체계”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바로 육신의 연약함과

무능을 증명하려고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살아났고 (7:9),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 되게 되었습니다(7:13). 신자가 이 낡은 문자에 자신을 맡기면 절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죄가 그의 새롭게 된 의지보다 더 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의식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만 봅니다.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8장에 묘사된 것처럼)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실족하거나 죄를 지어서 그에게 “육신의 일”(갈 5:19)이 있을 때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죄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모든 참된 죄의 자백에는 슬픔과 뉘우침이 따릅니다. 그것은 영적 성장의 한 부분이자 전제 조건입니다.

로마서 8장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죄 선고, 그리고 영광을 향해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자녀들로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망의 몸 안에, 그리고 썩어짐에 굴복한 피조 세계 안에 있습니다.

7.1 이미 – 아직 아니

우리는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롬 8:24-25; ER, 독일어 성경 번역본).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든 우리의 칭의는 확실하지만, 오직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유하는 것이 “이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직 오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는 “아직 아니”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새 시대: 영생, 성령의 역사, 은혜, 자유, 부활, 새롭게 됨, 평화, 의, 완성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및 그분의 사역이 “이미”를 이룬다: 칭의, 성령의 선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는 땅 위의 삶 - 이미 - 아직 아니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이 “아직 아니”를 이룬다:

- 장차 올 영광 8:18
- 양자 됨, 곧 우리 몸의 구속 8:23
-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8:21
- 해방된 피조 세계 8:21

아담의 시대: 죄, 죽음, 육신, 율법, 종살이, 덧없음, 썩어짐, 허무함

이 그림은 겉보기의 이 모순과, 이 두 지점 사이에 있는 긴장을 분명히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원은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담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미래의 생명이 이미 주어졌지만, 동시에 완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이 시기에는 구원의 명령법들이 함께합니다. 그 격려와 권면과 간곡한 일깨움은 우리를 향한 것이며, 우리가 믿음의 마라톤 전체를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디게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표에 이르도록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8장의 주제입니다. 바울과 신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미 - 아직 아니**를 균형 있게 주목할 때 우리의 소망이 되살아납니다. 6-8장은 이 중심 생각을 보여 주는 두드러진 예입니다.

구원의 직설법은 **이미**, 곧 우리가 이미 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구원의 명령법은 **아직 아니**인 것, 그러나 우리가 이르게 될 것, 곧 영생의 영광과 해방된 피조 세계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행동과 결단과 인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인 그 모습이 되어 가야 합니다. 경고와 약속, 권면과 보증은 나란히 서 있으며, 결코 서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7.2 돌파

8장은 아마 이 편지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이며,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 완전히 밝혀진 뒤에, 바울은 해방된 사람들의 길이 하나님의 목표(완성)에 이르기까지 어디로, 그리고 어떤 삶의 형편을 지나 이어질지를 보여 줍니다.

“이 장은 우리를 기독교의 가장 안쪽 테두리와 심장부로 이끈다. 이 장은 지극한 복의 특별한 상태, 가장 순수하고 깨달음에 이른 기쁨을 다룬다.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든, 아주 조금이라도 이에 견줄 만한 것을 내놓을 수 없다.”³⁶

7.3 1절: 무죄 선고 – 더 이상 정죄 판결은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 판결이 없나니)³⁷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내용이 풍성한 문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이것은 심판을 향해 가는 잃어버린 세상에 울려 퍼지는 환호성입니다. 죄를 깨닫고 절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은 실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방, 평안, 확신, 안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이 자리, 곧 이 신분은 어떤 핵 대피소보다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닥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분께 닥쳐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무엇이든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정죄 판결이 문제인데, 그분이 그것을 자기 위에 짊어지지 않으셨다면 그 판결은 마땅히 우리에게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영원히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전함을 안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모든 법적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세워졌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36. C. J. 엘릭콧(C. J. Ellicott)과 W. 샌데이(W. Sanday) 편, *A Bible Commentary for Bible Students*, 233쪽.

37. 다음과 같은 번역을 뒷받침하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을 영을 따라 행하는 데 힘입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논리적 결과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흔히 신분과 상태를 부당하게 서로 멀리 떼어 놓는데, 바울이라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번역은 구원의 직설법과 구원의 명령법이 하나라는 것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데 따르는 정상적인 결과로서의 삶의 변화가 문제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근본적인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심판의 날에 있을 미래의 정죄와 영원한 정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미래에서 과거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정죄는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이 정죄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철회되거나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결코 포기하거나 부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대한, 곧 우리의 옛 사람에 대한 정죄 판결이 그리스도께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6:6; 8:3). 그 판결은 우리가 아니라 **그분께** 떨어졌습니다. 정죄에서 보호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에서 온전하셨고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죄 판결은 선고되어야 했을 뿐 아니라 집행되어야 했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삶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은 영원하신 분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입니다(롬 2:5). 그날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이 심판받을 것입니다(롬 2:16).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것입니다(롬 14:10). 그 순간이 언제 오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으므로 그 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재판 절차가 없습니다. 심판은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롬 1:18)는 우리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롬 5:9).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구원의 신분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그것이 드러날 것이며, 그때 그것은 경험하고 눈으로 보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완전한 무죄 선고를 받고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에서 보는 것으로 옮겨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넣으셨습니다(고전 1:30).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지키는 절대적인 보호이며, 동시에 부활하신 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다루는 이 주제를 위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³⁸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와와의 가장 친밀한 연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법적인(사법적인) 신분은 이제 바로 이것을 포함하며, 그가 이제 옮겨진 새로운 삶의 분위기도 똑같이 그러합니다. 이것은 그의 신분뿐 아니라 그의 삶의 칭의와 역동성도 묘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A. T. 피어슨(A. T. Pierson)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궁전으로 들어가는 큰 문의 육중한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작은 열쇠에 비유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랑하시는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새로운 신분(“그리스도 안에”)에 이르려 할 때 중요한 것은 감정도 아니고 자기 노력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신분에 이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워치만 니(Watchman Nee)가 비유했듯이, 이미 방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가려고 자꾸만 애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7.4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새로운 집”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는 이제 무엇에 참여합니까? 거기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지니신 모든 생명력에 참여하게 됩니다.

38. 신약 성경에는 이 표현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나타내는 비슷한 표현들이 190번 넘게 나옵니다.

두 법, 또는 두 법칙이 서로 마주 세워집니다. 한 힘은 죽음으로 이끌고, 다른 힘은 생명으로 이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법이 다른 법을 깨뜨렸습니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법이 나란히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가 문제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설명하듯이, 이것이 아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려면 먼저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른 분이 그를 위해 이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중력의 법칙에 비유되어 왔습니다. 새는 공기역학의 법칙으로 이 법칙을 이깁니다. 새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날아갑니다. 나는 것은 새가 이를 악물고 애쓰지 않아도 본래부터 지닌 능력입니다. 새는 그러면서 자기가 중력의 법칙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새는 자기가 창조된 목적대로 할 뿐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성령의 이 법은 그리스도인을 해방했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작용합니다. 이 자유를 선물로 주시고 살아 있게 지켜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법의 작용을 확신해도 됩니다. 그리고 새의 경우처럼 그에게도 그것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8장은 주로 성령을 다루고, 7장은 사람 자신의 “나”를 다룹니다.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작용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능력으로 성령과 부활하신 분의 생명이 작용합니다.

7.5 3절: 하나님이 골고다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같은 모양) 으로, 그리고 죄를 위하여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셨느니라 ...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고, 율법을 지키고 그에 따라 살 생명과 힘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더 낮게 하거나 새롭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육신(아담의 후손들이 지닌, 타고난 것이어서 죄스럽고 이 세상에 속한 역동성)은 무력하고 무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해방을 주는 말씀입니까!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은 특히 아직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 하고, 행해야 하고 해야만 한다는 강박 아래 자신을 두는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7.5.1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거나 하려는 모든 것의 최종적인 끝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천사를 보내지도, 사람을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무한한 사랑과 영원한 사명으로 자신과 하나 되어 계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죄 있는 육신” 안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과 “같은 모양”으로 보내지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죄는 없으셨지만, 죄를 **위하여** 보내지셨습니다. 그분의 신적 사명은 죄를 위한 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속죄제를 가리킬 때 자주 쓰입니다. 그분은 바로 이 제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때까지의 모든 제물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 없는 삶의 매 순간마다, 자신이 죄를 위한 이 단 한 번의 제물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죄는 모든 사람 안에 있었고, 그 본질은 “육신 안의 죄”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는 오직 그분이 육신 안에(인간 존재 안에) 계셨다는 것만 해당했고,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죄를 위한 제물이 되실 수 있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필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표현은 한편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여기서 “같은 모양”은 “비슷함” 이상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의 참된 인성을 의심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표현은 그분의 인성이 모든 사람의 경우처럼 죄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7.5.2 골고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 안의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것을 위해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에게 죄에 대한 정죄 판결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된 본질을 자기 위에 지셨고(그분은 자신을 우리가 그랬던 바로 그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 자신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8:32)! 6:6에서 바울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7:4에서 그는 이것을 다른 말로 묘사합니다(“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다”).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사형 판결이 집행되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정죄와, 죄의 삯인 죽음을 모두 우리를 대신하여 떠맡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자기 사랑의 영원한 아들이신데도, 십자가에서 그분을 가장 큰 죄인처럼, 곧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위에 놓인 분처럼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그분께 가차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로 (그리고 속죄 제물로) 삼으신 바 되셨습니다(고후 5:21).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날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을 덮은 특별한 어둠이 이 비밀을 증언합니다. 아무도 그때 일어난 일의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치십니다. 그분은 몸으로는 힘이 다하셨지만,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생명을 죽음에 내주십니다. 구주께서는 지금까지 말해진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을 온 우주를 향해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정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분이 그 정죄를 자기 위에 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본성상 그러했던 것(“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 지닌 모든 특징)을 마치 자신이 그것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짊어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내가 받아 마땅한 모든 것을 그분이 내게서 가져가셨습니다. 그것은 신적인 제물이었으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과 죄로부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절대적으로 의로운, 그래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기초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채워졌습니다. 새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옛것을 심판해야 했습니다. 죄는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육신이 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기준에 따라, 그분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영광에 맞게 정죄되어야 했습니다. 그로써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영화롭게 되셨고, 그분의 요구는 온전히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보좌에 오르심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구속 사역 안에서 완전한 안식에 이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 행위의 목표가 무엇인지 주목합시다.

7.6 4절: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결국 이루어진다

…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희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이제 우리의 실제 삶, 곧 우리의 행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구원의 목표는 이제 (7장과 달리) 그리스도인을 통해 결국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로마서 7장에 대한 대답입니다! 7장을 공부하고 나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결코 넘어서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고 절대적으로 선하므로, 아무도 - 물론 예수님은 빼고 - 그것을 이룰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패배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이룹니다. 율법의 요구는 이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모세의 율법의 모든 계명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람의 문제는 의식법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의 도덕적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처지의 딜레마를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도덕적 성격의 계명)에서

확인합니다. “탐내지 말라!”(7:7; 출 20:17; 신 5:21 참조). 도덕적 계명들에서 죄가 드러납니다(약 2:8-11도 참조). 탐냄, 곧 (그 대상이 무엇이든) 부당한 욕심의 정욕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며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이 계명은 이제 신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룹니다. 그는 그렇게 탐심에 맞서고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가 의식적으로 성령의 길을 걸으면, 탐심은 그에게 점점 더 끌어당기는 힘을 잃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 곧 (땅의 기준으로)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새로운” 윤리, 곧 “영의 새로운 것”(7:6)은 옛 규칙이나 새 규칙, 혹은 법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미래의 삶을 이미 오늘 삽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게 된 대로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이 삶의 기준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갈 6:2), 곧 그리스도 안에 있고(엡 4:20-22)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만나는 진리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법과 모세의 율법은 결코 서로 모순될 수 없습니다. 같은 근원과 같은 저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의 법에서 사랑은 훨씬 더 멀리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사랑이 기준입니다.

7.6.1 모세의 율법과 그 효력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³⁹과, 그 효력이 시간적으로 제한된 모세의 율법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절대적인 규범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변하지 않는 본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원한 본성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법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39. 에른스트 G. 마이어(Ernst G. Maier), *Die biblische Lehre von den Heilszeiten*, Hünfeld, 2007, 80쪽 이하.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이라는 용어는 다른 신학 용어들(삼위일체, 옛 본성과 새 본성 등)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진리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이르는 길에 관해서도, 삶의 기준에 관해서도 모세의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결코 “법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제 법에 따라 그리스도께 매여 있으며(고전 9:21), 거기서는 적어도 모세의 율법의 도덕적 부분에 담긴 것과 같은 규칙들이 유효합니다.⁴⁰ 생명의 성령의 법(8:2)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법”(갈 6:2)과 사랑의 (새) 계명(요 13:34; 15:12 등)은 모세의 율법과 이어져 있고 어디에서도 그것과 모순되지 않지만, 훨씬 더 멀리 나아갑니다. 이제 신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유효합니다. 사랑 가운데, 곧 죽기까지 자신을 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십시오(엡 5:2)! 이것은 법 이상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여기서 말하자면 뒤에 남겨지며,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구속 사역의 계시에 비추어 볼 때 이 새로운 기준을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표현이며, 양자 됨이며, 개인적인 인도하심이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갈 6:15-16).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 원리의 계시와 적용은 구속사의 여러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세의 율법은 효력을 잃었지만, 모세의 율법에 표현된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 원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다시 발견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8-10에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새 생명의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써 우리는 모세의 율법도 이룹니다. 사랑은 율법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갈 5:14-15; 딤후 1:5-11; 마 22:34-40). 이 총합, 곧 사랑은 그리스도의 법과도 일치합니다.

그리스도는 한편으로 모세의 율법의 마침이시며, 또한 그 목표이자 성취이십니다(롬 10:4). 그분은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이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영원한 말씀(요 1:1-3)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법의 완전한 표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40.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십계명: 안식일 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아홉 (도덕적) 계명은 모두 신약 성경에서 되풀이될 뿐 아니라, 더 엄격해지거나 금지 계명에서 긍정적인 계명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제1계명: 고린도전서 8:4-6; 제2계명: 고린도전서 10:7, 14; 제3계명: 골로새서 3:8; 제5계명: 에베소서 6:2; 제6계명: 마태복음 5:22; 요한일서 3:16; 제7계명: 마태복음 5:28; 에베소서 5:25; 제8계명: 에베소서 4:28; 요한일서 3:17; 제9계명: 에베소서 4:25; 제10계명: 에베소서 5:5; 디모데전서 6:10 등.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의 완전한 계시를 담고 있으며, 그런 것으로서 구약의 율법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한 인격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 언약의 사실들이 효력을 발합니다. 율법이 마음(곧 사람의 의지와 결단의 중심)에 심어져서, 그 사람들이 속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이 법에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자신이 구현하십니다(히 8:10; 10:16; 고후 3:6, 18; 롬 31:31-34; 32:40; 겔 36:24-27).

7.7 5절: 육신을 따르는가, 영을 따르는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5:12에서 시작한 두 줄기를 이어서 계속 그려 나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사느냐 육신적으로 사느냐에 대해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근본적인 구별입니다. “육신을 따르다”는 것은 여전히 아담의 가족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위치는 결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삶과 생각과 행동은 성령이나 육신 가운데 하나에 의해 각인됩니다. 육신은 불신자를 각인하고, 성령은 신자를 각인합니다.

육신은 사람의 죄 된 본질입니다. 곧 사람이 안에 거하는 죄 때문에 자기 존재 전체와 삶의 방식에서 그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불신자는 “육신”입니다(요 3:6). 그는 육신에서 나와 살고 육신을 따라 살며,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의 것들 향해 있습니다. 그는 원한다 해도 달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육신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의 원함과 생각과 행동은 이 세상에 속하고 눈에 보이고 세속적인 것의 역동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가 거기서 자기의 새로운 기원을 이끌어 낸다는 뜻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요 3:6). 그 결과 새로운 삶의 방향과 새로운 관심, 그리고 영원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7.8 6-7절: 죽음과 생명, 원수 됨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차이가 이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추구(생각)는 죽음, 곧 덧없음과 썩어짐을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아직 육신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는 스스로 결정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에게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삶이 죽음(육체적인 죽음이자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며, 육신과 죽음 사이의 이 연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생명과 평안을 이루십니다. 이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 새 생명의 기초입니다. 평안은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 안의 삶은 이 평안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것은 신자가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손안에서 쉬게 하는 평안입니다. 바울은 그의 교훈 서신들에서 이 영적인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인간적 존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그는 아직 추상적으로 보이는 근본적인 대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죄 많은 육신의 본질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수 됨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은 율법을 거부합니다. 육신에게 하나님의 권위는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몰아내는 것이 육신의 본질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합니다. 그의 육신, 곧 새로운 구원의 신분 안에서도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옛 육신의 본성은 (그럴 자유가 주어지면) 똑같이

행동하며, 역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도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러나 다음 절이 보여 주듯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7.9 8-9절: 육신에 있는 것과 영에 있는 것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에 있다”라는 말은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본래 지니고 있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의 삶은 그가 무엇이며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에서 이것에 의해 형성되고 결정됩니다. 물이 물고기의 생활 환경이듯, 이것이 그의 생활 환경입니다. 바울은 육신에 있는 상태로는, 율법의 도움을 빌린다 해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것이 그가 “영에” 있다는 사실과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신자 안에 거하시므로, 이 영이 그를 소유하신 때부터 그는 “영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인격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신적 인격, 곧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태는 이제 “영에”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골 3:3; 살전 1:1; 살후 1:2; 요일 4:15-16; 유 1).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집”이며, 생명과 은혜와 평안과 의로 가득한 우리의 새로운 삶의 공기입니다. “영에 있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의 생각, 곧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이 영은 우리가 그 안으로 옮겨진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게, 또는 그분과 상관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새 생명의 중심이요 목표이시며, 하나님의 영은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크게 드러내는 일에 모든 것을 거십니다.

신자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그는 그분께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거짓된 안도감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라는 호소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의 소유인지를 나타내는 인장과 같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인 치심이 언급되지는 않지만(엡 1:13 참조),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곧 “그의”라는 대명사가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뜻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이 측면을 암시합니다.

7.10 10-11절: 하나님의 영과 우리 몸의 구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나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때문이니라 (또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

7.10.1 우리의 구원의 신분 – 구원의 직설법 – “이미”

-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 우리는 영에 있습니다.
-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사이에는 눈에 띄는 일치가 있습니다. 두 분은 서로 다른 인격이시지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곧 셋이면서 하나이신 신성 안에서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서 일하셨고, 지금 우리의 성화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7.10.2 사는 것과 죽는 것

죽음은 5장에서 8장까지 거듭 언급됩니다. 전면에 있는 것은 육체적 죽음이지만,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하나님의 정죄 판결의 결과)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아직 죄의 이 결과 아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내적인 면 -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 을 외적인 면, 곧 몸과 구별합니다. 몸은 죽은 것입니다(죽음에 넘겨진 것, 죽어 가는 것).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적인 면은 생명의 영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사람의 내적인 면에 작용합니다. 이 내적인 면은 (예를 들어 “혼”이나 “영” 같은 개념으로) 더 자세히 묘사되지 않고, 다만 인칭 대명사 “너희”로 표시될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이 문맥에서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영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8:2).

죄가 죽음의 원인인듯,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생명의 원인입니다. 의는 새 생명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가 생명의 칭의에 이르게 했습니다(5:18). 우리는 의인의 신분으로 옮겨졌습니다(5:19).

우리는 아직 몸 안에 있으며, 이 몸은 실질적으로 불신자의 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이 땅의 삶에서 몸에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몸이 벌써 죽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정적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몸에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로서의 사람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문제는 단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원래 창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너무 짧게 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의 처음 상태를 회복할 뿐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8:29). 우리가 그분, 곧 예수와 같아질 날이 옵니다(요일 3:2). 그날 우리는 더 이상 “흠에 속한 자”의 형상(아담의 형상)을 입지 않고, 하늘에 속한 이,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고전 15:49). 부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죄의 모든 결과를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 줄 것입니다.

7.10.3 하나님의 영과 몸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언젠가 다시 살아나게 될 근거이십니다. 이 영은 우리 몸 안에 거하시며 우리 몸을 맡아 주셨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 되었고, 몸은 성령께 속합니다(고전 6:19)! 성령은 장래에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십니다. 장래에 다시 살아날 근거는, 우리가 이 땅의 몸 안에서 사는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은 다시 이 전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적 죽음이 찾아온 뒤에는 한동안 이 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요 14:16). 성령은 우리의 부활의 몸 안에도 거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몸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영을 우리 사람의 영하고만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한편으로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근거**이시며, 또한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도구**도 되실 것입니다.

7.10.4 왜 지금 이미 죽지 않는 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과 함께 지금 이미 우리 몸에 죽지 않음을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왜 이 몸은 (그리스도께서 그 전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때로 병들고 죽음을 거쳐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는 세상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신자들)는 지금 이미 새 창조의 일부이며, 말하자면 “미리 당겨 온 것”, 곧 첫 열매입니다. 새 시대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이면서 동시에 “아직 아니” - 완성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있는 우리의 중간 상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죽지 않는 존재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렇다면 오직 그 이유 하나로 누구나 기꺼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똑같이 죽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보내시는 것은 사람들이 돌이켜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이 편지에서 직접 제기되지는 않지만, 바울은 바로 이

장에서 고난과 환난, 그리고 우리 몸의 구속도 다룹니다. 우리는 “이미 - 아직 아니”의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긴장은, 몸은 아직 질병과 죽음 아래 있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의 온전한 복을 받았고 그 복이 영원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단락 제목에서 던진 질문에 로마서 8:24가 답을 줍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ER(독일어 성경 번역본)의 표현 참조). 그러나 보이는 소망(예를 들어 죽지 않는 몸의 형태로)은 소망이 아닙니다.

8. 로마서 8:12-17: 구원의 명령법 -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의 삶 속으로 곧바로 작용해 들어옵니다. 그곳에서 구원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새 생명에는 새로운 “섬김의 관계”(한 종살이에서 다른 종살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녀로서 우리는 지금 타락한 피조 세계와 적대적인 세상을 지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변화되는 날까지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 일은 부활을 통해(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의 경우) 또는 곧바로(그때 아직 살아 있는 사람들이 변화됨으로써) 일어나며, 그것도 예수께서 오실 때 일어납니다. 그때 마침내 우리의 양자 됨이 완성되고(8:23) 장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8:18).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을 형제들, 곧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시켜 주시는 사람들로 부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믿음으로만(아직 보이지 않게) 붙잡고 있는 것을 장래가 드러낼 것이고, 또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제 (그의 모든 편지에서처럼) “만일”과 “그러면”을 말하면서 구원과 관련하여 조건문⁴¹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로써 의심도 확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질문을 던지라고 요구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내게 성령이 계신가? 나는 바른 길에 있는가? 그는 그들이 이 질문들에 “예”라고 대답하리라는 것을 은연중에 전제합니다. 이것들은 구원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그러한 그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경고들은 우리가 목표에 이르도록 돕습니다. 경고들은 우리의 시선을 “아직 아니”로, 곧 앞으로, 우리가 집에 있게 될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향하게 합니다.

41. 곧 조건을 나타내는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8.1 12절: 더 이상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자이나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 곧 죄 된 본질을 영과 대조하여 충분히 분명하게 묘사했습니다. 육신의 소유권 주장은 지나간 일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일부인 육신은 제거된 것이 아니라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은 더 이상 우리 삶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에게 아직도 어떤 식으로든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마치 우리가 자기에게 빚진 자, 곧 자기에게 의무가 있는 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회심 전에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형제들에게 주는 이 당부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 안에 사는 마지막 날까지 육신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에게 빚진 자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바울이 문장을 그렇게 끝맺으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대신 육신을 따르는 삶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묘사합니다.

8.2 13절: 생명이나 죽음이나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요 (죽어야 하리니)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바울의 말은 꾸밈이 없습니다. 경고는 분명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육신의 본질, 곧 하나님을 향한 원수 됨은 신자에게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말입니다(8:5-8). 이것은 자기기만에서 지켜 주려는 경고입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산다면, 그가 육신에 있을 가능성, 곧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 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여기서 (참된) 형제들에게 주어집니다!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경고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맥에서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8.2.1 약속과 경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

형제들에게 주는 이 경고에서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경고로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통 표지판은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경고하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로를 달릴 때 우리는 우리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립니다. 교통 표지판은 급커브, 옆바람, 야생 동물 출현을 경고합니다. 표지판은 나를 불안하게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운전을 충분히 잘할 능력이 없어서 사고를 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실제적인 위험을 경고합니다. 표지판은 내가 경고를 무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상상하게 해 줍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경고도 듣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생애에서 도움이 되는 비유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그가 탄 배가 심한 풍랑을 만나 모두가 살 소망을 잃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천사에게서 받은 약속을 대략 이렇게 전합니다.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며칠 뒤 육지가 보이자 몇몇 선원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쳐 목숨을

건지려 합니다. 바울은 군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선원들이 없으면 모두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행 27장).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다보았기 때문에 이성애 호소한 것일까요? 이 이야기에서 확고한 약속과 간곡한 경고의 관계는, 성경의 약속들(우리가 마지막에 구원받으리라고 보증하는 약속들)과 성경의 경고와 권면들(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목표에 이르기까지 견디라고 요구하는 경고와 권면들)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경고하시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경고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경우도 그렇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확실히 붙드신다고 말한다(8:29-39).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끝까지 견디라고 권면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이다(8:12-13). 이것은 절망적인 모순인가?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고 믿을 수 있으려면 그분의 약속을 의심해야 하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경고와 권면을 사용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확실히 붙드신다. 이 경고와 권면은 처음 복음의 부르심과 마찬가지로 가능성이나 조건의 틀 안에서 표현된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과 모순되지 않으신다 ...⁴² 그분은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셔서, 우리가 불순종 앞에서 그분을 믿고 순종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42. 이 인용문의 저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를 결코 서로 맞세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보증하심으로써,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힘주어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충성하라”고 일러 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신다.”⁴³

조건과 연결된 복과 약속	
롬 8:13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요 ...	...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롬 8: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	...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롬 8:17 ...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으면 ...	...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함이니라.
고전 15:1-2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	...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면 그러하니,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러하니라.
갈 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	...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골 1:21-23 너희를 ... 이제는 그의 살로 된 몸 안에서 죽음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	... 만일 너희가 믿음에 터를 잡고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딤후 2:5 누가 경기를 할지라도 관을 쓰지 못하나니 ...	...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딤후 2:12-13 우리가 참으면 ... 우리가 부인할 것이면 ... 우리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 ...	...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 그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 그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히 3:6 ...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의 집을 맡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집이라 ...	... 우리가 담대함과 소망의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러하니라.
벧후 1: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	...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계 2:7 이기는 그에게는 ...	...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 2:11 이기는 자는 ...	...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 3:5 이기는 자는 ...	...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43. 토머스 슈라이너(Thomas Schreiner), *Mit Ausharren laufen - Gibt es Heilsgewissheit ohne Heiligung?*, Oerlinghausen, 2009, 219쪽.

견딜 수 없고 이김이라는 조건과 연결된 경고와 약속은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구원의 직설법과 구원의 명령법처럼 한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조건들을 무력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조건들로 우리가 구원을 다시 잃을 수 있다고 위협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복과 조건은 긴장을 만들어 냅니다.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맥이 풀리고 게을러져서는 안 되고, 깨어 목표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전진해야 합니다.

8.2.2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다

우리는 타협 없이 육신이 자라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막아야 합니다. 영 안에서의 삶, 곧 육신에 대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룹니다. 육신, 곧 죄 된 본성은 신자 안에 아직 남아 있으며 끊임없이 영향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영향권이자 활동 무대는 모든 감각과 기능과 능력을 가진 몸입니다. 물론 몸 자체가 악해서 죽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은 육신이 뛰노는 경기장이며, 육신, 곧 죄의 도구입니다.

이 육신은 여전히 죽음만을 받아 마땅하며, 이미 골고다에서 심판받았습니다 (8:3). 여기서 바울은 육신 자체가 아니라 육신의 행실(움직임, 습관, 생명의 징후)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내 육신의 모든 움직임에 대해 나는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나는 결단하고 내 자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여도 되는 면허”가 있습니다. 죄 된 성향이 내 생각 속으로 몰래 들어와 퍼지려 하거나, 육신이 나를 죄 된 감정이나 행동으로 끌어가려 할 때,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응해야 하며, 그때마다 늘 같은 방식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수동성이 아니라 깨어 있음, 곧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죽인다”는 것은 육신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육신에 속한 유혹 앞에서 즉시 도망치는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강한 돕는 이, 곧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싸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문제는 싸움이 아니라 “처형”입니다. 우리가 겨누는 것은 육신 전체(죄 된 본성이자 아담의 본질로서의 육신)가 아니라

육신의 행실입니다. 이 행실은 끊임없는 위협이지만, 그것이 나타날 때에만 “죽이면” 됩니다. 육신은 늘 있지만, 육신의 행실이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형”이라는 말로, 마치 이 대결이 어린아이 장난이거나 승리가 보장된 의기양양한 자동 과정인 것처럼 미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결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거의 예측할 수 없으며, 늘 새로운 도전 앞에 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간계와 술수는 육신이 늘 교묘하고 뜻밖에 공격해 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 육신의 친구는 세상, 곧 악한 세대입니다. 이 동맹은 우리를 편하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육신은 첫 일격에 잠잠해져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하고 가장 달갑지 않을 때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육신은 끈질기며, 늘어 약해지지도 지치지도 않습니다. 육신의 특성에 관해서는 어떤 환상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끊임없이 때려눕혀야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이미 골고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승리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설명한 단호함을 함께 발휘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육신의 이 유혹과 시험을 더 이상 끊임없는 갈등으로 경험하지 않게 되리라 기대해도 좋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을 피하고 악에 자리를 내주지 않으며 선, 곧 하나님의 뜻을 마치 우리 자신의 뜻처럼 저절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고 습관이 될 것입니다.

8.2.3 “죽은 자로 여기기”인가, “죽이기”인가?

로마서 6:11에서 바울은 이미 우리가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 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8:13에서는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얼핏 보면 두 명령은 서로 모순됩니다. 첫째 명령은 수동적인 성격이고, 둘째 명령은 능동적인 성격입니다.

로마서 6:11로 우리 삶에서 죄를 이기는 승리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말해진 것은 아닙니다. 죄와 육신과의 대결은 우리가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 죽은 사람은 공격할 수 없으니 “죽은 척”함으로써 유혹에서 빠져나가려 한다면, 그것이 널리 퍼진 생각이기는 해도 해결책은 아닙니다. 육신은 아직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나는 육신이 죽었다고 선언할 수는 있지만, 육신이 실제로 죽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힘겨운 갈등에 빠집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려고 애쓰면서 나 자신과 죄의 유혹에 온통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와 육신의 문제에 대한 로마서의 답이 **아닙니다**.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역에서 나의 옛 삶, 나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은 죄가 나를 유혹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단번에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일은 2000년 전에 내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옛 삶을 정죄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내셨습니다. 나는 이 구원의 행위를 믿음으로 100 % 나의 것으로 붙잡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삽니다. 우리는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하고, 신자로서 지금 당장부터 이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문장의 둘째 부분(“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 있는 자로”)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묘사합니다. 그는 8장에서 묘사하는 대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삽니다. 바울은 이제야, 로마서 8장에 와서야, 내가 죄 된 육신과 그 행실과 습관에 대해 아주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수동성(자신을 무엇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단호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단호한 행동, 곧 죽이는 것입니다.

8.2.4 죽이기 – 어떻게 하는가?

“죽이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핵심은 육신이 우리의 새 삶에서 더 이상 아무 기회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신에게 전쟁을 선포하셨고, 우리는 이 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도 타협 없이 말입니다. 죽인다는 것은 먼저 어떤 행동을 육신의 일로 분명하게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육신에서 나오는지 나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그분이 괜히 거룩한 영이라고 불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 예외 없이 - 성령 아니면 육신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늘 거듭 분명히 기억합니다. 육신은 주님을 위한 활동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육신에게는 종교적인 “기질”도 있어서, 아주 경건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온갖 위장을 다 압니다! 그러므로 늘 거듭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나의 행동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육신은 지배하려 하고, 자기의 행동이 실행되고 반복되도록 밀어붙이려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제 아주 분명하게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압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향한 원수 됨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타협 없이 “멈춰!”라고 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육신 아니면 성령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자기 행동을 계속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인다”는 것은 육신에 속한 행동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실제 행동에 이르기 전에, 그것을 실행하려는 모든 의도를 분명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죽이기”는 여러 모습일 수 있습니다.

- 끊기(구독 등을 취소하기)
- 돌아서기
- 그만두기
- 자백하기
- 없애기
- 결단하기
- 도망치기
- 손대지 않고 두기
- 침묵하기
- 정죄하기
- 자리를 떠나기
- 눈 돌리기
- 뜻을 세우기
- 부수기
- 증언하기

- 그 밖에도 많습니다 -

구약은 원수를 얼마나 철저하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알맞은 본보기를 제공합니다. 모압 사람들의 왕 에글론은 뚱뚱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죄 된 육신의 전형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에훤은 무모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 행동으로 이 왕을 자기 칼로 쓰러뜨립니다(삿 3:12-30).⁴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그 행실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뱀이 너를 죽이기 전에 뱀을 죽여라.”⁴⁵

바울은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맞서는 철저하고 가차 없는 전략을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정욕과 악한 욕심과 탐심이니 (탐욕),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조금 뒤에 그는 이 목록을 이어 갑니다. “... 분노와 격노와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골 3:5-11).

주 예수께서 친히 같은 전략을 권하시며, 이를 훨씬 더 강하게 표현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8).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니라”** (마 5:29; 막 9:43-48 참조).

육신과의 갈등에서 우리는 오직 골고다의 빛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몸의 행실을 죽이고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은 저절로 되지 않으며, 여기에는 우리의 날마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주 기념 만찬, 곧 떡을 떼는 자리에서 실제로 하듯이) 늘 거듭 십자가를 기억할 때에만 육신에 대한 바른 태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8.3 14절: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44. J. T. 모슨(J. T. Mawson), *Überwinden ... aber wie?*, Schwelm, 1980, 28-44쪽.

45. 진 깁슨(Jean Gibson)의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먼저 방금 13절에서 설명한 대로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육신을 이기는 승리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묘사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바로 그 표지입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뜻과 목표를 이해하고 행한다는 점에서 두드러집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완전한 본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고, 아버지의 뜻은 그분의 양식과 같았습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큰 몫을 하셨습니다(사 11:2; 마 4:1; 막 1:12; 눅 4:1, 14, 18; 히 9:14 등). 성령께서 거하실 뿐 아니라 인도도 맡으시는 신자들 안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특별한 과제를 해내거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특정한 삶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의 이 장들에서 여러 번 확인했듯이, 그가 다루는 것은 근본적인 것들입니다. 곧 원리들,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두 줄기입니다.

불신자는 육신의 인도를 받고, 신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자를 손쉽게 죄 없는 상태로 이끄는 로봇의 자동 장치가 아닙니다. 새로워진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인도를 받을 위험 앞에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능동적이고 의식적으로 살며, 그분의 임재와 능력과 도우심을 의식하라는 분명한 요구입니다. 그분은 예수의 영이시요, 양자의 영이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야 하는 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다가가실 수 있으며, 따라서 수동적인 거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 능동적인 힘을 펼치신다.”⁴⁶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이끄심은 신자의 인격을 꺼 버리지 않습니다. 신자가 원격 조종을 받거나 조작당하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힘을 주십니다. 나는 한 인격으로서 내가 하는 일에 언제나 책임을 지며, 그러므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언제나 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지가 끊임없이 새로워져서(롬 12:2; 골 3:10)

46. 프레드 스탈란(Fred Stallan), *Was die Bibel lehrt*, Römerbrief, 230쪽.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할 수 있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런 생각과 행동을 도우십니다. 이 일은 대개 우리가 알아차리거나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밖에도 우리 삶의 특별한 도전들을 위해 성령의 특별한 일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통해, 믿음의 형제자매를 통해 그렇습니다. 신약은 이에 대해 비교적 드물게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신비주의(내면의 음성과 인상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는 것)가 아니며, 우리가 모든 상황마다 새로운 계시나 지시에 의존하는 “상황 윤리”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우리의 인격과 그 새로워진 생각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옳은 것과 더 나은 것을 행하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무엇보다 성경의 지시와 계명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로마서 8장의 이 문맥에서 다루는 것은 육신과 죄를 이기는 승리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힘을 주실 뿐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의 “정찰병”, 우리의 길잡이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그분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와 일하심(곧 그분의 인도)을 신뢰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8.4 15절: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 영 안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새로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7장의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종살이를 합니다. 주인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지나간 일입니다. 양자의 영은 우리가 아버지와 사귀는 가운데 살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사귀는 기도와 경배로 특징지어집니다. 여기 나오는 외침(“아빠 아버지”)은 아마도 가장 짧은 형태의 기도 또는 경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 신약에 단 세 번 나옵니다. 겐세마네 동산에서(막 14:36)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극심한 고뇌 가운데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 쓰는 친밀한 호칭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또는 그냥 “아빠”에 견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4:6).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런 애칭으로 부르는 것이 어찌면 놀라울 수 있지만, 이 호칭은 이 아들 됨, 곧 자녀 됨의 관계가 얼마나 다정한지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더 이상 두려움과 강요, 계명과 금지 조항을 엄격히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좌우되지 않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관계에서 솟아나는 삶을 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온전한 받아 주심으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의 임재로 가득합니다. 그 영은 조용한 관찰자가 아니라 일하시는 돕는 이로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받아들여졌으며, 그분의 영으로 인도와 이끄심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한 번의 실족, 한 번의 죄가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들이며 자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일상에서 살아 내라고 힘차게 외친 뒤에, 바울은 이제 우리 마음을 쉬게 하려 한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이 격려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주의 초월적인 하나님이, 밤의 고요 속에서나 내가 진창에 빠졌을 때, 내 손을 잡으시고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나를 초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⁴⁷

8.5 16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에게 무엇인가를 외치는 어떤 음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확신, 곧 구원의 확신을 더 강하게 하고 굳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와의 굳건한 관계가 날마다 우리 생각 속에 살아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께 너무나 소중해서 그분은 나를 위해

47. 프랜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 *Allein durch Christus*, 216쪽.

그분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나를 징계하시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분의 사랑의 증거입니다(히 12:5). 자녀가 되는 권세(요 1:12)에는 물론 의무도 따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 결코 잊지 맙시다! 성령께서 날마다 그 일을 도우십니다.

8.6 1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을 상속자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받으면 그러하니라. 이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함이니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적인 의미에서”도 자녀입니다. 곧 우리는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됨과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전적으로 진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분이 그분의 아들에게 주실 것이 우리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고난은 영광의 날에 기업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 늘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의를 위하여 짊어지신 이 고난의 길을 우리보다 앞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모든 서구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습시다. 다른 나라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고난의 때가 닥친다면, 이것을 기억합시다. 이 말씀은 모든 일에서, 심지어 죽음에서까지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원했던 사람이 쓴 것입니다. 고난을 거쳐 영광으로 - 이것이 교회 역사에서 신실한 신자들이 대개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러므로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업을 “아직” 물려받지 않았습시다. 구원의 직설법은 우리의 자녀 됨을 묘사하고, 구원의 명령법에는 고난이 속합니다. 고난은 기업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예수를 따르는 삶에서 흔히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 역시 최종적인 실패를 가리키는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께 신실하게 서 있는 고백자가 되라는 요구를 받습시다.

9. 로마서 12장: 생각이 새로워진다!

로마서는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담은 웅장한 대성당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옵니다. 곧 무죄 선고, 칭의, 해방,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적대를 뚫고 끝까지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사람은 죄책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야 했고, 또한 새 삶을 위한 힘도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8장에서 인상 깊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과 우리의 몸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제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우리 몸을 변화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확정된 일이며, 그분만 아시는 때에 그분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다음 바울은 9장에서 11장까지 역시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다른 질문들을 다룹니다. 12장에서 그는 우리가 해방되어 하게 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의 개인적인 삶, 곧 우리가 새로움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다룹니다. 이제 구원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일상에서도 보여야 합니다. 바울은 5장에서 8장까지 비교적 추상적이고 원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기초를 놓았고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새로움이 삶의 세부 사항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 줍니다. 그는 권고와 명령과 호소, 곧 신약의 계명들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이 계명들이 모세의 율법을 대신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먼저 새 삶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데 쓰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 이 계명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계명들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표현합니다. 신약의 1000개가 넘는 계명들은 결국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묘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은 신약의 계명들에 묘사된 바로 그 특징들을 보여 줍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대로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요일 2:6, 8).

9.1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같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목표는 이 목표 아래에 있습니다. 언젠가 이 일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 형상, 곧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 속에 굳어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념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활동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격으로서 지금 이미 그러한 그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에 이르렀을 것이고, 영원히 그 안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는 늘 되어야 했던 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그분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늘 되고 싶었던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자기 결정이란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사신다는 사실을 포함합니다!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곧 그분을 닮아 가는 것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의 첫날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평생 과제입니다. 문제는 영원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 삶으로 무엇을 만드느냐 - 아니, 더 정확히 말해 그리스도께서 이 삶으로 무엇을 만드실 수 있느냐 - 가 중요합니다.

9.2 로마서 12:1-2: 예배 - 논리적인 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논리적인 섬김 (예배) 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이 시대의 흐름)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6장으로 곧바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드러야(그분께 내어 드러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로마 교인들에게(아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들의 몸을 제물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이 제물은 구약의 짐승 제물과 달리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드러집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제물은 거룩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의 자세는 받은 구원에서 나오는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헌신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는 요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그런 요구를 받습니다. 그 자비하심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책과 우리의 모든 모습(곧 죄 아래 팔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지우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형제로서 사랑을 담아 **권면**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믿음의 길을 이제 막 시작했던 이미 오래 걸어왔든) 온전히 드리라는 이 요구는 늘 거둬 도전이 되고 현재의 일입니다. 우리는 늘 거둬 여기에 “예”라고 해야 합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기 삶의 헌신이 안타깝게도 오르내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헌신은 우리의 생각과 관련된 과정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멀리 헌신할지는 거기서 결정됩니다. 날마다 이것을 되새기는 것은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9.2.1 여러분의 몸!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이방 신들에게 바치도록 기대받았던 것과 같은 “극단적인 영웅적 행위”로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⁴⁸,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꾸준히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에 높은 곳과 낮은 곳, 승리와 패배, 넘어짐과 일어섬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도록 힘을 주는 경험과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영원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 우리 삶은 흥미진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드려야 할 것으로 “몸”을 말할까요? 우리의 생각도 (2절에서처럼)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물론 핵심은 우리 존재 전체,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 몸을 통해 표현됩니다. 몸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만나는 점점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몸”이었습니다(롬 6:6). 몸은 죄가 손과 발을 얻는 도구였습니다. 몸은 죄 된 습관을 키웠고, 죄 된 독자적인 삶을 살았으며,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삶의 얼마나 많은 영역이, 또 얼마나 자주 우리 몸에 의해 결정되거나 영향을 받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몇 가지 예만 들어도 우리가 헌신에서 우리 몸의 역할을 쉽게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습관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고 마시느냐의 문제도 있으며, 잠자는 습관과 텔레비전 및 인터넷 사용 습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모든 측면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고, 몸에 밴 행동 방식으로 굳어집니다. 문제는 “죄의 목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역할과 흔히 과소평가되는 그 영향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 제물로 드려집니다. 곧 우리 몸의 요구를 내려놓고, 그 대신 몸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롬 8:13). 이 말씀도 몸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적대적인” 역할입니다. 몸이 우리가 죽여야 할 일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다른 말을 빌리면, 그것은 육신의 일(갈 5:19) 또는 땅에 있는 지체(골 3:5)입니다. 죄 된 습관이 성령의 능력으로

48. 프레드 스탈란(Fred Stallan), *Was die Bibel lehrt, Römerbrief*, Dillenburg 2001, 358쪽.

통제되면, 이 몸을 점점 더 하나님께 내어 드릴 길이 열립니다. “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몸은 골고다에서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죄의 몸이었던 것이 이제는 “의의 몸”입니다! 바울은 자기 몸을 처서 종으로 삼습니다(고전 9:27). 그는 판을 뒤집어, 이제는 몸이 그를 따라야 합니다. 몸이 그 죄 된 욕심과 지나친 안락함을 관철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몸은 하나님께 속하고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9.2.2 세상: 친구인가, 원수인가?

우리는 몸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삽니다. 사회는(바로 이것이 바울이 **세상**이라고 할 때 뜻하는 것입니다) 몸을 거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언했습니다. 여러 산업 분야 전체가 몸이 필요로 하거나 필요로 해야 할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웰니스, 피트니스, 스포츠, 건강, 미용, 장수, 좋은 음식과 음료, 의학, 성형 수술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몸에 어떤 역할을 주느냐입니다. 몸은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분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삶을 꾸려 왔습니다. 사회, 경제와 상업, 산업, 문화, 종교, 음악, 철학, 여가, 오락, 식생활, 교육, 가정생활, 윤리 - 삶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물들고 그것에 의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배에 태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롬 1:28).

우리 육신에게 세상은 매력적이고 끌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왔고, 우리 육신은 거기서 편안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처럼(곧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은 산 제물의 온전한 헌신과 뚜렷이 대조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며, 자기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세상(헬라어 *aion*)은 “시대의 흐름”으로도 번역됩니다. 세상의 시간은 끝을 향해 흘러갑니다. 이 세상의 시대는 막 끝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은 잘못된 방향으로, 그것도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쪽, 하나님을 떠나는 쪽이지, 하나님께로 가는 쪽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대의 흐름은 멸망으로 내려가는 “넓은 길”(마 7:13-14)과 같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은 죽은 물고기들이 물살을 따라 떠내려가는 강과 같습니다. 살아 있는 물고기는 반대 방향으로 헤엄칩니다. 세상의 틀(도식⁴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시대정신”으로도 번역됩니다. 사람의 정신의 방향, 곧 정신적 태도가 세상을 지금의 세상으로 만듭니다. 게다가 성경은 사탄 자신이 이 세상의 신이요 이 시대의 흐름의 통치자라고 여러 번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과 그 (시대)정신은 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에 대해 아무 의심의 여지도 남기지 않습니다(갈 1:4). 그리고 (세상에 맞춘 삶이 더 편하기 때문에)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임을 드러냅니다(약 4:4). 물론 세속성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에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속성이 삶 전체를 사로잡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속적인 영향을 받은 영역이 이런저런 한두 영역, 큰 영역이거나 작은 영역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어디에 몰래 스며들었는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나의 돈은 어떠한가? 나의 재산, 나의 직업적 목표, 결혼 생활에서의 나의 태도, 내가 좋아하는 습관, 나의 친구 관계는 어떠한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세상에 맞추지 않는 것은 외적인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 먼저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에 맞추는 일에 생각이 앞서듯이, 행동에 앞서 생각이 옳습니다.

9.2.3 새로운 생각을 통한 변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미 그러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점점 더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셔야

49. 헬라어 *schematizein*, 곧 어떤 틀에 따라 자신을 빚다, 또는 주어진 형태대로 빚어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합니다.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고 우리 자신은 쇠하여야 합니다. 세상처럼 사는 것은(그 사고방식에서나 외적인 모습에서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5장에서 8장까지 이미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점진적인 변화, 곧 영적인 성장과 성화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제 막 믿음에 이른 사람은 여전히 옛날의 익숙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버튼 하나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새롭게 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빚으신 생각으로 바뀝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새롭게 됨의 과정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여기서 뜻하는 것은 단순한 사고 과정 이상입니다.

- 고린도후서 4:16: 고난과 영광 사이의 긴장 속에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짐
- 에베소서 4:23: 너희 생각이 끊임없이 새롭게 되라.
- 골로새서 3:10: 새 사람은 끊임없이 새롭게 된다.

변화는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하는 마음(헬라어 *nous*)은 생각의 세계, 이성, 사고, 이해, 생각의 중심을 포함합니다. “마음”이라는 개념 뒤에는 순수한 사고, 곧 이성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생각과 의지를(때로는 감정도) 나타내는 마음(심장)은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개념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하고 원하고 행동하는 일의 제어 센터입니다. 이 제어 센터에서 분류하고 평가하고 발견하는 사고와 결정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행동은 생각과 결정의 결과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은 ... 인식 과정이 일어나는 곳이며 생각이 나오는 곳이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행동에 대해, 그리고 그로써 실천 윤리 전체에 대해 ‘결정적인’ 곳이다.”⁵⁰

9.2.4 메타모르포시스

이것은 헬라어 본문에서 “변화”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메타모르포시스(탈바꿈)라는 개념은 우리 주제에서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동물의 세계에서 압니다. 나비가 가장 놀라운 변태 과정

50. 위르크 부헤거(Jürg Buchegger), *Ein Mensch, was ist das?*, Wuppertal, 2004, 211쪽.

가운데 하나를 거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어 다니는 애벌레(늘 보기 좋은 것은 아닙니다)에서 번데기 단계를 거쳐 날아다니는 나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멈출 수 없는, 미리 짜인 과정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철저한 변화를 거쳐야 하고 거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 무엇도 거기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못생긴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저것은 원래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곤충은 곤충으로 남고, 같은 생명체로 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바뀝니다. 이것은 사람을 참으로 깊이(마음과 생각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닮지 않았습니까?

같은 말 “메타모르포시스”가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시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으실 때 쓰입니다. 다른 문맥에서 같은 말이 우리에게 대해 쓰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영이신 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 우리의 “메타모르포시스”는 그리스도의 본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의 이 목표는 아무리 강조하고 되풀이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헛된 꿈도 아니고, 이를 수 없는 목표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내미시는 새로운 환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계획이요 뜻이며, 그분은 그것을 크게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그분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에 마음을 쏟는다면), 그분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분이 참으로 우리 삶을 채우신다면, 변화의 과정은 바르게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입니다.

9.2.5 왜 새롭게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상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삼는 생각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의 씨가 그의 마음에서 싹이 틈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은 이제 아기가 그렇듯 자라야 합니다. 이 성장은 속사람과 관련되며, 거기에는 생각하는 마음도 포함됩니다.

이 새롭게 됨의 과정은 평생 계속됩니다. 성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존재를 바탕으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의롭고 거룩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 새롭게 됨은 하나님 자신을 통해 일어나며,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사는 환경, 우리 자신의 됨됨이(성격, 기질, 재능, 약점, 삶의 형편 등)를 온전히 고려하고 이런 여건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9.2.6 새롭게 됨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새롭게 됨은 하나님 자신을 통해 일어납니다. 변화는 명령이며, 우리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맡겨야 합니다. 새롭게 됨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새롭게 됨의 과정에 우리가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이 마음을 쏟고, 세상의 사고방식을 생각하고 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제어 센터 안으로 들여보내며 거기에 맞추면, 우리 역시 변화되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을 닮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일은 내면에서 일어나고, 그다음에는 피할 수 없는 결과로 겉으로도 일어납니다. 이 과정은 흔히 서서히,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게 진행됩니다. 세상의 독은 영적인 생명을 천천히 죽여서, 그 과정을 거의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 그분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사귄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거기서 나는 내 생각을 그분께서 친히 채우시고 정리하시고 방향을 잡아 주시도록 맡깁니다. 이 경우에도 나 자신은 새롭게 됨의 과정을 반드시 알아차리는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됨은 무엇을 통해 일어날까요? 여기서는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입니다. 그분은 직접 읽거나 설교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고요함과 기도와 경배, 새롭게 됨과 바로잡음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삶의 모든 상황, 모든 경험을 쓰십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양육과 훈련과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새롭게 됨을 앞당기고 도울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더 닮아 갈 수 있듯이, 세상을 더 본받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 앞에 한 번만 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날마다 섭니다.

9.2.7 전쟁터가 된 생각의 세계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 삶의 암호, 곧 코드입니다. 그 생각에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조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조종실을 장악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손에 쥅니다. 이것 역시 반드시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행동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큰 걸음 하나로, 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작은 걸음 여럿으로 우리 생각의 세계에 요새를 세우는 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고후 10:3-5).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을 (보루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로써 우리가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니.”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할 공격 목표는 우리 머릿속의 ‘견고한 진’이다. 여기서 쓰인 헬라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보루’다. 보루란 끊임없는 반복이나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 뇌에 새겨진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다.”⁵¹

사고방식과 습관적인 행동 방식이나 반응은 여러 요인 가운데 외부의 영향을 통해서도 생겨납니다. “이런 환경의 영향은 각각 짧았지만 오래 남았다. 예를 들어 특정한 사건, 장소, 만남,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이 여기에 속한다. 또 우리가 읽은 책, 우리가 본 영화, 우리가 즐겨 듣는 음악도 우리를 형성했다 … 우리는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 방식과 그것들이 일으킨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나름대로 발전시켰는데, 그 방식은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도 있고 (어쩌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의 삶에 오래 남는 영향은 여러분 주변과의 장기적인

51. 닐 T. 앤더슨(Neil T. Anderson), *Neues Leben – neue Identität*, 1994, Lage, 153쪽.

관계에서 온다. 예를 들어 가족, 친구와 지인, 이웃, 교사, 직장 동료의 영향이 그렇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날 때 여러분의 모든 죄는 씻겨 나갔지만, 여러분이 주변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긴 지금까지의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은 여러분의 육신에 뿌리박힌 채 남았다. 사람은 실제로 거듭났으면서도 지금까지의 ‘무신론적인’ 생활 방식을 계속 가꿀 수 있다(그리스도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당한다. 저자의 덧붙임).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간곡히 권면한다(롬 12:2).”⁵²

몸에 밴 것과 배운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각과 삶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새롭게 됨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허락한다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의 (부분적으로) 육신적인 프로그래밍을 바꾸도록 돕는 하나님의 무기가 있습니다.

9.2.8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먼저 우리에게는 앞에서 말한 기본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는 헌신하고, 세상은 거절하는 자세입니다. 성경은 그 밖에도 이런 지침을 줍니다.

- (규칙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게 하기(골 3:15)
-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기(골 3:16).

보루와 이론은 대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폭로하기 위해 우리는 빛과 의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어떤 생각이나 생각의 틀이 떠오를 때, 보루가 출격문을 열 때, 그 간곡한 호소는 이 생각을 즉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더 강하십니다. 그분은 승리자이십니다.

거짓말로 쌓은 보루의 예:

- 두려움과 망상
-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52. 닐 T. 앤더슨(Neil T. Anderson), 앞의 책, 155쪽.

- 열등감과 자존감 문제
- 불안과 신경과민
- 생각 속의 유혹
- 강박 관념
- 사람, 사물, 물건, 재물, 소유, 인간적인 안전장치와 쾌락에 대한 의존.

우리는 이 모든 거짓말을 폭로하고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두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그 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안다는 데 있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힐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9.2.9 백일몽과 공상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은 놀랍습니다. 생각 속에서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 이루지 못한 소원을 이루는 평행 세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스타가 될 수도 있고,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고, 완벽한 가정이나 다른 아내나 다른 남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과 그 밖의 많은 것이 생각 속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심합시다! 이런 생각은 시간을 빼앗을 뿐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꾸며 보입니다. 이런 꿈과 소원이 습관으로 굳어지면 우리의 생각과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꿈들의 중심축은 우리 자신입니다! 꿈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행동을 상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실 감각을 잃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떠도는 마음이고, 떠도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다.”⁵³ 미국의 연구자들이 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시간의 절반 동안 정신이 딴 데 가 있습니다. 생각에 잠기거나, 이것저것 곱씹거나, 그냥 공상합니다. 문제는 생각이 딴 데로 흐르는 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늘 맞는 것은 아니라 해도, 우리 영혼의 원수가 이런 방식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53. 지은이 미상.

이에 맞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 생각의 세계가 지닌 중력과 자체 관성을 이기도록 돕는 몇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 아주 일반적으로 언제나 해당하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일, 곧 이 순간에 집중하여 우리의 과제와 의무를 잘 해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 떠오르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꿉시다!
- 성경이나 영적으로 가치 있는 책을 읽읍시다!
- 성경 말씀을 외웁시다. 그러면 손에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어찌면 우리는 성경 없이 지내야 하는 때를 겪을지도 모릅니다!
- 오늘 주 예수님을 위해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 주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복음서의 한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 일어나서 무엇인가 활동적인 일을 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무엇이든 해 봅시다!
- 대화할 사람을 찾읍시다!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잘 지내는지 물어봅시다!

9.2.10 하나님의 뜻 – 분별하여 선하다고 확인하다!

…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시대 흐름과 대조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상당히 아무래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장난입니다. 말 그대로의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요일 2:15-17).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는 유통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는 사람은 그 기한이 거의 다 지났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이 스스로 지은 세상은 멸망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리고 세상 안에는 기한을 연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세상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썩는 냄새를 더 이상 맡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이것은 그분의 뜻에도 해당합니다. 게다가 그분의 뜻은 기뻐하실 만합니다. 이것은 흠 없고 나무랄 데 없어야 했던 구약의 제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직 그런 제물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삶의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써 몸 안에 있는 우리 존재 전체(속사람도 여기에 속합니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줍니다. 점검표와 좋은 조연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바탕도 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9.3 로마서 13:13-14: 그리스도로 옷 입기 – 육신을 위하여 도모하지 않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질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하여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연구를 마치기 전에 이 본문을 더 살펴봅니다. 8장 뒤로 “육신”을 언급하는 곳은 이곳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예수의 삶을 복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서 각자의 개성에 맞게 예수의 본질을 점점 더 닮아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진리, 그분의 의, 결국 우리가 그분에게서 볼 수 있는 모든 도덕적 성품이 포함됩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이 펼쳐질 자리를 내어 주고, 우리 삶에서 주님을 크게 하고 우리 자신은 낮추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으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강렬한 은유이며, 더 이상 풀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밤에는 온갖 종류의 죄가 벌어지며, 사람들은 공공연히 하는 것도 꺼리지 않습니다. 이에 맞서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욕신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욕신의 욕심에 굴복함으로써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셔야 합니다.

여기서도 실제로 욕심을 채우고 유혹에 넘어가기까지, 생각 속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욕신을 돌보거나 가꾸어서는 안 됩니다. Schlachter 성경(독일어 성경 번역본)은 오해의 여지 없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욕심을 불러일으키기까지 욕신을 가꾸지 말라”(Schl 2000). 우리는 욕신의 생각과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타협 없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편안하고 갈등 없는 삶을 바라는 마음은 우리 욕신을 아끼려고 중요한 결정과 그 결과를 피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욕신을 가꾸게 되고, 욕신은 거침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욕신을 아끼고 가꾸면, 욕신은 우리 삶에 자기의 독재를 세울 것이다. 단호하지 못해 욕신을 봐주고 그 갈망을 채워 주면, 욕신은 점점 더 굶주리고 격렬해질 것이다. 욕신을 가꾸는 것은 (오늘날 자주 주장되는 것처럼) 자기 수용과 인격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되는 욕심을 불러일으킨다.”⁵⁴

9.4 결론

몸과 삶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사람은 자기 생명, 곧 자기중심의 삶을 잃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대략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중심의 삶을 잃는 사람은 그것을 얻을 것이다”(눅 9:24; 17:33 참조). 짐 엘리엇(Jim Elliot)은 이렇게 썼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주고 잃을 수 없는 것을 얻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⁵⁵

54. 발터 니체(Walter Nitsche), *Versagen und innere Zerrissenheit*, 76쪽.

55.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마치 **우리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느끼는 데까지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율법입니다(약 1:25; 2:12).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원하여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10. 옛것과 새것 - 개관

옛것	새것	성경 구절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고후 5:17
아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롬 5:12-8:11 등
죄인	의인	롬 5:19
옛 사람	새 사람	롬 6:6; 엡 4:20-24; 골 3:9-11
죄의 몸	우리 몸과 지체를 하나님께 드림	롬 6:6, 12-23; 8:13; 12:1-2
육신에 있음	영에 있음	롬 8:8-9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롬 8:2
육신(우리 안에 있는)	성령(우리 안에 계신)	롬 8:1-11; 갈 5장
죄 - 죄에 지배당하고 죄 아래 팔림	죄에 대하여 죽음: 새 생명;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롬 6장 (그리고 롬 8장)
영적 죽음	새로운 영적 생명, 살리심을 받음	고전 15:45; 요일 3:14; 엡 2:5 등
육신(무익하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없다)	거듭남	요 3장; 6:63 롬 8:7
마지막: 죽음	목표: 영생	롬 6:21-23
죽어 감	새롭게 됨	롬 6:21; 엡 4:22-24
땅에 속한 것 -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정욕, 악한 욕심, 탐심, 분노, 격노, 악의 등	하늘에 속한 것 - 부르심, 목표	골 3:1-11; 고전 15:48-49
우리 자신으로 가득함: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골 3:11; 갈 2:19-20 등 롬 7:18

11. 육신이란 무엇인가?

육신(헬라어 *sarx*; 개역개정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체’로 옮김)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흔히 “옛 본성”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새 본성”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아담의 본성, 죄의 본성, 육신의 본성, 인간적인 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죄 된, 옛 또는 땅에 속한 본질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신약은 그것을 언제나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새겨진 각인, 곧 사람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존재 안에 뿌리박혀 있는 그 각인을 뜻합니다.⁵⁶

육신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과 관련됩니다. 낱말의 뜻은 각각의 본문 문맥에서 밝혀야 합니다. 거기서 다루는 것은 사람의 육신의 도덕적 측면일 수도 있고, 피조물로서의 물질적 측면일 수도 있으며, 덧없는 측면(사 40:6-8), 무력한 측면(렘 17:5, 7), 또는 연약한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부부의 결합(창 2:24; 고전 6:16), 가족의 혈연(롬 1:3; 9:3), 또는 인류 전체(롬 3:20)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모두 78번(그 가운데 63번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타락하고 죄 된 인간 본질을 가리키는 말로 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육신”이라는 개념을 도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베드로(벧전 2:11; 벧후 2:10, 18)와 요한(요일 2:16)도 이 의미로 씁니다. 야고보는 욕심에 대해 말합니다(약 4:1-3).

“영”과 대비되는 “육신”이라는 개념은 “편을 바꾸다”라는 주제에서 중심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갈등에 관한 핵심 진술은 바울의 이 확언입니다.

56. 롤란트 안톨저(Roland Antholzer), Gemeindeorientierte Initiative für biblische Beratung e.V. (GIBB).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갈 5:17).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서로 맞서는 것은 모든 사람 안에 많은 적든 있는 두 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모든 사람 안에서 많은 적든 벌어지는 악과 선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다른 차원이 문제입니다. 영은 성령, 곧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분은 믿음에 이른 사람의, 육신이 지배하던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육신은 그리스도인 안에 거둬난 뒤에도 아담 안에 있던 옛 삶에서 아직 남아 있는 인간 존재의 한 부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육신**에 해당하는 독일어 낱말(Fleisch)은 정육점과 음식을 말할 때 쓰이고(고기), 해부학에서 사람의 조직을 말할 때도 쓰입니다(살). 둘 다 성경에서 이 말이 쓰이는 방식과 맞습니다. 흔히 이 말은 그냥 사람의 몸을 뜻합니다(예를 들어 롬 2:28).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순전한 물질성을 넘어섭니다. 육신(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사람)은 약하고 쇠하고 덧없을 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과 반대되는 특징을 띠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 그리고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육신의 의미는 사람의 물질적 측면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측면을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인간 본성의 타락한 상태를 뜻합니다.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버린 인간 본성이다.”⁵⁷

도덕적, 윤리적 측면은 사람이 **어떠한지**를 묘사합니다. 그의 동기는 무엇이고, 그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하고,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에 비추어 본, 도덕적 의미에서의 그의 본질, 그의 됨됨이, 그의 본성입니다. 육신(곧 사람의 본질과 삶의 방향)은 종교적일 수는 있어도 참된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기 때문입니다(요 3:5-8). 육신은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무익하므로(요 6:63),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57.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 *Fleisch oder Geist*, Augsburg, 1968, 19쪽.

11.1 죄와 육신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분의 권위 독점을 거부하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창조된 사람, 곧 살과 피를 가진 피조물이라는 의미의 “육신”이 아직 없었을 때 이미 있었습니다. 마귀는 어쩌면 가장 높은 피조된 영적 존재였을 텐데, 자기의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이 원리를 따랐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단순한 계명 하나를 어김으로써 죄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로써 죄가 사람 안으로, 그것도 그의 가장 깊은 본질과 존재(그의 마음) 속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죄는 모든 사람 안에 거합니다(롬 7:17).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은 자기의 본질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었습니다.

육신은 사람, 곧 그의 본질, 그 안에 거하는 죄에 의해 결정되는 그의 개인적인 인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정확히 짚습니다. “나는 …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롬 7:14). 여기서 죄는 주인이자 종들을 부리는 감독이고, 육신(곧 사람)은 그의 종입니다. 죄와 육신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어서, 거의 서로 바꾸어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육신은 (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맞서는 반역의 원리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을 그 개별성 가운데 가리키기도 합니다. 육신은 인격과 성격의 특성이 결합된 것입니다. 육신은 도덕적인 면에서 죄의 도구입니다. 나의 육신, 곧 나의 몸은 죄에게 종노릇합니다. 죄들은 몸을 통해(곧 손과 발과 혀로) 저질러집니다. 그래서 몸은 중립적인 도구일 뿐 아니라, 죄 된 습관과 욕심과 정욕으로 얼룩져 있기도 합니다.

11.2 육신과 믿지 않는 사람

“육신”에는 어디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육신은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야 비로소 자세히 펼쳐지는 육신의 의미를 처음 암시하는 것은 홍수 직전에 사람에게 대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신즉 보라,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모든 육신이 땅에서 자기 길을 부패하게 하였음이라”(창 6:12; 3절도 참조).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며 “육신에 있는” 사람입니다(롬 8:5-8).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비추어 보면 그의 존재 전체는 “육신”일 뿐입니다. 곧 자기 생각과 욕심(정당하지 않은 바람)과 충동에 의해 좌우되는 죄된 존재일 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개념은 안에 거하시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래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데도 옛 본질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쓰입니다(고전 3:1).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있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곧 보이는 것)을 봅니다. 이방인들은 땅의 것, 곧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며(그들은 “이생의 염려”⁵⁸에 얽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거기에 모든 것을 겁니다(마 6:32). 이런 의미에서 육신은 이 세상을 지향하고 보이는 것을 향해 있습니다. 육신은 보이는 것, 곧 겉보기에 확실한 것에 매달립니다. 이것 역시 처음 보아서 그런 것으로 알아보기 어려운 육신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계에 대한 불안한 염려를 흔히 책임감을 진지하게 여기는 좋은 태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11.3 육신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에”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아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좌우해도 되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육신은 여전히 성령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철천지원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육신의 행실에 대한 사형 선고를 스스로 집행하지 않는다면(롬 8:13), 육신은 심지어 지금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좌우하고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죄와 육신을 정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우리 안의 육신을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도 육신은 그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 아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단호하게 다루라는(곧 육신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라는) 많은 간곡한 권면은 이 육신이 아직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육신이 무익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문제의 핵심을 말씀하시며, 육신을 영적으로

58. 누가복음 8:14 참조.

만드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신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며, 결코 다른 무엇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잘 교육받은 육신일 수도 있고, 교양 있는 육신,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갖춘 육신, 도덕적으로 선한 육신, 심지어 종교적인 육신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육신이다.”⁵⁹

“육신은 여전히 죄스럽다! 우리는 이 땅의 상태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싶어 하며 기꺼이 죄의 도구로 나서는 ‘육신’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아주 의식적으로 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가?”⁶⁰

그러나 육신이 그저 있다는 것과 그 생명의 징후를 벌써 죄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가 육신에게 굴복하여 육신의 충동과 일을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둘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육신의 철저하고 변함없는 악함을 점점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육신은 짐승과 같고, 축수가 많은 문어와 같습니다. 영적인 이해가 우리 삶에 더 많이 들어올수록, 우리 자신의 육신이 철저히 부패했다는 것을 더 분명히 의식하게 됩니다. 이런 자기 인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나란히 자라야 합니다. 자기 육신의 악함과 타락에 실망하는 사람은, 육신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으며 육신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우리에게서 없애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신자 안에 육신이 있고 공격해 오는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 분명히 필요합니다.

- 육신은 우리의 내적인 약함을 드러냅니다.⁶¹
- 육신은 우리의 교만과 오만을 죽입니다.
- 육신은 우리를 늘 거둬 냅니다.
- 육신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합니다.
- 육신은 인간의 노력이 무익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 육신은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 육신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를 사랑하도록 이끅니다.

59. 루스 팩슨(Ruth Paxson), *Life on the Highest Plane*, 190쪽.

60. 발터 니체(Walter Nitsche), *Versagen und innere Zerrissenheit*, 11쪽.

61. <http://www.keepbelieving.com/sermon/2001-08-26-Full-Speed-Ahead-One-Step-at-a-Time-How-You-Can-Walk-in-the-Spirit-Every-Day/>

- 육신은 우리를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으로 이끅니다.
- 육신은 우리가 죄의 침범에 깨어 있게 합니다.
- 육신은 하늘을 향한 그리움을 키웁니다.
- 육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수단을 활용하게 합니다.
- 육신은 우리가 거룩한(또는 선하고 영적인) 습관을 기르도록 격려합니다.
- 육신은 우리가 형제자매의 도움을 받게 합니다.

육신은 우리가 날마다 해결책을 찾게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 비추어 찾게 합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기적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과 관련된 문제들을 그냥 “마술처럼” 없애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하고 또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에 필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히 다음 장에서 더 깊이 다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이상 되풀이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장은 결국 한 주제를 다루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룹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주제 - 아담 편에서 그리스도 편으로 옮겨 감 - 이기 때문에, 한 관점을 풀어 가면서 이미 다른 여러 사실을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한 관점은 다른 관점이나 측면에 기댁니다. 한 측면은 다른 측면과 떼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12. 육신 대 성령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17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이 무엇을 이루는지 인상 깊게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표적과 기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메시지의 근원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율법 교사로 활동하던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뒤따라와서, 새로 세워진 교회들에 모세의 율법을 들여오려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구원과 삶에 꼭 필요하다고 내세웠고,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호의적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이며, 바울은 그 편지에서 이에 강력히 맞섭니다. 율법을 복음에 섞으면 복음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율법과 복음에서는 서로 조화될 수 없는 두 세계가 부딪칩니다.

12.1 무엇이 문제였는가?

율법을 다시 들여옴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의 시대로, 그리고 그와 함께 육신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구원을 위해, 그리고 삶의 기준으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율법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도 이런 생각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들이 이 길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더 나아가(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주된 주제와 관련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대할 때 마치 서로의 눈을 핥고 잡아먹는 맹수처럼 행동했습니다. 바울은 조금 비꼬듯이, 서로 잡아먹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는 그들의 율법 사랑과 이른바 율법에 대한 충실함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고발합니다. 거기서는 좋은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의 시대, 그리고 그와 함께 육신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옛 체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성령과 자유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육신(옛 타락한 아담의 본성)은 율법과 그 계명과 금지 조항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무력하며 앞으로도 무력할 것입니다. 실패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무엇을 맞세웁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편지는 토라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영을 위한 인상 깊은 변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중심이시며 우리 칭의의 기초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입게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목표는 율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에서 현실이 됩니다.

12.2 육신이 하는 일

맹수에 빚던 표현은 우리 육신이 어떤지를 어느 정도 보여 줍니다. 육신은 늘 먹잇감과 지배를 노리는 맹수, 곧 고양이과 맹수와 같습니다. 서커스에서는 조련사가 이런 큰 고양이과 맹수를 길들이는데, 이것은 당당한 태도와 끊임없이 통제하는 눈 맞춤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태도는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 대신 율법을 사랑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내는 모습은 육신적인(곧 죄 된) 태도에 좌우되었습니다. 성령과 육신의 갈등에서 바울이 다루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갈등에서 문제는 안으로 향한 주의와 자기 관찰, 곧 내 안에서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행동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함과 시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는 마음이나 하는 것입니다(5:26-6:2). 앞의 것의 근원은 육신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선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셔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른 아님 그리스도의 본질의 표현입니다. 죽음을 앞둔 아담을 증언하는 육신의 죽은 일들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만 됩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성령과 육신은 끝없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한쪽은 죄 된 본성이, 다른 쪽은 하나님의 영이 대변하는 두 큰 원리가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아직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을 투입하셔서 육신에 맞서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만큼 많은 힘이 필요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싸움을 맡으시려고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갈라디아서의 성령과 육신의 갈등은 무엇보다 우리 가슴속에서 두 마음이 뒤틀리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 갈등은 (로마서 7장에서 묘사된 것과 비슷한) 우리 내면의 썩 없는 갈등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집안 식구들이 서로 대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내가 혼자 있을 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입니다. 물론 우리 안의 갈등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자신 안에 육신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충동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 큰 주제의 틀 안에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빠르게 들어가 본 뒤, 우리는 먼저 이 편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되었는지를 모아 봅니다. 바울은 성령과 육신의 갈등을 편지 끝부분에 가서야 다룹니다.

12.3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인

-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습니다(1:4).
- 이 악한 세대(또는 지금의 시대 흐름)에서 건져 내심을 받음(1:4)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2:4; 5:1)
-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2:16-17)
- 율법에 대하여 죽음(2:19)
- 하나님에 대하여 삶(2:19)
-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2:19)
-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 사심(2:20)
- 그리스도께 사랑받음(2:20)

- 성령을 받음(3:2, 5)
- 믿음으로 복을 받은 자(3:9)
-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됨(3:13)
- 성령의 약속을 받음(3:14)
-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3:21-22)
-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들(3:26)
-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3:27).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3:28; 5:6).
-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그분의 소유)입니다(3:29; 5:24).
- 양자 됨을 위하여 속량됨(4:5-6)
-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4:6).
-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4:6).
-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4:7)
-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십니다(4:19).
- 성령을 따라(성령으로) 난 자(4:29)
-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음(5:8, 13)
- 우리는 성령으로 행합니다(5:16, 25).
-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5:18).
- 우리는 성령으로 삽니다(5:25).
-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5:21)
- 영생(부활 때에)(6:8)
- 믿음의 가정들(6:10)
-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6:14)
- 새로운 피조물(6:15).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엄청난 총합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직설법, 곧 “이미” 이 땅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목록을 자세히 마음에 새긴 뒤, 우리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육신과 그 욕심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를 다루겠습니다.

12.4 율법과 육신 – 한 기어 장치 속의 두 톱니바퀴

바울은 어쩌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육신의 정욕과 육심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룰까요? 그는 율법이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오히려 율법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옛 삶을 다시 끌어냈습니다. 율법은 그 금지 조항과 계명으로 죄와 육신의 정욕을 부추깁니다(로마서 7장 참조). 바울은 곧바로 그 증거를 내놓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의 계명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계명이기도 한) 계명조차 그들에게는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서로 친절하게 대하기는커녕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갈 5:15). 율법에 충실하다는 주장과 현실 사이에는 큰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육신과 율법은 한 짝입니다. 율법은 거둬나지 않은 자연인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이른 사람에게서 끊어지는 이 연결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이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옛 사람을 다시 살려 낸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 안에서 사는 생명의 새로움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 줍니다.

12.5 아주 오래된 우주적 갈등과 지금 여기의 개인적 갈등

인류 역사의 처음에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여자의 후손과 뱀, 곧 마귀의 후손 사이에 원수 관계가 놓였습니다(창 3:15).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시며,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뱀의 머리를 짓밟으실 것입니다. 이 원수 관계, 결국 빛과 어둠의 대결은 우주적이고 어디에나 있는 성격의 것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새 생명과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들어오심으로써, 이제 거기에는 결코 맞추어질 수 없고 그 방향을 결코 하나로 만들 수 없는 두 대립되는 극이 있습니다. 두 본질 사이의 전쟁입니다. 두 장군, 곧 성령과 육신이 서로 마주 서서 싸웁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과 성령의 대결이 벌어지는 무대이자 그 대상이며, 싸움터이자 싸움의 상급이다.”⁶² 두 적수는 휴전을 모릅니다. 결코 모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육신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늘 지니고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하신 영도

62. H. 슐리어(H. Schlier), *Galater*, 181쪽, E. 마우어호퍼(E. Mauerhofer), *Der Kampf zwischen Fleisch und Geist bei Paulus*에서 재인용.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이 갈등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계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이 이 싸움을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날마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승리하시리라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예외, 곧 실족은 이 규칙을 확인해 줄 뿐입니다!

12.6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으로).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16-17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따라 사는 대신 하나님의 영으로 행해야 했습니다. 육신과 그 작용에 자리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육신은 펄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정욕과 욕심은 강한 힘이며, 육신이 살아 있다는 징후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자기중심적인 목표를 이루고 쫓는 모든 부당한 욕심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짐작하지 못했을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같은 일을 성령으로 할 수도 있고 육신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의 근원과 동기와 목표가, 그 사람이 그 일을 성령 안에서(곧 영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는지 육신 안에서(곧 육신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내 옛 삶의 옛 주인은 권세를 잃었으며, 육신, 곧 죄가 그 주인을 구현합니다. 옛 주인은 더 이상 아무 권한도 권리도 없지만 아직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 곁에 있지 않고 이 땅의 몸 안에서 사는 동안, 그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길을 갑니다. 육신은 생물학적인 몸과 같은 것이 아니라, 혼과 영이 몸을 도구로 쓰듯이 오히려 몸을 이용합니다. 육신의 일에는 손과 발로 저지르는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과 감각과 감정의 영역에 속하는 정신적인 것들도 포함됩니다(교만, 고집, 멸시, 배은망덕, 미움, 부정확한 생각, 생각 속의 간음, 그릇되거나 지나친 야망, 오컬트, 그 밖의 많은 것).

육신은 성령께 맞서며 자기의 옛 권리를 주장하려 합니다. 육신은 한때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죄 된 습관을 프로그래밍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소유권과 지휘권을 넘겨받으셔서 육신과 그 습관에 맞서 진을 치셨습니다. 이 옛 프로그래밍은 내가 구원받은 날(나의 개인적인 구원의 전환점이자 회심의 날)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그것을 그것이 있어야 할 곳, 곧 죽음으로 보내십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나의 육신과 성령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것을 말합니다(벧전 2:11). 야고보는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싸운다고 말합니다(약 4:1; 1:13-15도 참조). 정욕은 먹을 것을 받고 채워지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12.7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일함 – 서로 맞서는가?

신약에서 우리는 자주 행동하라는 요구를 받지만, 동시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성령 안에서 행하라”)은 구원의 명령법입니다. 그것은 “능동-수동형”입니다. 행하는 것은 우리이지만(능동),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수동).

육신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는 것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바울은 이 말로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이 갈등에 세 당사자가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육신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며, 한쪽 편을 택하는 책임 있는 인격인 내가 있습니다. “...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짧은 문장에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1. 우리는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5:13).
2. 싸움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치르십니다.
3. 우리(우리의 자아)는 당사자로서 이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12.8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 그런데 그것은 어떤 자유인가?

성령과 육신의 갈등의 표어(5:1), 곧 이 편지의 메시지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같은 숨결로, 모세의 율법에서 얻은 이 자유를 육신을 위한 면허장으로 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모세의 율법 밖에서는 새로운 법, 곧 그리스도의 법이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6:2)! 새로운 법은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법으로 우리 삶을 빚으시며, 그 효과는 성령의 열매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유는 법 안에서 생겨나지, 법 밖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기관차는 언제 가장 큰 자유를 누리는가? 돌과 그루터기 위를 덜컹거리며 넘어갈 때인가? 물론 아니다! 기관차는 선로 안으로 ‘강제’될 때 매끄럽고 막힘없이 달린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기관차가 매끄럽고 빠르게 달리려면 선로의 ‘질서’와 ‘규율’이 필요하다.”⁶³ 바울은 이 선로를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행함”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성령의 다양한 열매가 자라고, 동시에 육신의 일은 점점 더 사라집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동시에 모세의 율법을 이룹니다(5:14; 롬 8:3도 참조).

여기서 핵심은 율법의 영역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골고다에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갈 2:19; 롬 7:6). 이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아무 법도 통하지 않는 무인 지대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땅입니다. 목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은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성령과 육신의 갈등은 새 생명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삶의 방식(율법과 성령)은 서로를 배제합니다.

12.9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 갈등에서 우리는 실제로 일종의 구경꾼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과 육신이 우리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전혀 할

63. 제이 E. 애덤스(Jay E. Adams), *Grundlagen biblischer Lebensberatung*, 256쪽.

수 없습니다. 그 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육신의 일을 내고,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냅니다. Albrecht 성경(독일어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옮깁니다. “육신은 그 욕망을 가지고 성령께 원수처럼 맞서고,

성령도 마찬가지로 육신에 맞선다. 둘은 서로 싸우고 있어서, 너희가 너희 뜻대로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이 대결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품었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신과의 싸움은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마치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를 비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휴가를 떠나 성령께서 싸우시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뜻하는 바는, 육신과의 싸움이 우리 자신의 경험에 속하지만,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면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지는 있지만 수단은 없습니다. 이 갈등은 나의 영혼, 곧 나의 마음에서 벌어지지만, 거기서는 새로운 군 지휘관이신 성령께서 지휘권을 잡으셨습니다.

12.10 싸움의 한가운데서

이 본문을 Neue Genfer Übersetzung(NGÜ, 독일어 성경 번역본)의 말로 다시 읽어 봅시다.

“내가 하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본성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 욕망으로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영은 그 소원으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 둘은 서로 다투고 있으며, 각각 여러분이 다른 쪽이 재촉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 합니다.”

이 육신과 성령의 갈등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중립적인 자아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그 행동의 추진력을 육신에서 얻거나 성령에게서 얻습니다. 우리는 결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갈등의 초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적인 대결 속에, 유혹과 시험 속에 서 있다면, 나는 분명하게 결정하고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대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인격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모두 대변하신다 해도 ... 그분은 결코 그대 자신의 의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그대가 스스로 책임지고 내려야 할 결정에서 그대를 면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 그런데도 그분이 그대 마음의 모든 구역을 다스리신다면, 그분이 그렇게 그대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신다면, 그것은 오직 그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기쁜 동의로만 일어난다. 그리고 바로 이 거부할 권리가 그대를 사람으로서 동물의 세계 위로 들어 올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대를 도덕적 존재로 만든다. 그대가 하나님을 마주 사랑하고 그렇게 그분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오직 이것뿐이다. 그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쁜 '예'는, 그분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우주의 무한함 속으로 던져진 수백만 세계의 흥미진진한(흥미로운) 모든 경이보다 더 큰 기쁨으로 창조주의 마음을 채운다. 그 세계들은 모두 그분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 자유롭게 선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 자신이 되고 사람이 되는 특권은 그대가 하나님을 알고 택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것이 그대만의 개인적인 특권이다.”⁶⁴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은 승리가 보장된 자동 장치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좌우명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그분 가까이 머물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성령을 택하고 육신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책임은 결코 서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만 말하면, 우리는 수동성에 빠져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와 책임만 끊임없이 바라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기려는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이라면 우리는 자기 힘으로 싸우다가 경직될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새로운 삶의 규칙과 그 규칙대로 살 힘을 함께 주십니다. 그분의 인도는 길 안내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여행 동반자이시며,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12.11 바이러스와 백신

여기에 나의 의지와 육신과 성령의 역할을 보여 주는 비유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내 몸속에 잠복해 있는 병원체를 우리의 육신에 건주어 봅시다.

64. W. 이안 토머스(W. Ian Thomas), *Tote können nicht sterben*, 115쪽.

건강하게 생활하면 병에 걸리는 일은 드물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게 먹고 옷을 충분히 입지 않으면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약을 먹으면(이 결정은 내가 내려야 합니다), 그 약이 내 몸속에서 감기와 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내 몸속에서 일어나지만, 내가 직접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약을 먹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으로 이 싸움을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충분한 휴식과 좋은 음식과 신선한 공기로 약의 효과를 도울 수 있습니다.

12.12 육신의 일이란 무엇인가?

바울은 자기가 육신과 그 일을 무엇으로 이해하는지에 대해 아무 의심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 일들의 목록은 여기 나온 것 말고는 다른 죄가 더 없다는 듯이 모든 것을 다 망라한 것이 아닙니다. 목록의 마지막 말 “또 그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독자에게 이 목록을 이어 갈 가능성을 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자기 육신의 일을 가려내라고 명령합니다.

육신의 일은 그 결과에서나 그 평가에서나 서로 다릅니다. 음행이 맨 처음에 있는 것은 괜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죄”든 “큰 죄”든, 모두 같은 악한 샘에서 나옵니다. 여기 나온 모든 것을 (행동으로나 마음가짐으로나) 우리 육신은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육신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 안에 가능한 모든 죄가 숨어 있다가 언젠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경우처럼 육신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의지하려 했던 율법의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육신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다음과 같습니다(5:19-21).

- **음행**(헬라어 *porneia*) - 음란, 결혼 밖의 모든 성적 활동
- **더러운 것** - 도착적이고 추잡한 것; 결혼 안에서든 밖에서든 성적인 영역에서 거리낌 없는, 곧 수치를 모르는 행동; 삶의 모든 영역을 오염시키는 인격 전체의 타락
- **호색**(방탕) - 무절제, 방종,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
- **우상 숭배** -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그 사람의 삶의 첫자리에서 밀어내는 모든 것을 숭배하는 것(우상 제의뿐 아니라 오늘날의 관념적인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 이기심

- 주술(헬라어 *pharmakeia*) - 마술, 마법, 오컬트, 강신술, 마약
- 원수 맺는 것 -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림, 반목, 미움, 다른 사람에 대한 언짢은 기분
- 분쟁 - 불화, 다툼, 다투기 좋아하는 마음
- 질투 - 시샘, 이기적이거나 그 밖에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행동, 의심
- 분냄 - 격노, 분노의 폭발, 주변 사람에 대한 거침없는 공격, 자기 의견을 격렬하게 고집하는 것
- 다툼 - 언쟁, 음모
- 분열 - 흩어짐, 사이가 틀어짐, 반목
- 당파⁶⁵ - 이단, 분열, 분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패거리 짓기
- 투기 -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버릇
- 살인 - 미움, 살인(생각 속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 술 취함 - 지나친 음주, 취한 상태
- 방탕한 잔치 - 흥청망청 마시고 먹는 술판, 폭식, 탐닉
-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일을 정상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죄를 자백하지도 버리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미래가 없습니다(5:21).

12.13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아버지와 아들께서 기뻐하시고, 그 열매로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기쁨이 되는 그 귀한 열매는 하나님의 영께서 신자 안에서 맺으십니다. 열매가 자라게 하는 일은 내가 이를 수 없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⁶⁶(고전 3:6). 나 자신은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좋은 토양을 마련하려고 애쓸 수 있고, 육신의 잡초를 막고 뽑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물을 주는” 일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65. Elb 2003(독일어 성경 번역본)의 각주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성경 번역본의 본문에는 여기에 “분파”(Sekten)라고 되어 있습니다.

66. 마태복음 6:28도 참조.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강조는 저자).

일에서 우리는 “기적과 같은 면”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미움으로 가득한 죄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사랑하는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 어떤 표적과 기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하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음과 같습니다(5:22-23).

1. **사랑** - 자기를 희생할 준비가 된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는 특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며,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모든 것이 가치가 없습니다(고전 13장).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2. **희락** - 성령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 백성의 구성원들이 함께 누리는 기쁨, 그들의 모임에서도 누리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일, 지금 하시는 일, 그리고 그분의 약속대로 하실 일에 대한 참된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기쁨
3. **화평** - 다툼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화해, 따뜻한 어울림, 하나 됨, 온전함
4. **오래 참음** -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인내와 너그러움; 이웃과 형편을 꾸준히 견디려는 마음; 수동적이지만 끈질긴 쪽에서 본 사랑
5. **자비** - 호의적이고 늘 도우려 하며 이해심 있는 태도, 온화한 성품, 너그러움; 사랑의 능동적인 측면
6. **양선** - 진심 어린 선함, 자비와 비슷함; 다른 사람에게 옳고 선한 것을 주는 것
7. **충성(믿음)** - 하나님을 신뢰함; 믿을 만함과 정직함과 신의의 덕; 언제나 자기 말씀을 지키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것
8. **온유** - 부드러움, 힘과 너그러움(이에 꼭 맞는 독일어 낱말은 없습니다); 이기심과 지나친 요구의 반대; 자기 자신에 대해 낮은 마음을 품는 것
9. **절제** - 자기 다스림, 자기 훈련과 자기 통제, 균형 잡힘.

열매, 곧 열매들은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이 “목록”도 앞의 목록처럼 모든 것을 망라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이 목록에서 정확한 정의를 찾기도, 서로 경계를 짓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⁶⁷ 이 모든 윤리적 특성과 덕목을 보면, 사람이 자기 삶에서 이것들을 어느 정도 꾸준히 경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핵심 줄기를 다시 붙잡으면서 목록을 마무리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23절). 다시 말해 성령께서 함께 계심으로 이 덕목들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면, 율법은 상관이 없어집니다. 성령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토라가 더 이상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12.14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대해 가장 분명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 육신이 받아 마땅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뿐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육신을 그 정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24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이 일을 **단번에**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옛 삶을 정죄하고 그것과 결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없는 삶과 이 하나님 없는 삶의 추진력이던 것, 곧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인정했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옛 사람에 대한 사형 선고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정욕과 욕심을 생명의 묘약처럼 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간 믿음의 걸음으로 우리는 그것과 결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것은 죽음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더 이상 우리 삶에서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죽임을 당했는데도, 육신은 그 일들과 함께 아직 여기 있습니다. 육신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고칠 수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로마서의 말씀(롬 6:11)과

67.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 *Fleisch oder Geist?*, Augsburg, 1968.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셔서, 죄의 독재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육신의 끝이요, 옛 사람의 끝이요, 옛 자아의 끝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리고 이 앞 없이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흔히 좋은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육신이 한 번 - 그리스도와 함께 -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새 삶의 출발입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 뒤에,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육신의 개별적인 일들입니다. 육신은 매복한 채 “게릴라전”을 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공격들을 “죽여야” 합니다(롬 8:13; 골 3:5). 죽인다는 것은 그것들이 되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옛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고 그 때문에 죽으시는 데 그분이 치르신 대가를 마음에 되새깁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늘 새롭게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판단에 이르고, 이것이 육신에 단호히 맞서도록 나를 돕습니다.

12.15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뒤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스스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로 묘사된다면, 그것은 동전의 한 면일 뿐입니다. 다른 면은 바울이 이 편지의 첫머리에서 묘사합니다.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⁶⁸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으로, 곧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19-20

이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를 가장 적절하게 묘사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삶, 곧 나침반 바늘이 늘 우리 자신을 가리키던 자기 결정의 상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이 옛 삶에서 참으로

68.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는 이 자리에 있는 Elb 2003 각주의 표현을 옮긴 것입니다.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 앞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삶을 잃고 자기 결정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무엇이 올지 생각하면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우리를 그렇게 “프로그래밍”했고, 이 “소프트웨어”는 아직 우리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지금 모습과 가진 것에 매달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옛것 대신 무엇을 두시는지 너무 적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나는 죽었다, 나는 산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산다. 이것은 너무나 강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쉽게 붙잡기 어렵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럴 리가 없다. 사람은 여전히 그 자신이 아닌가, 그대는 여전히 지금의 그대라는 인격이 아닌가? 어떤 이들은 여기서 사람을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해결책을 찾았다. 영이 살 수 있도록 몸과 혼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말을 서구적인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 되고, 그 말이 의도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이 겨냥하는 대로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아담 안에서의 삶은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시작된다.”⁶⁹

참으로 우리는 우리 삶에 이토록 중심적인 이 성경 구절을 될 수 있는 대로 단순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대는 언제나 그대 자신으로 남을 것이며 다른 누구도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은 전날 저녁에 잠자리에 든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대가 남은 날 동안 함께 지내야 할 사람은 바로 그대 자신이다. 그러나 둘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분은 그대가 그대 자신 아닌 다른 누구이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그대가 이제 참으로 그분이 그대를 위해 정하신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

나의 자아(내 안에서 죄를 짓는 바로 그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사는 것은(그리스도께서 나에게서 만드신 바로 그 나),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갈 2:20) … 그대가 믿음으로

69. H. P. 메데마(H. P. Medema), *Romeinen 7 enzovoorts*, 80쪽.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대의 자리를 차지할 때, 그대는 그대 자신의 인격에서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오히려 그대의 인격은 변화를 경험한다. 그대는 그저 다른 지휘 아래로 들어갈 뿐이다. 그래서 그대에 대해 이렇게 말하게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⁷⁰

이제 옛 사람과 옛 자아 대신 다른 분이, 그것도 그분의 충만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서십니다. 이것은 승리자의 생명,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제 내 삶 속으로, 내 인격 속으로, 곧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그곳에 영원히 머무시는 분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됨입니다! 기독교의 표지는 빈 십자가, 빈 무덤,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밖에서 나에게 지워진 생활 개선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새로워진 마음에서 나오는 새 삶입니다. 일하시는 분, 나의 새 삶을 위한 다함이 없는 힘의 원천이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영적인 일들”(성경 읽기, 기도, 전도 등)의 원천일 뿐 아니라, 내 삶 전체의 원천이시며, 나의 일의 원천이시기도 하고, 그야말로 내 삶의 매 순간의 원천이십니다. 나는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그리고 각 사람을 위해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써 비로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12.16 날마다 십자가를 지다

예수께서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려는 각 사람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23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눅 14:27; 마 10:38; 16:24; 막 8:34도 참조).

“(예수께서) 또 모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70. W. 이안 토머스(W. Ian Thomas), *Tote können nicht sterben*, 106쪽 이하.

주 예수께서는 여기서 (흔히 고통스러운) 자기 부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 자기 자아, 자기 목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이요 선생이신 분을 따릅니다. 나의 **자아**는 죽음에 넘겨졌고,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의식적으로 지고 처형장까지 끌고 가는 것이 제자의 날마다의 의무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이 강렬한 예로 분명히 하시는 것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곧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의 십자가에서 잃는 사람은) 참된 생명, 충만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마 10:39). 그런데 예수의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과 관련해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에게서는 육신의 악한 일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반드시 악하지는 않은 것들도,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인 것들도 염두에 두십니다. 그 자체로는 좋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수를 철저히 따르지 못하게 붙잡는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십자가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을, 나의 특성과 나의 형편을 겨냥합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아직 육신이 보이는 영역들입니다. 나의 자매와 형제의 십자가는 아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데는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또한 가장 처참한 구경거리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영예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12.17 성령으로 살고 행하기: 존재와 비존재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자.

갈라디아서 5:25

십자가는 하나님의 철저하심으로 옛것을 끝냈습니다. 육신이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고,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이며,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여기서 성령은 이 새 생명의 근원이요 힘이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산다는 말과 행한다는 말, 이 두 단어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무엇이 둘을 구별할까요? 산다는 것은 새 사람의 심장

박동입니다. 곧 새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새 사람은 구속자이시며 부활하신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을 구현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걸작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조각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 지음 받은 새롭고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자기의 본, 곧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시며 창시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행합니다. 행한다는 것은 단지 **존재하는 것**(사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도** 뜻합니다. 생명은 움직임과 생동감을 요구합니다. 행한다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은 언제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동차는 달리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연료 탱크가 비면 차를 밀어야 합니다. 전기 모터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란 성령께서 능력 있는 지휘자, 지혜로운 교사, 인내심 많은 코치로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곁에 머무르신다는 뜻이다. 이 ‘인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⁷¹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제 계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우리의 것이라고 부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를 소유하고 이끌고 인도하시겠다는 그분의 요구에 우리 자신을 내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불을 거둬들여, 또 서로서로 불붙여야 합니다.

12.18 성령으로 행하기 – 어떻게 하는가?

어쩌면 이미 눈치채셨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 전체가 “성령을 위한 변론”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완전히 제외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참된 해방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한 영혼에게 가장 자연스러운(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해결책은 율법으로 해 보는 것이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정반대의 것이다.”⁷² 율법의

71. H. P. Medema, *Romeinen 7 enzovoorts*, 138쪽.

72. F. W. Grant, *Numerical Bible*, 제6권, 313쪽.

도움을 받으려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담고 있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사는 삶을 실제적이고 느낄 수 있는 경험으로 그냥 전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본론 자체가 성령의 인도의 특징들을 보여 줍니다.

- 율법(또는 어떤 법)을 삶의 규칙으로 삼지 않기
- 그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부르심 앞에 서고, 그분께 우리 삶의 주권을 드리겠다는 의식적이고 거듭되는 결단 앞에 섭니다.
- 우리의 육신이 악하고 아무 쓸모가 없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 다른 사람들을 향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주의하기
- 육신의 일을 허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 나는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사십니다.
-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노력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분께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기대하기
- 내 안에 있는 육신과의 싸움에 집중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에 집중하기.

12.19 넘어지고 일어서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어떤 실족에 갑자기 붙잡히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게 하라.

갈라디아서 6:1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신적인 감염’이 터져 나왔다는 뜻이지 … 신적인 완전함이 시작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처음에 율법의 영감을 일으키셨던 바로 그분의 인도 아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에 갑자기 붙잡히는’ 일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⁷³ 우리가 늘, 그리고 오직 승리 가운데서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성령과 육신의 갈등은 싸움이라는 은유를 사용하는데,

73. Gordon Fee, *Der Geist Gottes und die Gemeinde*, Metzingen, 2005, 192쪽.

싸움에는 패배도 따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이지만, “아직” 목표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는 우리에게 확실하지만, 전선에서는 이따금 이런저런 진지가 적에게 짓밟히기도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 곧 실족한 사람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온유함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신자들의 살아 있고 신뢰에 찬 활발한 교제, 함께하는 삶, 주 안에서의 우정은 성령과 욕신의 갈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 격려할 때에도 그렇고, 바른 길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게 도울 때에도 그렇습니다. 이때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도 같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이 영적인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욕심과 정욕과 유혹을 지닌 욕신은 그들 안에서 늘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실족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갖가지 실족에 대해 바로잡기를 위한 똑같은 하나님의 비상 계획이 적용됩니다. 실족이란 범죄요, 발을 헛디딤이요, 믿음의 경주로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실족에는 죄, 욕신의 일, 시험에 굴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은혜 아래 서 있고 은혜 아래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이런 패배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규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패배가 우리의 날마다의 경험이라는 것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죄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12.20 바른 길로 돌아오기

실족한 뒤에는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실족은 언제나 영적인 손상을 가져오며, 그 손상의 크기는 실족의 종류와 영향 범위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곧 실족한 뒤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계속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죄를 무심히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바른 길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나를 되도록 빨리 이끄셔서, 내가 나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하고 드러내게 하십니다. 나는

(빛의 자녀로서)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곧 그 일로 괴로워하고), 자백하며(곧 시인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의식해야 합니다.

12.21 하늘에 계신 우리의 돕는 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무언가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 그리스도께서 이때 우리를 위해 돕는 이로 일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만일 누가 죄를 지었다면 -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1

우리의 돕는 이요 대언자이신 분은 의로우신 분이로서 그분의 희생 제물로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삶에 죄가 생기면, 그분은 실족한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일하십니다. 돕는 이께서 돌보시는 것은 우리이지, 그분이 함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시도록 아버지를 달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곧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자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셔서, 우리가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는 아버지와의 영원한 생명의 연결을 끊지 못합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죄를, 장래의 죄까지도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엡 1:7; 4:32; 골 1:14; 2:13; 3:13; 히 10:18; 요일 2:12). 덧붙여 말하면, 이것이 구약과의 큰 차이입니다. 구약에서는 예를 들어 다윗처럼 신자들도 용서를 구합니다. 십자가 이후로는 이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뉘우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죄를 보여 주면, 우리는 그 죄를 자백하고 물론 버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9). 완전한 용서는 회심한 날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12.22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그래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까요? 고행으로 우리의 죄책을 갚아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았으니 실족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피해 갈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 우리는 모두 자주, 그리고 여러 면에서 실수합니다(약 3:2) - 우리는 그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자백한다는 것은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자백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실제 있는 그대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옮기면 “같은 것을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를 죄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변명하거나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죄 자백이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갈 죄책을 지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책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신자에게 있는 죄는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실제적이고 경험할 수 있는 교제가 손상되며, 육신에 속한 삶으로 말미암아 방해받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녀는 두 사람이 서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자녀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도 여전히 자녀입니다. 하지만 참되고 살아 있으며 동시에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누리려면 방해 요소를 모두 치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 방해 요소는 오직 우리 쪽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켜서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품에 거둡거둬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자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늘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는 그 죄가 죄가 아니었던 것처럼 반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육신의 힘으로 너무나 교만해져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가능한 온갖 변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 때가 많은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거듭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백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우리가 그래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시는 것을 우리의 성과에 달린 것으로 만듭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영원히 받아들여졌으며,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듯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우리의 죄 때문에 줄어들지 않고,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커지지도 않습니다!

바로잡음과 영적 회복과 치유가 하나하나 어떻게 진행되고 경험되는지, 또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언제나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에 어떤 앞선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죄가 뜻밖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이미 습관이 되었는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죄들의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하더라도, 죄를 자백한 뒤에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흐림 없고 방해받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12.23 자백하기

신자로서 우리 삶에 있는 죄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신약이 별로 많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서로에게 지은 죄들은 서로 고백하고(약 5:16)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엡 4:32; 골 3:13).

고린도에서는 음행 가운데 사는 한 남자를 교회가 권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로잡음은 슬픔과 근심과 회개, 그리고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것을 뜻했습니다(고후 2:5-11; 7:9-11).

-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그 죄의 이름을 불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마칠 때 모든 죄를 “뉘오려고” 뭉뚱그린 자백을 하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와서 “오늘 제가 한 나쁜 일을 모두 아버지께 고백합니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자백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십니다.

- 우리는 하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즉시 나는 그 죄를 곧바로 자백합니다. 우리는 하루가 끝날 때까지 죄를 우리와 하늘 아버지 사이에 그대로 세워 두거나 그냥 잊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 어떤 성경 집회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지은 죄도 아버지와의 교제를 해치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예”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의식하지 못한 채 죄 된 일을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일은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니지만, 일어납니다. 때로는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없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원한다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짓는 모든 죄를 다 자백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교제는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손상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영혼 돌봄”, 곧 목자의 섬김을 강조합니다. 이 섬김은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섬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더 자세히 다루지 않을 주제입니다. 바로잡음은 모든 실족에서 필요합니다. 큰 실족일 때는 작은 실족일 때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악한 생각 하나는 우리를 믿음의 경주로에서 내던지는 실족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자백해야 합니다.

12.24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 그런 구분이 있는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실족에 갑자기 붙잡혀 넘어졌거나 시험에 빠진 사람을 다시 (영적인) “두 발”로 일으켜 세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 묻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누구입니까(갈 6:1 참조)?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졌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모두 영적인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교회의 직분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빛으신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며, 그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눈에 띕니다. 영적인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육신의 갈등 속에서 성령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넘어진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집안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인 형제자매들과 구별되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실족 한 번으로 사람이 자동으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족”이나 “범죄”는 나의 삶 전체를 특징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나의 생각의 세계가 이미 오래전에 시험에 굴복했고, 그 결과로 내가 실제로 넘어진 경우일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믿음에 이르렀을 때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에 자신을 굴복시키려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곧 죄 많고 썩은 육신의 힘으로 장성하고 온전해지려고 시도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율법의 틀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육신이 활동하게 됩니다(갈 3:3). 그 결과 갈라디아 사람들은 서로를 맹수처럼 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령의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릅니다(고전 3:1-3). 그들은 이미 여러 해 전에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영적인 성숙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다. 고린도 교회의 형편은 우리가 잘 압니다. 다툼과 분열로 얼룩진 이 모든 행동이 합쳐져 그들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많은 적든 자기 육신(감각적인 것, 이 세상의 것, 자기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힘)의 인도를 받습다. 그는 육신의 행실이나 육신의 일과 진지하게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오직 죄의 자백(요일 1:9)과 새로운 헌신(롬 6:13; 12:1-2),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 있는 역사로만 이루어집다.

그러나 이미 수십 년 동안 믿어 온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눈에 띄는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임이 드러납다. 그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이 그러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성령을 모시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오랜 기간(들) 동안, 심지어 평생 동안 육신의 생각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심판 때에 그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모든 일은 불타 버리고, 그 사람 자신은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이를테면 간신히 구원받을 것입니다(고전 3:15).

이 질문에서는 영적인 성장이 큰 역할을 합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장성했다는 뜻입니다. “영성⁷⁴의 전제 조건은 시간이다. 고린도전서 2:15에서 **신령한 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몸이 자라는 데 시간이 걸리듯이, 영적으로 자라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누구도 거듭나자마자 곧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⁷⁵

12.25 성령과 육신의 갈등의 본질

성령과 육신의 갈등이라는 핵심 줄기를 끝까지 따라가 봅시다. 성령과 육신은 우리 삶에서, 일상에서,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서 원수처럼 맞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표에 이를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은 먼지 쌓인 이론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험입니다. 성령과 육신은 그 열매로 틀림없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둘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놓고 싸웁니다. 우리 자신은 언제나 이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하지 않는 모든 일은 이 두 근원 가운데 하나에서 힘을 공급받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몸이나 생각의 모든 움직임은 두 근원 가운데 하나에서 그 추진력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결국 결정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라고 하든지 “아니요”라고 합니다! “이 싸움에서 사람들 자신이 맡는 특별한 역할은 수동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다. 그들은 이 싸움의 흐름을 결정하는 선택을 내려야 한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진지한 결단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것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엄청난 저항을 이겨 내려고 의지를 힘껏 쥐어짜는 결단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하나님의 활동에 자신을 맡기고 그저 그분의 인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는다.”⁷⁶

74. 여기서 “영성”을 “현대적인 종교성”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저 “영적인 성숙”, “영적인 마음가짐” 또는 “영적인 본질”을 말합니다. 인용문이기 때문에 본문의 해당 단어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75. Arnold G. Fruchtenbaum, *Gesetz und Gesetzlichkeit*, Hünfeld, 2010, 109쪽.

76. Charles B. Cousar, *Galatians*, 138쪽.

새로운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루시는 데 있습니다. 그 기준은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 씨를 뿌리고, 언젠가 그 열매로 영생을 거둔다는 뜻입니다(갈 6:8).

“그리스도의 승리를 적용하고 온전히 누리려면 단 한 번의 믿음의 행위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믿음의 태도 전체를 요구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산에 넣는 것이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그리고 이 순간에 그분을 계산에 넣은 것으로 다음 순간까지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⁷⁷

육신은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성취와 만족을 찾게 하며, 끊임없이 죄로 기울어집니다. 성령은 위로, 그리스도께로 끌어올리십니다. 위로 끌어올림을 받으시다! 글라이더는 스스로 이륙할 수 없습니다. 방향을 잡고 바람을 이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글라이더는 위로 끌어올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계신 위의 것을 생각합시다!

77. W. Ian Thomas, *Tote können nicht sterben*, 111쪽.

13. 새 사람과 옛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바울은 **새 사람**에 대해 세 번만 말합니다. 골로새서에서 한 번, 에베소서에서 두 번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영화롭게 되신 인자를 본으로 삼아 **한** 새 사람을 지으시는 동시에 **많은** 새 사람들을 지으십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행동 규범에 자신을 맞추어 그저 달라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지으신 것과 똑같이 새 사람의 창조도 실제입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 옛것을 새것과 맞바꾸는 이 교환은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이며, 거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 곧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자라납니다.

새 사람은 구속받은 죄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었는지를 구현합니다. 이 개념을 사용하는 바울의 두 편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새로운 구원의 신분이 지닌 여러 측면을 묘사합니다. 값없이 받은 이 많은 구원의 측면들을 모두 합친 것을 **새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는 그가 화평을 이루시며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으시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2:15

“... 너희는 이전의 생활 방식에 관하여는 거짓된 욕심을 따라 찢어져 가는 **옛 사람**을 벗어 버렸고, 너희 마음가짐의 (또는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또는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며,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라.”

에베소서 4:22-24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너희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니,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되는 자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⁷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서 3:9-11

이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갈라디아서에서 했던 것처럼 이 두 편지에서도 많은 구원의 측면들을 모아 보겠습니다.

13.1 에베소서에 나타난 새 사람

- 거룩함 (1:1, 4)
- 복을 받음 (1:3)
- 택함을 받음 (1:4)
- 흠이 없음 (1:4)
- 하나님의 자녀 됨 (1:5)
- 은혜를 입음 (1:6)
- 인 치심을 받음 (1:13)
- 살리심을 받음 (2:5)
- 하늘에, 곧 하늘의 세계에 함께 앉힘을 받음 (2:6)
- 구원을 받음 (2:8)
-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은 **그분의 작품**(그분이 만드신 것, 그분의 피조물)입니다(2:10).
- 우리는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으나 가까워졌습니다(2:13).
- 우리는 **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2:15).
-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 (2:16)
-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 (2:18)

78. 흑해 연안에 살던 기마 유목 민족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 함께 시민 된 자 (2:19)
- 하나님의 권속 (2:19)
- 함께 상속받을 자 (3:6)
- 함께 지체가 된 자 (3:6)
-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 (3:6)
-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짐 (3:16)
-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계십니다(3:17).
-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됨 (3:19)
- 빛의 자녀 (5:8).

13.2 골로새서에 나타난 새 사람

- 거룩함 (1:2, 22)
- 빛 가운데서 받을 기업에 합당하게 됨 (1:12)
-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음 (1:13)
-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 (1:13)
- 그 아들 안에서 구속을 얻음 (1:14)
- 죄 사함 (1:14)
- 화목하게 됨 (1:22)
- 흠이 없음 (1:22)
- 책망할 것이 없음 (1:22)
-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1:27)
-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 (1:28)
- **그 안에서 완성됨 - 충만하게 됨** (2:10)
-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할례를 받음 (2:11)
- 그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음 (2:13; 3:1)
-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2:20; 3:3)
-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3:4).
-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3:12).

이 인상 깊은 “구원 목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무엇인지를 환하게 비추어 줍니다.

13.3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나타난 옛 사람

옛 사람이 누구이며 무엇인지 설명하려 한다면, 이 편지들은 그것에 대해서도 알려 줍니다.

에베소서

- 허물과 죄로 죽음 (엡 2:1; 5:6 참조)
-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조종과 조작을 받음 (2:2)
- 불순종의 아들들 (2:2)
- 육신의 욕심에 따라 좌우됨 (2:3)
- 본질상 진노의 자녀 (2:3)
- 그리스도 밖에 있음 (2:12)
-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2:12)
-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 (2:12)
- 소망이 없음 (2:12)
-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삶 (2:12)
-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4:17)
- 총명이 어두워짐 (4:18)
-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 (4:18)
- 마음이 굳어짐 (4:18)
- 건강한 감각이 없음 (4:19)
-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함 (5:5)
- (도덕적으로) 완전히 어둠 (5:8).

골로새서

-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음 (1:13)
-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움에서) 멀리 떠나 있음 (1:21)
-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 됨 (1:21)
- 화목하지 못함 (1:22)
- 불순종의 아들들 (3:6).

이로써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정해졌습니다. 옛 사람은 완전한 구원의 전환이 일어나기 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 안에서 창조 행위로 새 사람을 지으시기 전의 옛 생활 방식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옛 삶과 대조되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나 새롭고 더 나은 행동 양식을 그저 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서도 강한 절제로 자기 삶을 더 나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새 사람”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있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행동할 수는 있어도, 육신에 있는 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행동 양식이 아니라 변화의 다른 차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개혁이 아니라 참된 새 창조, 곧 사람 안에 새 생명을 지으시는 일입니다. 이 새것, 곧 새 생명은 구체적으로 한 인격, 곧 그리스도이십니다(요일 5:11-12; 골 3:4, 11).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옛 사람에게는 안타깝게도 더 이상 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3.4 새 사람의 창조 이야기

새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곧 의와 거룩함과 진리 가운데 지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단지 새로운 행동 양식이 아니라 새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도덕적, 윤리적 행동도 지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도덕적, 윤리적인 면에서도 새롭게 되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의 마음, 양심, 감정, 영, 생각, 혼에 관계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도덕 및 윤리와 관련이 있고, 도덕과 윤리를 결정합니다.

이 성경 말씀들을 읽으면 첫 사람의 창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여기에 적어도 하나의 평행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창 1:26-28).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이 창조 과정은 사람을 동물과 달리 영과 혼과 몸으로 된 피조물로 만듭니다. 이 세 측면을 언급하는 것은 인간론의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에게 영도 있다는 점을 가리키려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도 자기를 지으신 분 안에서 그에 상응하는 것, 곧 자기의 본을 찾습니다. 누가 새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새것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초의 이야기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사람의 새 창조가 필요하게 된 것은 사람의 완전한 죄성과 도덕적 부패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이제 그와 정반대의 것, 곧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특징지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땅에서 사신 삶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 행성 위에서는 아직 옛 사람들과 새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의 코에 생기, 곧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로써 흙으로 지어진 몸이 살아 있는 존재, 곧 인격이 되었습니다. 이 일에는 하나님의 영도 함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인격으로, 영을 지닌 존재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숨이었습니다. 이제 사람의 새 창조에서는, 아담의 창조와 비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하자면 우리 안에 불어넣어집니다(요 20:22도 참조).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자아와 결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가리켜 새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은 일종의 자리 표시처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합니다. 달리 말하면, 새 사람은 새로운 Hans-Jörg, 새로운 크리스티네(Christine)입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사람에게서 결정적인 것은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그 안에 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본래의 새것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고동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오직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빛어집니다! 다른 어떤 것도(어떤 법이나 규칙이나 결심도, 어떤 노력이나 교육도) 우리 안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본질적 특징(의와 거룩함과 진리)이 온전히 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새 사람의 창조를 비로소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옛 사람의 모든 결과, 옛 사람의 계산서 전체를 십자가에서 떠맡으셨기 때문입니다(롬 6:6). 이 일이 있고서야 완전히 새로운 것을 향한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자신이 새 사람을 지으신 분이 되는 형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원형**이시면서** 동시에 모사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친히 내 안에 거하시고 이 새 생명이 되신다는 점에서 모사이십니다.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전 15:49). 이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증언하는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예를 들어 롬 8:29; 고후 3:18; 요일 3:2).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결국 몸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은 새 사람이 창조된(또는 태어난) 날에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 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시며, 이런 의미에서 “새 사람”이십니다.

13.5 많은 사람이 한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라는 개념은 에베소서에서는 2:15에 처음 나옵니다. “... 이는 그가 화평을 이루시며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으시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새 사람**으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자신이 새 사람의 창조자이십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온 세상의 교회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됨과 공동체성을 새로운 인간 존재의 기본 특징으로 강조하는 측면이 앞에 나옵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이 새로운 공동체는 결국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2:12는 “...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몸이시면서 동시에 머리이십니다.

새 사람은 언제나 단수로 불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새로운 **인간 공동체**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공동체의 머리이시며 시작이십니다(골 1:17-18). 이 공동체는 타락한 아담이 머리인 인간 공동체와 대조됩니다(롬 5:12-21). 그리스도의 온전한 본질, 곧 새 사람의 본질을 삶 속에 비추어 내려면 모든 신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사역에서 개인에 대한 초점은 에베소서 2:10에 나타난다. 거기서 바울은 각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한다. 더 공동체적인 관점에서의 전환은 2:11-22에서 일어난다. 아담-그리스도 모형론은 이 단락의 배후에도 있다. 그러나 에베소서 2:15의 초점은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의 위치, 그리고 ‘아담 안에 있음’과 대조되는 그 개인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있다기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새로운 관계들에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새 사람’을 이룬다. ‘새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자유롭고 동등하게 나아갈 수 있으며 하늘에(곧 하늘의 영역에) 옮겨진 새로운 사회다(2:5-6). ‘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에 따르면 그 지체들 사이에는 분리도 원수 됨도 없고 오직 평화만 있다(2:16).”⁷⁹

새 사람은 우리의 민족적 출신, 사회적, 종교적 배경, 그리고 한때 거기에 결부되어 있던 모든 장점과 단점과 결과와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모든 관계와 연결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관계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이 새 사람 안에서 새로운 집을 찾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의 개인적인 측면, 곧 우리가 - 각자 개인적으로 - 무엇이 되었는지도 관심을 가져 봅니다.

13.6 개인의 인격이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의 “원형”, 곧 본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척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사람의 인격을 이루는 개인적 특징들을 평평하게 깎아 내거나, 획일화하거나, 없애 버리는 획일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방금 설명한, 공동체성과 하나 됨을 강조하는 측면이 어찌면 그런 인상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새 사람은 많은 새로운 피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고후 5:17 참조).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다양성과 개성으로 그야말로 넘쳐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울러 그분의 지혜와 숨씨를 증명합니다. 어떤 나뭇잎도 다른 나뭇잎과 똑같지 않고, 눈송이 하나조차 그 결정 구조가 다른 눈송이와 같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으로도, 인격으로도 어떤 사람도 다른 어떤 사람과 100 % 같지 않습니다.

79. Greg Herrick, *Old Man and New Man in Paul*, 1999, 5쪽.

마찬가지로 각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은 거듭날 때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에 이르면, 겉으로는(행동에서는) 처음에 거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서는 엄청난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 말하자면 하나님의 DNA가 심기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거듭납니다(벧전 1:3, 23).

같은 사람이 이제 바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여기서 더 이상 살지 않는 옛 자아는 옛 사람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인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아가 이제 새 사람, 새로운 자아, 지금 내 안에(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은 새 사람을 가리킵니다. 새 사람은 전과 같은 인격이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결정되고 그리스도 자신으로 충만해진 사람입니다.

“새 생명이 반드시 필요했다. 나라는 존재에 관해서는 모든 노력, 노력해야 할 모든 필요가 끝났다. 나는 내 자아에게 경건을 부여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고후 12:2)에게는 육신과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인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는). 더 나아가 - 가장 참된 의미에서 - ‘나’(옛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해된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그럼에도 나는 산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산다. 그러나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이 ‘나, 더 이상 내가 아니다’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실제로 살아 내는 비밀이요 힘이다. 나는 산다. 물론 인격(개인, 곧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이것은 플라톤적 신비주의가 아니며, 존재의 바다 속에 범신론적으로 녹아드는 것도 아니다. 내 마음을 채우는 기쁨과 나의 삶을 비추는 빛은 나의 것이다. 그것들은 온전히 나의 것이다. 아니, 나는 이제부터 참된 영생, 정말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생명을 산다.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처음으로 ‘참된 생명’(딤후 6:19)을 가졌다.

그분의 평안, 그분의 기쁨,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이 이제 나의 것이다. 그분의 열망, 그분의 목표, 그분의 관심이 이제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나의 것이다. **그분이** 지금 당하시는 버림받음과 **그분의** 장래 영광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사랑의 능력 안에 있다. 그 사랑으로 그분은 자신이 친히 값을 치르고 계산을 떠맡으셔서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다.”⁸⁰

새 사람(곧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은 우리 구주께서 친히 자신을 희생하신 결과요, 그분의 고난의 열매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13.7 새 사람이란 무엇인가?

골로새서 3:11에는 새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첫째로, 그리스도는 새 사람의 본이십니다. 새 사람이 창조될 때에도, 새 사람이 살아갈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새 사람의 삶의 터전이요 소망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골로새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십니다(1:27).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3:4).

그런데 그리스도 자신을 새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창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하십니다. 이전에 아직 없었기 때문에 창조되어야 했던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가장 깊은 곳에 심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하자면 나의 개인적인 인격 속으로 깊이 잠기듯 들어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충만하게 되었습니다”(골 2:10; ER, 독일어 성경 번역본). 곧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인 우리의 존재 전체를 채우고 가득하게 했습니다. “All of HIM in all of me” - “**그분의**

80. F. W. Grant, *Deliverance: What is it?*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 안에”⁸¹. 물론 이렇게 해서 내가 새로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사람, 새로운 Hans-Jörg가 됩니다. “새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새 생명이 그 사람의 내적 존재 전체(속사람, 마음, 생각, 양심, 혼)를 사로잡음으로써 그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선 어떤 감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사실을 뜻합니다!

“옛 사람, 그것은 아담이었다. 더 낮게 말하면, 아담과 하나 된 우리였다. 새 사람, 그것은 그리스도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 자신이다.”⁸²

아서 C. 커스틴스(Arthur C. Custance)⁸³는 이 새 창조의 과정을 신자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시는 것(성육신)으로 묘사합니다. 영원하신 아들이 사람이 되실 때 살과 피를 취하신 것처럼, 이제 참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적인(초자연적인) 의미에서 우리 안에 태어나셔서, 그때부터 자라 가시고 우리 삶 속에서 형상을 이루십니다(갈 4:19도 참조). 이렇게 모든 사람은 거듭날 때 “자기만의 성탄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결국 오직 이런 점에서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일이 그 사람에게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전에 결코 가지지 못했던 재산의 소유자가 된다. 그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창조되지 않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인간적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 심기고, 그의 본질과 존재 전체가 새 생명의 신적인 에너지로 고동친다. 새로운 탄생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아우르는 새로운 본성을 받는 것이다. 이 본성은 사람 안에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낳고, 그가 전혀 새로운 영역에서 살 수 있게 한다.”⁸⁴

13.8 새로운 피조물

여기서 우리는 실제로, 그리고 실체적으로(영적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생겨나 이제 신자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식해 봅니다. “새 사람”이라는

81. W. Ian Thomas, *The Indwelling Life of Christ*.

82. C. K. Barrett, H. P. Medema, *Romeinen 7 enzovoorts*, 79쪽에서 재인용.

83. Arthur C. Custance, *Man in Adam and in Christ*, 273쪽.

84. Ruth Paxson, *Life on the Highest Plane*, 192쪽.

개념과 나란히, 이와 관련된 다른 표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그분의 작품**(결작, 만드신 것)이니”(엡 2:10). 이것은 개인적인 측면에 더 가깝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첫 창조에 그분의 사랑과 지혜와 신적인 능력을 담으셨던 것과 똑같이 새 창조에도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새 창조에서는 그분의 사랑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거기에는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아들의 죽음(뿌려진 밀알, 곧 새 생명의 씨로 상징되는 죽음)이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Elb, 독일어 성경 번역본]; 고후 5:17). 실제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옛 본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옛 사람의 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미 온전하며, 그분은 옛것을 더 이상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에게 …”(갈 6:15-16; Schl 2000, 독일어 성경 번역본). 새로운 피조물은 다른 삶을 가져옵니다. 그 삶은 옛 창조나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새 창조는 안에서부터 우리를 갖추어 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골 2:6 참조).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새로운 피조물도 포함하여)보다 먼저 나신 이시며(골 1:15),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로서 피조물의 시작이요 창시자이십니다(골 1:18; 계 3:14).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죽음이 정복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새 창조는 죽음 저편에서 그분의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시작됩니다(히 7:16).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죽음 저편에서도 파괴될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으며, 썩지 않고, 영원합니다.

13.9 무엇이 새로 창조되었는가?

이 구절들은 정확히 무엇이 새로 창조되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 어떤 “평행 인간”이 창조되어 한 사람 안에 이제 두 인격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구원의 전환점에서 옛 사람의 역사, 곧 옛 사람의 존재 전체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나란히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옛 사람을 대신했습니다.** 새 사람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 개인적으로, 그리고 함께 - 된 모든 것의 정수입니다.

새 창조는 당분간 사람의 내면에 국한됩니다(그러나 그것은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생명과 새 사람에 해당하는 “속사람”에 대해 말합니다(엡 3:16; 롬 7:22; 고후 4:16; 벧전 3:4 참조). 몸은 장래의 변화나 부활 때에 비로소 새 창조에 참여합니다.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이 새 창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 때에 완전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움의 모든 면에서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몸과 혼과 영의 면에서 주 예수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땅에 속한 자로서가 아니라, 그분처럼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러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 우리의 인격에 관한 한 - 한편으로는 전과 같은 사람으로 남아 있으면서 동시에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인격으로 원하십니다(곧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로 태어난 모습 그대로, 그리고 각자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곧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람으로서만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친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심으로써 이 일을 마련하셨습니다(고전 1:30). 이로써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의 구원 사역 전체 안으로도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승천, 영화가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엡 2:6).

13.10 새 사람도 새롭게 되어야 하는가?

두 편지(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모두 새 사람이 끊임없이 새롭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이 늙고 힘이 빠지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말일까요?

이에 대해 원칙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그리고 자기 힘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되어 살아 있는 모든 것(새로운 피조물도 포함하여)은 창조주께서 붙드시고 보존하십니다(골 1:17; 히 1:3; 느 9:6). 내 심장이 (하루에 8만 번까지) 뛰는 것은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덕분입니다. 창조된 것은 그분께 의존합니다! 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사람은 그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속사람은 끊임없이 새롭게 되고 생기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은 꾸준히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늘 힘이 자라 가야 합니다. 그 힘은 “속사람 안으로” 역사합니다(에베소서 3:16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새롭게 되고 생기를 얻는 것이 필요한 까닭은, 그리스도인이 아직 죽을 몸, 약한 몸 안에 있고, 옛 삶의 잔재(옛 본성)도 아직 지니고 있으며, 그의 생각이 여전히 그것에 영향을 받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 속에서 삽니다. 그리스도인이 타락한 피조 세계의 어려움과 고통에 노출되어 있고, 적대적이며 유혹하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됨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그러나 결코 작지 않은 이유로, 처음부터 유혹하는 자요 살인자인 영혼의 원수가 신자를 대적하기 때문에 새롭게 되고 생기를 얻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긴장의 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은 날마다 여러 전선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이 공격들에는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를 꺾어 우리 삶을 세상에 맞추게 하고, 옛 사람이 사는 것처럼, 곧 믿음과 순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원수들은 성경의 도움으로 정확히 가려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육신, 곧 옛 본성이 있습니다. 내 밖에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세상(사람들과 그들의 세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사탄이라고 불리는 큰 원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새롭게 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이 원수들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우리의 죽을 몸과 함께 끝날 것이고, 세상은 그 정욕과 함께 지나가며, 마귀는 우리 발아래에서 짓밟힐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표현에서 ‘새’라는 말은 헬라어로 **neos**다. 이 말은 단지 다른 생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가리킨다. 곧 이 ‘사람의 종류’가 젊음과 싱싱함 속에서 제시되며, 살아 있는 성장 과정이 전제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자라고 커 가면서 모습을 갖추어 가는 힘찬 젊은 생명에 관한 것이다. 이 성장 과정은 끊임없는 새롭게 됨으로 묘사된다. 그 안에서 성령께서는 옛 사람에게 회춘 요법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사람에게(딤후 3:5) 전혀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특징을 주신다. 이 특징들은 그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곧 하나님 자신과 그리스도와 일치한다. 하나님(엡 2:10)과 그리스도(2:15)께서 모두 새 사람에 대해 책임을 지시기 때문이다. 그분들은 함께 이 새로운 ‘사람의 종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 창조 사역을 더 의식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다. 핵심은 신자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이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인격의 온전한 풍성함 가운데 신자들 안에서 형상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짧게 말하면 신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다.”⁸⁵

지식과 생각이 새롭게 됩니다. 사람이 믿음에 이르면, 그 사람 안에는 죄로 물든 옛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육신 안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에 맞섭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우리의 통제 센터, 곧 결정이 내려지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겉사람은 날마다의 삶에 시달리며 늙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 (곧 새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확인해 줍니다(고후 4:16). 새롭게 됨은 그 사람이 영원을, 곧 그리스도 자신을 바라볼 때 경험됩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고(고후 3:18),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골 1:11).

13.11 새 사람: 옷처럼 입다

새 사람은 입는 옷과 같습니다. 옛 사람에게는 그 반대 과정이 해당됩니다. 옛 사람은 옷처럼 벗어 버린 것입니다. “‘입는 것’과 ‘벗는 것’이라는 그림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정체성의 변화에 비추어 성격이 변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 사람은 (하나님 없는) 옛 삶의 영역을 (하나님 결의) 새 삶의

85. G. H. Kramer, *Christus ons leven*, 117쪽.

영역과 맞바꾸었기 때문이다.”⁸⁶ 벗는 일과 입는 일은 우리 구원의 전환점,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옛 사람은 모든 면에서 과거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옛 사람이 언급되는 세 성경 구절은 모두 옛 사람의 끝을 묘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거나 “벗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모두 단 한 번의, 이미 완결된 행위를 가리킵니다. 옷을 벗는 일은 한 시점에 일어나지만, 새롭게 됨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새롭게 됨은 이 새 옷이 계속 새 옷으로 남아 헤어지거나 더러워지지 않게 해 줍니다.

옷이 날개입니다. 옷은 사람에게서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바로 이것을 말하려 합니다. 새 사람은 그저 영리한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었으며, 생명을 창조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참된 걸작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 증거는 새 사람이 일상에서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이제 자기 삶을 구속자요 창조주이신 분께 맞춥니다. 새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롬 13:14).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이 점점 더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그분의 본질, 그분의 사랑)께서 옛 사람의 지금까지의 이기적인 본질을 몰아내셔야 합니다.

새 사람의 길에는 하나님의 이정표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이 이정표들은 새 생명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어떤 모습으로는 드러나지 않는지를 보여 줍니다. 강조점은 삶의 방식이 바뀌는 데 있습니다. 믿음에 이른 사람은 자기 삶을 한순간에 옛것에서 새것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새롭게 됨도 필요 없고, 새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 주는 신약의 계명들조차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목표로 하는 억지스럽고 악착같은 노력 따위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러한 존재, 곧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존재인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86. Greg Herrick, *Old Man and New Man in Paul*, 1999, 7쪽.

새 사람이라는 특권은 그렇게 살아야 할 의무도 지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그러한 존재인, 바로 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면서 동시에 새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역설이 아닙니다. 하나는 구원의 직설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구원의 명령법입니다. 이 존재에서 출발하여 그에 맞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두 측면 가운데 어느 것도 다른 것과 맞세우거나 균형을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분, 곧 구원의 직설법을 실제적인 실현보다 더 강조하는 사람은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이 두 측면을 한 호흡에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핑계나 변명으로) 신학적인 곡예를 부려 이 둘을 해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원의 신분이, 그것이 일상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분명히 똑같이 중요합니다. 뒤에 말한 이 사실이 가리키는 것은 구원의 명령법,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가능하게 하신 대로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애쓰라는 것입니다.

13.12 요약 – 하나의 그림

성경의 진리를 그림이나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도(무엇보다 주 예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고 그림과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림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림은 특정한 측면을 분명히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그림에 들어 있는 모든 측면이 그 그림이 드러내려는 진리와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림이나 비유에서 언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언급되거나 다루어지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3.12.1 옛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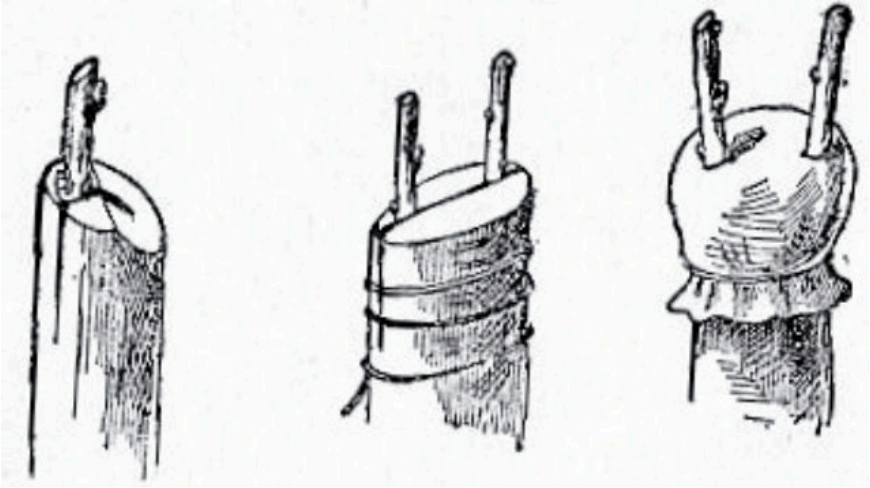
성경은 사람을 몇 차례 나무에 비유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대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크고 강한 나무에 비유됩니다. 그가 자기의 크기와 권세 때문에 교만해졌으므로, 하나님은 그 나무를 베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루터기만 남겨야 했습니다. 왕은 죽지 않았고, 한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가 다시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단 4장; 사 9:7-15도 참조). 이렇게 이 나무는, 그림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도끼에 찍혀 넘어졌습니다. 이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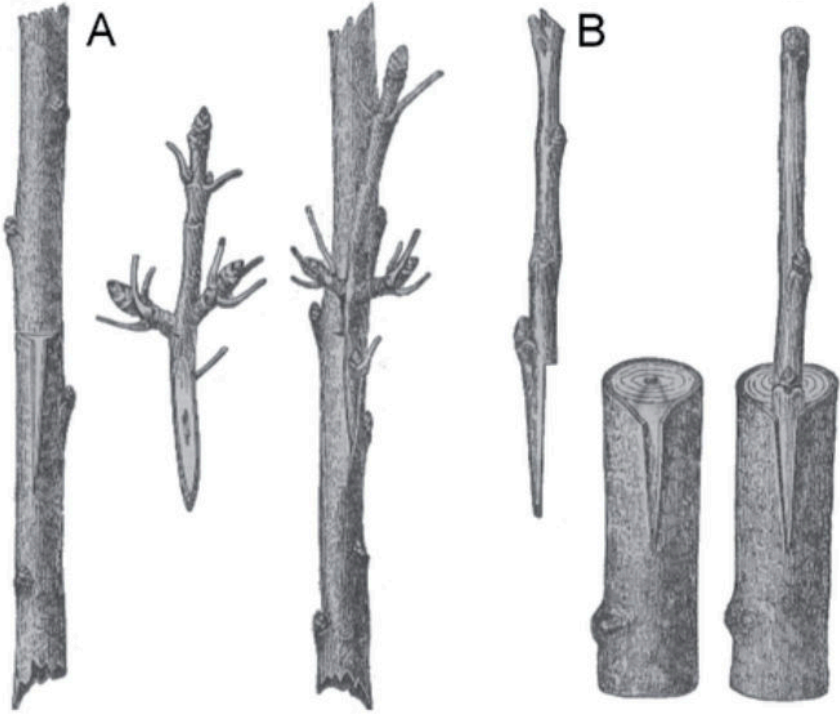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곧 아담의 후손의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눅 6:43). 달리 말하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옛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에도, 각 사람 개인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시 37:35). 이런 나쁜 나무는 그 열매를 두고 말하자면, 찢혀서 불에 던져지는 것 말고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눅 3:9). 우리의 옛 사람에게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았고, 사형 판결이 집행되었습니다. 옛 사람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심판 속에서 불타 버렸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옛 삶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끝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문자 그대로 죽었다면, 뿌리까지 함께 뽑혀 없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림에서 뿌리는 인격을 나타냅니다. 뿌리는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그 모습을 구현합니다.

13.12.2 새 나무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편은 의인에 대해 그렇게 말합니다(시 92:12; 렘 17:8 참조). 나는 좋은 열매(마 7:17), 곧 성령의 열매(갈 5:22-23)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새 나무가 필요합니다. 새 나무는 심겨야 하고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튼튼한 뿌리와 좋은 열매를 지닌 강한 나무가 되려면 돌봄과 무엇보다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림은 또 다른 측면도 허락합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벧전 1:23). 이 씨는 하나님의 씨이며(요일 3:9), 사람이 회심한 뒤에 그 사람 안에서(그림으로 말하면) 싹이 트고 자라 마침내 강한 나무가 됩니다. 이 씨는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갈 3:16).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이 **새 사람**, 곧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이시라는 사실(골 3:4, 11)과의 평행점을 얻습니다. 새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은, 아무리 작더라도 이 씨 안에 온전히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펼쳐지고, 자라고, 커지고, 퍼져 가야 합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고, 오직 꾸준한 성장과 끊임없는 새롭게 됨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장과 새롭게 됨과 힘을 주십니다. 신약은

다른 문맥에서 감람나무를 말합니다(롬 11:16-24). 그 나무에 다른 가지가 접붙여져 옛 나무 위에서 계속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격에 비유했던 나무 그루터기를 떠올려 봅시다. 이제 이 그루터기에 새 가지, 곧 말씀의 씨(그리스도 자신)가 접붙여져, 그것이 자라 새 나무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는 이 과정을 “접목을 통한 품종 개량”이라고 부릅니다.





13.12.3 아직 살아 있는 옛 뿌리

옛 뿌리(옛 나무, 그러나 이미 베어진 나무의 뿌리 그루터기)는 아직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그림에서 이것은 옛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육신, 곧 부패하고 죄 많은 옛 아담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이 우리의 옛 삶, 곧 옛 사람의 삶을 특징지었습니다. 이 진리들을 되풀이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질 위험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옛 사람은 육신이 아닙니다. 옛 사람은 오히려 내가 믿음에 이르기 전, 하나님 없는 나의 존재를 구현합니다. 반면에 육신은 옛 사람의 본성과 본질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아직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옛 뿌리는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에는 다시 활동하는 성질이 있습니다(욥 14:7-9). 이 뿌리 그루터기에서 작은 싹들이 자라납니다. 나쁜 열매, 몸과 육신의 행실과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나무의 성장을 돌보시는 동안, 우리에게는 땅에 있는 지체, 곧 죄 많은 육신의 지체를

죽이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골 3:5; 롬 8:13). 이 일은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싹들을 잡초처럼 뽑아내고, 가지를 잘라 내거나 (거기서 이미 다시 작은 나무줄기가 자라났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도끼로 그것을 베어 내야 합니다. 잡초를 철저히 돌보는 “정원사”의 일은 우리의 책임 영역에 속합니다. 이 일에서 우리는 혼자 내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고 행합니다(롬 8:13; 갈 5:18)!

13.13 오직 믿음으로

이 일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갈 2:2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일어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기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8:13과 골로새서 3:5에 묘사된 죽이는 일은 결국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께 “예”라고 말하는 동시에 죄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롬 6:13, 19). 의인은 (날마다) 그의 믿음으로 삽니다(롬 1:17).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롬 5:2), 믿음으로 셉니다(롬 11:20; 고후 1:24).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게 합니다(엡 3:17). 나는 믿음으로 굳건하며, 또 굳건해집니다(벧전 5:9). 나는 이 믿음을 오늘 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참되고 유효합니다. 이것은 나의 영원한 구원뿐 아니라 나의 날마다의 삶에도 해당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13.13.1 게으른 정원사

잠언 24:30-32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각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더니, 보라, 온통 엉겅퀴가 뒤덮였고 그 지면은 잡초로 덮였으며 그 돌담은 무너졌더라.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에 두었으며,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접붙인 접순(이 새롭고 품질 좋은 가지를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아래에서 옛 순이 다시 자라나는 일이 많습니다. 이 순들은 반드시 잘라 내야 합니다.

그것들이 새 가지에게서 물을 빼앗고, 성장이 더 진행되면 빛까지 빼앗기 때문입니다.

정원사가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육신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을 꾸준히, 거둢거둢 죽음에 넘겨주는 대신 오히려 먹고 아낀다면, 여러 곳에서 옛 순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이것은 새 나무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새 나무의 성장이 둔해지고, 뿌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 들어가지 못하여, 나무가 더 이상 양분을 얻지 못합니다. 마치 바울도 같은 그림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골 2:7).

육신에 속한 이기적인 삶은, 옛 뿌리에서 난 많은 순들에 둘러싸인 메마른 나무와 같습니다. 그 순들이 너무 높이 자라서 한때 새것이었던 나무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새 나무를 위한 물이 옛 나무뿌리에서 난 많은 순들로 흘러갑니다. 나무는 병들 수 있고, 가지 전체가 말라 버릴 수 있으며, 그 열매는 빈약하거나 작아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즙을 짜려고 사과를 주워 모으고 따던 중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나무에서 서로 다른 두 품종의 사과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접목의 결과였습니다. 이전 주인이 한 나무에서 두 품종의 사과를 얻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에도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는 열매가 있지만, 육신이 맺은 열매도 있습니다.

13.14 새 사람의 미래

지금까지 우리는 지나가는 세상이라는 긴장의 장 속에서 새 사람을 보았습니다. 새 사람의 미래를 잠깐 살펴보는 일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새 사람에게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된 장래의 새 창조의 숨결이 이미 불어옵니다. 우리 안에서 이 새 창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 일종의 첫 열매입니다(약 1:18).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하늘의 영역에) 앗힘을 받았습니다(엡 2:6).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새** 창조 안에서 살 것입니다. 언젠가는 새 몸도 입을 것입니다. 그 몸은 지금 우리의 **속사람**이 지닌 것과 같은 새 창조의 성질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고전 15:35-57). 새 사람의 미래는 숨이

멋을 만큼 놀랍고, 그 창조주 자신처럼 한없이 영광스럽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온 우주 앞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골 3:1-4)!

그러나 집단적인, 곧 공동체적인 측면도 잊지 맙시다. 어쩌면 이 측면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시작이요 머리가신 새로운 인류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새 사람의 구원의 현실은, 오순절에야 비로소 생겨난 신약의 교회가 구현합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로 이루어져) 그리스도께서 지으시고 그 머리가 되시는 이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몸의 모든 지체로 이루어진 이 **한 사람**은 영원히 - 영원무궁토록 - 하나님의, 곧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옛 사람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합니다. 영적인 죽음 때문에 옛 사람은 몸의 죽음을 향해 가고, 그 죽음은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옛 사람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옛 사람은 썩어짐에 굴복해 있으며 멸망합니다. 새 사람은 그 창조주와의 생명의 연결을 통해 새롭게 됩니다. 영생, 곧 부활 때의 온전함이 시작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13.14.1 미래의 삶을 지금 이미 살기

새 사람의 미래는 추상적인 주제나 우리의 삶의 현실과 동떨어진 주제가 아닙니다. 이 미래는 한편으로 우리의 소망을 포함하지만, 지금 이미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에서부터 삽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이미 이루신 일과 장차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새 창조의 생명이 고동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미래의 삶을 지금 이미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 예수님 자신의 비할 데 없고 본이 되는 삶, 그분의 사랑의 계명들, 그리고 신약의 모든 계명이 새 창조 안의 삶이 도덕적인 면에서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 삶에서 실현해야 하는 바로 그 사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새 세상의 교두보요 전초 기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의 구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 사람”, 곧 새로운 피조물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그분의 새 세상 곳곳에서 정상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것으로 누리시게 될 것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새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이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미래의 삶을 억지로나 강요 아래서 살지 않고, 율법주의적인 동기로 살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정상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그렇게 될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에는 오늘과 달리 새 생명을 가로막을 수 있는 원수도, 장애물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과 같이 되려면 의지의 결단과 수고와 헌신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를 들어 자기 성격을 도덕적으로 고치려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선한 영을 우리 편에 모시고 있습니다.

13.15 호소

은혜는 우리를 가르치며, 참으로 우리를 양육합니다(딤후 2:11-12). 그래서 새 사람이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자리를 넓혀 갑니다.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무엇인지를, 곧 이제 와서 비로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거듭거듭 일깨워 줌으로써 우리를 양육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넘치는 풍성함 안에 세우고 그것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오직 은혜에서부터만 변화된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옛 사람을 그 옛 생활 방식과 함께 벗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옛 사람의 사고방식, 본질, 곧 본성은 우리가 몸 안에 있는 동안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옛 삶의 방향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막는 것은 우리 생각이 끊임없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새 사람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안 토머스(Ian Thomas)는 이것을 장갑에 비유했습니다. 장갑은 살아 있는 손이 없으면 죽은 물건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 손이 장갑 속에 들어가면 장갑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믿어도 됩니다!

14. 새 생명으로 거듭나다

마지막 산봉우리에서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해 아마 가장 잘 알려진 사실에 이릅니다. 그것은 거듭남, 곧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새것을 창조하는 복음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 사도 요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에 이릅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바울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옛 생명은 죄 때문에 쓸모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이 없었으며, 곧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사용한 개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새 본성과 옛 본성**”입니다. 성경에 이런 용어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 용어들이 가리키는 내용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옛 본성**”(곧 육신)과 대조하여 “**새 본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신성한 본성**”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둘째 편지 1장 4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 이는 너희가 이 (약속들) 로 말미암아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용어들이 들어 있는 문맥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본문의 문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먼저 생명 자체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새 사람의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신적인 생명을 일상에서 실현하는 것을 “경건”(바른 경외,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았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 삶과 우리 인생 여정의 목표로 눈앞에 두겠다는 온전한 결단을 일으켰습니다. 이 여정은 세상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꾸어 놓고 썩게 한

세상, 곧 우리가 사는 사회도 지나갑니다. 신성한 본성을 받은 자요 그것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의 썩어질 것을 피하였습니다. 신성한 본성으로 우리는 이제 정욕으로 특징지어지는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신성한 본성이 무엇이며 무엇이 아닌지도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외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윤리적 특징을 지닌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생명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그것을 잃어버린 세상의 행태와 대비시킵니다.

이 본성은 구체적으로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 과정에서 거듭난 사람은 온갖 열심을 다하여 영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기의 신적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 삶에서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확증합니다.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언가가 **되는** 것도 뜻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가고, 그래서 그분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곧 하나님의 본질이 실제로 한 사람 안에 들어와 그 사람의 삶을 빛을 수 있다는 증거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 안에 신적인 생명이 있으며, 그분 자신이 영생이십니다. 그분은 이 생명이 우리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도록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요일 2:8).

14.1 본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본성이란 어떤 사물을 처음부터, 또는 어떤 생명체를 태어날 때부터 특징짓는 본질이나 타고난 성질을 말합니다. 짐승의 본성은 사람의 본성과 다릅니다(약 3:6-7). 우리의 문맥에서 본성은 스스로 만들어 낸 것과 달리 물려받은 것을 포함합니다. **본성**(헬라어 **physis**)이라는 말은 “생겨나 있음”⁸⁷을 뜻하며, 그 동사는 **낳다**, **발전시키다**, **썩트다**, **자라다**(특히 식물에 대해)를 뜻합니다. 그 명사는 **기원과 출생도** 뜻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본질상**, 곧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우리의 본질과 본성에 따라 진노의 자녀입니다(엡 2:3; 갈 2:15). 자연에서는 모든 종이 자기와 같은 후손을

87. Kittel,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헬라어 *phyein*).

낳는다는 법칙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몸, 곧 겉사람에게도 해당되고, 그의 마음, 곧 속사람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사람은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담(처음 창조된 사람)의 본질을 구현하며, 또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된 그 모습도 구현합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말하는 사람의 본성(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니게 된 것)과, 우리가 (타락 이후의)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의 본질을 구별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본성과 타락한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본성을 구별해야 한다.”⁸⁸ 우리는 사람이며, 앞으로도 언제나 사람일 것이다. 새로운 탄생으로 영과 혼에 관해 어떤 변화를 경험하든,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부르러 오시는 순간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든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출생을 통해) 우리를 지으신 그 본질적인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같은 인격이며, 같은 인격으로 남는다 - 같은 개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간 본성’, ‘우리의 타락한 본성’, ‘우리의 새 본성’ 같은 개념들을 구별해야 한다. 타락이 우리의 사람됨(의 본성)을 없애지 않았다. 다른 한편, 우리의 새로운 탄생도 우리의 사람됨을 없애지 않는다. 사람됨에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잃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개성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⁸⁹

타락한 아담의 본성은, 더 이상 사람의 영과 그 영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영이 없는 동물과 달리), 혼과 몸에 따라 결정되는 인간의 현실을 보여 줍니다. 사람의 영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고, 창조주의 존재를 알아보는 기본적인 능력,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경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능은 죄 때문에 엄청난 손상을 입었습니다. 영은 꺼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 더 이상 살아 계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결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육에 속한**(헬라어 *psychikos*, 본래는 **혼에 속한**) 사람은 …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고전 2:14). 타락은 인간 현실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를 하나님 가까이 붙들어 두었던 (창조주를 향한) 애정과 경외와 의존의

88. 이 차이는 예수님의 인격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그분은 육신이 되실 때(성육신)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지만, 옛 본성, 곧 죄 있는 본성은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89. F. W. Grant, *The two Natures*, 5쪽.

연결이 끊어졌다. 그는 지붕이 무너져 바닥에 떨어진 집과 같다. 영과 혼이 가라앉은 가장 낮은 측면의 이름을 따라 그는 ‘육신’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육신’은 그의 옛 본성, 곧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는 성경적인 명칭이다.”⁹⁰

14.2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옛 본성을 지니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썩어짐과 더러움에서 벗어났습니다(벧후 1:4; 2:18, 20). 몸으로는 우리가 아직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세계에서 동시에 삽니다(엡 2:6; 골 2:20; 3:1-5). 신적인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세상,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그분의 새 창조에 속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하던 우리의 삶은 끝났습니다. 우리의 “나 주식회사”는 파산했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회사, 곧 나 중심의 세계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 파산 절차는 골고다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빛은 그리스도께서 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안전한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몫을 가졌기 때문에 “주주”입니다. 이 “주식”으로 참된 새 출발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발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4.3 영생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에,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격으로서 우리의 새 생명이라는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이 말은 같은 일의 다른 측면을 표현할 뿐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은 새 사람이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새 생명을 구현하십니다.

우리가 신적인 생명을 소유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신들의 지위로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으로 남습니다. 다만 이 생명 덕분에 이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90. 같은 책, 7쪽.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의존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그분과 떨어져서 소유하지 않습니다.

14.4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가?

본성이라는 말은 출생과 성장과 관련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 니고데모에게 깨우쳐 주신 것, 곧 거듭남으로 우리의 주의를 이끕니다.

핵심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거듭남은 성경의 개념이며, 동양 종교나 (예를 들어 불교에서 말하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영원한 순환”, 또는 그 밖의 어떤 세계관과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신약의 여러 저자가 거듭남을 언급하지만, 가장 자세히 묘사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아담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옮겨 가는 일에는 여러 측면이 있는데, 거듭남이라는 측면을 묘사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거듭남은 새롭고 다른 생명을 창조합니다. 그 생명은 우리가 본성상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생명과 다릅니다.

신약의 모든 저자는 새 생명을 어떻게 얻으며, 그 생명이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관해 각자 기여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사람의 변화를 뜻하며, 그 변화는 사람이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 자신에게서 온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미 우리 주제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위로부터”는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탄생과 관련하여 사용하신 말입니다.

14.5 거듭남 – 하나님께로부터 나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신학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새로운 탄생의 필요성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로써 주 예수님께서 한 문장으로, 사람이 그의 출생으로 말미암아(본성상) 지닌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물며 거기에 들어갈 길을 얻을 수는 더더욱 없다고 말씀하십니다(요 3:1-36).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필요성은 우리가 본성상 지닌 것 가운데 선한 것을 하나도 남겨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이 탄생이 사람의 생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번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오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요 1:13).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거듭남으로만 됩니다! 사람이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수백 번 잉태되고 그 어머니에게서 수백 번 태어난다 해도, 결과는 언제나 같을 것입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면, 그 근원은 전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탄생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은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일어납니다(요 3:5).

14.5.1 물로 나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출생도 아니고, 출생할 때 쓰이는 도구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물은 비유적인 의미를 나타내야 합니다.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 물로 씻어 말씀으로”(5:26)라고 쓴 것처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남에서 구체적인 도구입니다.

“그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18

“...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1:3도 참조)

베드로전서 1:23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요한복음 15:3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깨끗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며 죄인에게 역사합니다. 선포되거나 증언되거나 읽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드러내고 회개와 믿음으로 이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거듭남을 일으킵니다(요

1:12).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결과입니다(롬 10:17). 말씀은 하나님의 씨로서 새 생명을 낳습니다.

썩지 않는 씨인 말씀은 적어도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말씀은 말씀 자체처럼 썩지 않는(곧 영원한)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바로 그 특징들을 지닌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 생명의 DNA입니다. 씨는 식물이나 태어날 생명체가 어떤 모습이 될지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새 생명의 설계도, 곧 “유전 암호 전체”입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 말씀은 이 생명이 어떻게 실현되고 드러나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을 받았으며, 이 말씀이 동시에 우리 안에 심겨 자랄 수 있게 된 씨라고 말합니다(약 1:18, 21). 씨의 본성이 생명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신성한 본성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완전합니다(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 본성은 모습을 갖추고 자라 갈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합니다.

두 번째 도구로 넘어가기 전에, 앞의 고찰에 덧붙여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물세례가 아니라는 점만 짚어 두면 충분할 것입니다. 물세례의 물은 새 사람을 낳지 않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세례는 우리를 **겉으로**(우리의 고백에서) 그리스도와 연결합니다.

14.5.2 성령으로 나다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또한 새로운 탄생을 일으키는 것도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듭남을 일으키시고 이루십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거듭남이라는 선물이 육체적이거나 생물학적인 의미의 새 생명이 아니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구속받지 못한 사람의 자연적인 존재와 대조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성령, 곧 하나님의 영과 일치합니다. 그것은 신적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은 성령의 본성에 상응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본성(신적인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학식이 많았는데도 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는 “물과 성령”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 사람에게 역사할 때 무엇을 이루는지를 구약에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14.5.3 에스겔의 예언: 새 마음과 새 영

에스겔은 문자 그대로 **거듭남**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물과 영이 쓰이게 될 바로 그 같은 과정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겔 11:19; 36:25-27).

-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맑은 물을 그들에게 뿌리심
-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심
- 그들에게 돌 같은 마음 대신 살로 된 마음(부드러운 마음)을 주심
-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두어져,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 안에서 살게 됩니다.

여기에는 거듭남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중요한 요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하심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를 마무리합니다. 깨끗하게 하심이 필요했던 옛 삶의 자리에 이제 새 마음과 새 영이 들어섭니다.

특히 “마음”이라는 표현과 “영”(“사람의 영”이라는 뜻)이라는 개념은 모두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뜻합니다(잠 4:23). 이것은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인간 인격의 중심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 변화로 의지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굳은 마음, 곧 돌 같은 마음은 완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 수도 없고 살려고 하지도 않는 죽은 마음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새롭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분명해지는 것은, 사람이 안에서부터 변화되는 것이지, 밖에서 그에게 지워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만 가져오는 계명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엄격한 절제로 자기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그가 새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순종은 그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일입니다. 이때 절제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미 새 생명에 해당하는 “새 영”과, 거듭난 사람 안에 거하시는 인격이신 성령을 구별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성령의 선물에 대해 직접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여기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성령을 우리가 소유한 분으로 여러 번 언급합니다 (요 7:39; 14:17, 26; 15:26; 16:13).

바울은 에스겔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마음에 쓰십니다. 우리 마음은 율법의 돌판과 달리 돌이 아니라 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도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형상으로 점점 더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 줍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쓰시는 데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의 바로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됩니다(고후 3:3, 18).

14.6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다: 살리심을 받다

새로운 탄생이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며, 그래서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볼 때 탄생의 결과는 이전에 없던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지금 이미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가서야 비로소가 아니라) 여기서, 오늘 그분은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 5:25).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의 씨인 것처럼, 여기서도 살리는 것은 말씀(아들의 음성)입니다. 사람은 본성상 죄인(곧 육신이 지배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 필요한 죽은 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본성상 그의 죄로 죽어 있습니다(엡 2:1; 골 2:13 등). 죽음은 언제나 본래 함께 속해 있는 것들이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생기가 넘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죽어 있습니다. 이 관계, 그리고 그런 관계에 속하는 모든 것이 그에게 없습니다. **영적인** 살리심(또는 소생, 이것은 결국 거듭남의 다른 측면을 포함합니다)을 통해 영적으로 죽은 죄인은 영생을 받습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그의 상태(골 1:21; 엡 4:18 참조)가 없어집니다. 이 생명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지 회복되어 타락 이전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들로 만드는 관계가 맺어집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요 6:63).

14.7 생겨남과 자라남의 비밀

새로운 탄생의 과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몇 가지를 짚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때 그 영생이 사람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의 영에 있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혼을 강조합니다.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과정들을 인간 존재의 개별 측면들에 하나하나 배정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학 책이 아닙니다. 옛 사람에 관해서도, 새 사람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⁹¹ 거듭남에서 우리는 일부는 계시되었지만 어느 정도는 감추어져 있기도 한 비밀을 다룹니다. 그 까닭은 인간 본성의 복잡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식의 한계를 다시 한번 보여 주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줄이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탄생의 과정을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바람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곧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에게서 그 영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볼 수 없습니다(요 3:8). 거듭남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과정이며, 우리의 지식으로도 기술로도 눈에 보이게 할 수 없습니다.

91. Hans-Jörg Ronsdorf, 『그래도 죽은 자들은 살아 있다』 (Und die Toten leben doch), 3장 「성경의 인간관」, 147쪽 이하.

새 생명의 성장 과정도 자세히 묘사되지 않고, 주어진 것으로 전제됩니다. 신약의 거의 모든 저자는 믿음 안에 성장과 (꾸준한) 새롭게 됨, 움직임, 그리고 진보와 자라 가는 성숙이 있다고 확언합니다(요 3:30; 엡 4:13; 벧전 2:2; 벧후 3:18; 골 1:10; 3:10; 요일 2:12-17; 갈 4:19; 롬 12:2; 고후 3:18; 4:16; 엡 4:23). 이것은 대체로 원리적으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늘 다루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시작하시고 이어 가시는 일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참여, 우리의 동의와 결단,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는 데서의 우리의 절제와 일관성으로만 실현될 수 있는 일입니다(눅 8:15; 벧후 1:8; 약 3:18; 딤후 3:14). 변화의 과정은 언제나 앞에서 말한 원리들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 과정은 (본질적인 성향, 삶의 형편, 그리고 결단의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속도와 강도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이신 정원사께서는 사랑으로 각각의 식물을 돌보십니다(히 12:11; 요 15:2). 모두에게 한 가지 큰 목표를 두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롬 8:29).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라면,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 곧 같은 목표를 갖자는 이 합의는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단순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분명한 목표 의식을 줄 것입니다. 그러써 우리는 날마다의 삶의 형편을 완전히 다른 눈, 곧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새 생명의 **생겨남**과 그 **자라남**을 이루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곧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맺히는 성령의 좋은 열매입니다.

14.8 성장 – 생명은 자란다

성장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 자체로 온전하지만, 사람 안에 놓이면 자라야 합니다. 그 생명은 실제로 사람 전체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새 생명은 사람의 행동과 지식, 곧 그의 본질을 옛 생명에서 새 생명 쪽으로 점점 더 바꾸어 갑니다(곧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그 사람 안에서 점점 더 형상을 이룹니다; 갈 4:19; 고후 3:18).

자연을 한번 살펴봅시다. 거기에는 밀밭이 없습니다. 밀밭은 사람이 밭을 일구고 알맞은 씨를 뿌린 곳에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옛 삶에서

가시와 엉겅퀴만 났습니다(엡 5:11). 그러나 이제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좋은 곡식, 곧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자랍니다(마 13:23; 롬 6:22; 7:4). 씨는 기름진 “마음 밭”에서 싹틔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새 생명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안에서 일어났고 그때부터 계속 일어나는 일의 결과는 거듭난 사람의 행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를 낳으신 분을 향해 있습니다.

씨가 뿌려진 사람 안에는 아직 악이 있습니다. 밀밭에서도 많은 적든 엉겅퀴와 가시를 여전히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 새 열매는 또한 이기는 생명입니다(요일 5:4). 그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의 변화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좋은 땅이 좋은 열매를 맺는 동안, 우리는 우리 삶의 밭에서 좋은 열매가 아닌 것을 없앱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옛 행동 양식이라는 가시들, 그리고 길고 깊은 뿌리를 가진 엉겅퀴들을 없앱니다. 이 엉겅퀴들은 오래되고 끈질긴 습관을 나타냅니다. 어떤 잡초는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기까지 엄격한 절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목표에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이 수고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밭에 흩어져 있는 돌들은 쓸데없는 짐과 무거운 것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장과 전진을 늦추고 가로막는, 우리를 쉽게 엎매는 죄들입니다(사 5:1-7; 히 12:1).

성경에서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얼마나 자주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포도원이었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농부이십니다.

우리 삶의 포도원, 곧 “나의 포도원”(아 1:6)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 열매를 맺도록 그분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요 15:1-8).

영적인 성장은 자연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간 본성에서도 일어나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이 성장에는 시간과 필요한 모든 여건이 필요합니다. 성장은 갑자기 건너뛰듯 일어나지 않으며, 어떤 일이나 경험을 통해서든 지름길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또는 비교적 무관심한 삶에서 그리스도께 헌신한 삶으로 갑자기 도약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경건의 성장은, 사람이 아이에서 성숙한 어른으로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것처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워야 하는 성장으로 제시된다.”⁹²

온실을 이용하면 계절의 법칙에서 벗어나 많은 식물과 채소를 어느 계절에나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실에서는 바깥 밭에서 자란 식물이 이르는 품질의 식물을 결코 길러 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압니다. 온실에서 재배한 식물의 열매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열매도 이와 같이 일상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열매는 비바람, 더위와 추위, 가뭄과 비에 노출된 바깥 자연에서 가장 좋은 성장 조건을 얻습니다. 우리는 “온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14.9 가꾸기

“가꾸다”(경작하다)는 예를 들어 전에 숲이나 초원이었던 곳에 밀밭을 일구는 것을 뜻합니다. “열매 맺음”과 관련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빌 2:12-13).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소원을 두게 하시고

또한 행하게 하시는 것이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마 다른 어떤 성경 말씀도 행동하라는 우리의 책임과, 동시에 우리의 행동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토록 짧고 간결하게 보여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동안,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행동할 의무를 지웁니다. 우리는 얻은 구원의 증거를 보여야 하며, 참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역사 사이의 큰 긴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우리의 행함과 떼어서 보아야 하며 구원이 우리 자신의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이 긴장을 그냥 풀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두렵고 떨림으로(곧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구원을 살아 내고, 자주 언급한 “구원의 명령법”을 진지하게

92. Henry Allen Ironside, *Heiligung - Zerrbild und Wirklichkeit*, 153쪽.

받아들여야 합니다. 언젠가 목표에 이르면, 우리가 온 힘을 다했던 그 모든 일에서도 결국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영적인 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루라”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농사, 곧 밭을 가는 일에도 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인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으셨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이라는 이 밭을 돌보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없애고, 성장을 돕는 모든 것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좋은 추수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은 밭과 같습니다. 물론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농부의 이 일은 또한 하나님 자신의 일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으신 것을 가꿉니다.

세상의 일들은 마음 밭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굳어 있던 땅은 물을 받아들이고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들여 갈아엎어야 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라는 잡초도 꾸준히 뽑아내야 합니다. 어린 풀은 뿌리가 깊은 오래된 풀보다 뽑아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그리고 꾸준히 그것에 맞서 싸웁시다!⁹³

14.10 취미인가, 의무인가?

취미로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잡초를 돌봅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것이 그의 취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정원사나 농부의 그림을 우리의 성화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택할 수도 있고 소홀히 할 수도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성화의 삶과 영적인 성장을 택하는 것은 선교지로 가거나 설교자가 되려는 특별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따르라는 의무를 지웁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히 12:14)!

93. C. G. Willis, *Betrachtungen über den Brief an die Philipper*, 184쪽.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에게 쓸모 있는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쏘모가 없어 저주함에 가깝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히 6:7-8).

14.11 요한이 말하는 구원의 직설법

하나님의 생명(영생)은 요한의 주제입니다. 그는 우리가 이 생명을 받게 되는 새로운 탄생도 다룹니다. 그의 세 편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 되었으며 무엇을 선물로 받았는지를 모아 보겠습니다. 요한에게서 구원의 직설법은 다음을 뜻합니다(바울과의 많은 평행점에 주목해 보십시오).

-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귄 (요일 1:3)
- 충만한 기쁨 (1:4)
-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합니다(1:7; 2:9-11).
-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3:16).
-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1:7).
-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2:2; 4:10).
-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2:12).
- 우리의 죄가 없어졌습니다(3:5).
- (자백한 뒤의) 계속되는 용서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심 (1:9)
-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변호자)가 있습니다 (2:1).
-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2:5; 4:12, 17).
-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3:1).
-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4:16).
-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2:5).
- 우리는 참되신 분 안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5:20).
- 그분 안에서 참된 것, 곧 신적인 생명은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참됩니다(2:8).
- 우리는 영원히 거합니다(2:17).
- 우리에게는 성령, 곧 거룩하신 이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2:20, 27).
-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3:24; 4:13).

-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습니다(2:24).
-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약속: 영생 (2:25)
-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며,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5:11, 13).
- 우리에게는 아들이 있고, 아들과 함께 생명이 있습니다(5:12).
- 영생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곧 머물러 삽니다)(3:15).
-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2:29; 3:9; 4:4, 6-7; 5:1, 3, 18-19; 요삼 1:11).
-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3:1).
-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3:9).
-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질 것입니다(3:2).
-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3:2).
-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3:14).
-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3:24; 4:4).
- 우리는 아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4:9).
- 우리는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집니다(4:17).
-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없어졌습니다 (4:18).
-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기도합니다(5:14-15).
-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요이 1:13).
-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합니다(요이 1:2).

14.12 요한이 말하는 구원의 명령법

축복과 특권이 있는 곳에는 의무와 책임도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깨달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모아 놓은 목록은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2:3-4; 3:22; 5:2-3; 요이 1:5)
-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2:5)
- 그분이 행하신 대로 행해야 할 의무 (2:6; 4:17 참조)
- 형제를 사랑하기 (2:10; 3:10, 14; 요이 1:5)

-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2:15)
-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5:4)
- 아들을 시인하기 (2:23)
- 그분 안에 거하기 (2:28)
- 의를 행하기 (2:29)
-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3:3)
- 죄를 짓지 않기 (3:6, 9; 5:18)
-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기 (3:16-17)
-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기 (3:18; 4:7; 4:11)
- 사랑 안에 거하기 (4:16)
-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3:22)
-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는 사랑합니다(4:19).
- 진리 안에서 행하기 (요이 1:4; 요삼 1:4)
-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기 (요이 1:8)
-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기 (요이 1:9)
- 진리를 굳게 붙들기 (요삼 1:3)
-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접하기 (요삼 1:5-8)
- 선을 행하고 선한 것을 본받기 (요삼 1:11).

14.13 영생 – 질과 양

새 생명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 그리고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여긴 모든 것을 무색하게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영생은 그저 끝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는 모든 사람에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언젠가 하늘에, 곧 영생이 “본고장”으로 머무는 곳에 있을 수 있게 하는 존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메시지에서 핵심은 하늘의 각인이 찍힌 이 생명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그때 가서야 비로소가 아니라, 아직 땅에 있는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충만함과 풍성함과 내용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로써 단지 하나의 존재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모든 것, 곧 의지, 사랑, 인식 등 많은 것을 지닌 새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이 생명과 함께 우리는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요 17:3).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살아 있고, 사랑으로 특징지어지는 친밀한 관계와 사귄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신 것과 같은 생명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4.14 생명의 징표

자기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분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모두가 아이의 첫 소리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탄생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도 이런 생명의 징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듭남에 대해 말한 직후에(벧전 1:23), 우리가 갓난아기들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벧전 2:2). 달리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이 그에게 양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의 명령법들 가운데 열거한 또 다른 생명의 징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의를 행합니다(요일 2:29).
-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압니다(요일 4:7).
-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요일 5:1).
-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요일 5:1).
-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요일 5:4).

새 생명의 한 가지 특징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요일 3:6, 9; 5:18).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यो,

그도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14.15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은 처음 보면 우리를 멈칫하게 하고 어찌면 슬프게도 하는 생명의 징표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려는 것일까요? 만일 그런 뜻이라면 그는 자기 자신과 모순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2장 1절에서 이렇게 쓰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만일 누가 죄를 지었다면 -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보다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8-9

요한이 죄를 짓지 말라고 권한다면, 그 사람이 아직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죄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날마다의 경험도 이것이 사실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기준, 곧 그의 척도는 분명히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아마 표현할 법한 방식으로 “되도록 죄를 적게 지으려고 노력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우리 삶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에 대해 하신 말씀에서 이끌어 냅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 그에게는 어둠(죄)이 조금도 없으시니라”(요일 1:5). 그가 처음에 “만일 누가 죄를 지었다면 …”이라고 말할 때, 그가 여기서 규칙이 아니라 예외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또는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는 말씀들과 이 말씀을 조화시키려고 억지 곡예를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들은 서로 조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여기서 우리를 새 생명의 능력과 본질을 받은 사람들로 봅니다. 그의 눈에 우리는 여기서 말씀이라는 신적인 씨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이것이 문법적으로 계속형의 형태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며,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로 하면, 그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신자가 때때로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는 죄가 아니라 죄의 반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죄는 우리에게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이다.”⁹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 그의 본질에 속합니다. 그는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합니다(갈 5:16, 25).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은 오로지 죄를 지을 수 없는 새 생명(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제한적으로만 옳습니다. 물론 이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94. Alfred Plummer, John R. W. Stott, *The Letters of John*, 138쪽에서 재인용.

다루는 것은 새 생명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인격**의 행동입니다. 새 생명 자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인격이 자기의 생명, 자기의 본성과 일치하여 무언가를 **합니다**. 그 인격은 온전한 책임 가운데 스스로 결정하여 무언가를 **합니다**. 이때 그의 생명, 곧 그의 본성이 그 행동의 근원, 곧 그 인격이 길어 올리는 샘을 결정합니다. 그 인격을 거듭나게 한 것은 씨이며, 이 씨는 동시에 새 생명입니다. 요한은 거듭난 사람을 이제 이 생명을 사는 사람, 곧 이 생명에 의해 결정되고 특징지어지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 생명에는 죄가 맞지 않습니다. 죄는 이물질입니다. “요한의 편지에는 날카로운 대조가 들어 있다. 또한 추상적인 진술도 많이 들어 있다. 죄와 의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어떤 것의 특징이 되는 것이 부각된다. 그래서 신자는 그 본질상 의롭다. 그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삶의 성격이 선하다는 뜻이다. 그는 의롭게 살며, 따라서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 불신자에게는 그 반대가 해당된다.”⁹⁵

요한은 그럴 수도 있을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현실을 말합니다. 때로는 그가 **신분**과 실제적인 **상태**의 구별(우리가 특히 바울의 구원론에서 사용한 이해의 도구)을 그냥 건너뛰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술은 단지 “이론적으로”, 신분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만 참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일상에서 그러한 존재임을 묘사합니다(구원의 명령법). 이 진술은 우리가 은혜로 우리의 신분에서 된 것(구원의 직설법)을 넘어섭니다.

14.15.1 구속사의 네 단계: 인간과 죄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von Hippo, 354-430)는 펠라기우스(Pelagius)⁹⁶와 논쟁하면서 세 라틴어 낱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구분을 했습니다. **posse**(“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가능하다”), **peccare**(“죄를 짓다, 잘못하다, 범하다”), 그리고 **non**(“아니다”)입니다.

95. 같은 책, 137쪽.

96.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시대의 영국 수도사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론, 곧 구원론을 거부하고 그 대신 인간 의지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14.15.2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분명한 것은, 요한이 신자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를 짓는 것은 규칙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벧후 1:3).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으려는 의지와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다.”⁹⁷

요한은 죄 없음과 완전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만일 그랬다면 그는 눈에 띄게 자기 자신과 모순되었을 것입니다). 죄 없음 자체는 이미 그 이유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땅 위의 존재와 떼려야 뗄 수 없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오늘 추구할 만한 일이지만(“...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요한의 말 참조), 우리가 우리 주님과 온전히 같아지는 영광 가운데서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1. 타락 이전의 사람	2. 타락한 사람	3. 거듭난 사람	4. 완성 때의 사람
Posse peccare	Non posse Non peccare	Posse non peccare	Non posse peccare
그는 죄를 지을 수 있었다(그러나 죄를 피할 수도 있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다.	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그러나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자유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할지, 아니면 그것을 어길지 결정할 수 있었다.	그는 육신에 있으며, 죄 아래에 팔렸다. 타락한 사람의 모든 행위가 죄인 것은 아니지만, 그는 죄 없이 살 수 없다.	영적인 면에서 그 안에는 새 생명과 옛 생명이 있다. 죄의 강요는 깨어졌다. 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죄와 육신, 곧 옛 본성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옛 창조에 속한 땅 위의 몸의 존재에 묶여 있었다. 이 존재는 완성 때에 끝나며, 영광의 몸과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가까이 있음으로 대체된다.

97. William MacDonald, *Der vergessene Befehl - Seid heilig*, 45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 때문에 실망해야 할까요? 우리가 결코 이 목표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죄 없이 사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인해 주는 근거가 성경에 있을까요? 그런 진술이 있다면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으며, 교육적으로도 매우 지혜롭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며, 결코 그보다 낮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진심으로 자기가 온전함의 상태(죄 없는 삶)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마 죄의 본질과 현실을 보는 눈과 감각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의 양심은 그것에 대해 더 이상 민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많은 선한 일에서조차 흔히 죄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증거를 내놓아야 하고, 자기의 죄 없음에 대한 “증인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의 배우자,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가까운 주변의 다른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이 말이 해당되는 분은 단 한 분, 예수님뿐입니다. 여기서 저는 자주 쓰이고, 모든 면에서 참된 말을 덧붙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실망을 줄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결코 실망을 주지 않으신다.” 이 말은 변명이 아니라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14.16 온전함 – 그것은 무엇인가?

신약은 온전함에 대해 자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완벽함이나 죄 없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화를 이해하는 데에는 이 온전함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나오는 성경 구절들에서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14.16.1 우리의 구원의 신분의 온전함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히 10:14). 예수님의 온전하고 넉넉히 충분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고, 완벽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고전 6:11).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고후 5:17) 우리는 온전한 자들입니다(고전 2:6; 빌 3:15).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충만하게 되었고, 곧 완성되었습니다(골 2:10).

이 온전함에는 은혜의 선물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선물로 받은 온전함을 절대적인 죄 없음이나 윤리적 완전함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온전함이 없으면 도덕적 온전함과 성숙으로 자라는 일도 없다.”⁹⁸

14.16.2 우리 삶의 온전함(성숙): 장성한 사람이 되기

첫 번째 의미가 실제로 흠 없고 변하지 않는 온전함을 뜻하는 반면, 신약은 이 개념을, 이미 생겨나서 자라 가고 나아가는 중인 상태에 대해서도 사용합니다. 그 상태는 온전함(헬라어로는 성숙), 곧 영적인 장성함의 성숙을 목표로 합니다. 온전하다는 말의 이런 의미는 고린도전서 14:20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고린도 사람들이 모일 때 지혜에 있어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온전한 자, 곧 장성한 자,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온전한, 곧 성숙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엡 4:13 참조). 그러므로 성경적 가르침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온전한 자들, 성숙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감각이 훈련된 사람들입니다(히 5:14 참조).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고 명하실 때(마 5:48), 이것은 두 가지를 보여 줍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여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분을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처럼 되어 가는 우리 삶의 과정을 보여 줍니다.

14.16.3 장차 올 완성 때의 전인적 온전함

우리의 믿음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곁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그분과 온전히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때, 그것 말고 무엇을

98. Erich Mauerhofer, *Der Kampf zwischen Fleisch und Geist bei Paulus*, 124쪽.

온전하다거나 완성되었다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심지어 그분의 부활에서 하나 되는 것을 좇아갔지만, 아직 그것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그리고 그로써 몸의 구속까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온전함에 이르렀다, 곧 목표에 이르렀다는 것도 아니라)”(빌 3:12). 우리가 변화되거나 부활하는 날이 우리를 영과 혼과 몸에 따라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목표에 이르게 하고, 완성할 것입니다)(골 1:28 참조).

14.17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에 대해 “그는 본성대로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가 자기의 본성에 이끌렸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심판 날에 그들이 본성상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심판받지 않고, 자기 책임 아래 아주 의식적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받습니다(롬 2장). 이것은 신자에게도 해당됩니다. 신자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자기의 옛 본성이나 옛 자아나 육신이었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행할지, 육신으로 행할지를 언제나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이 될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목표입니다. 그것이 끊임없고, 악착같고,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갈등, 곧 선을 위해 끊임없이 결단해야 하는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 마음과 새 생명과 새로워진 영을 지닌 새 사람입니다. 이 새로운 존재를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아도 됩니다. 나비는 한때 애벌레였습니다. 그러다 메타모르포시스(탈바꿈)라는 기적을 통해 완전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같은 곤충이지만, 이 두 존재 형태 사이에는 닮은 점이 전혀 없습니다. 나비는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만일 나비가 “이미 자기가 된 그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고 여전히 애벌레처럼 느낀다면, 그것은 매우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자기가 애벌레라고 생각하는 나비라니요! 우스우면서도 동시에 진지한 비유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삶에서 바로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들로 배를 채우는 애벌레처럼 행동하지 말고, 날아다니며 “하늘의 복”으로 사는 나비처럼 행동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살아 내도 되며, 또 살아 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지만,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갈 2:20 참조).

14.18 새 본성과 옛 본성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다

옛 본성과 새 본성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고,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죄가 함께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비밀이며 앞으로도 비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을 가르치고, 우리의 경험도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날까지 악을 우리 안에 남겨 두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악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악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신 것이 그분께 무엇을 뜻했는지를 점점 더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본성이 하나뿐(곧 새 본성뿐)이라는 가르침은 관련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면 분명히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만큼, 우리가 아직 지니고 있는 육신은 그만큼 부패해 있습니다. 육신은 우리의 몸을 가진 존재와 떼려야 뗄 수 없이 묶여 있습니다(그래서 “육신”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같은 하나의 개념이 몸을 가진 땅 위의 존재를 가리키기도 하고, 몸, 곧 육신 안에 사는 죄 된 옛 본질, 곧 옛 본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몸의 죽음을 맞거나 휴거 때 모든 신자가 변화될 때에야 비로소 각 그리스도인에게 그의 죄 많은 육신의 완전한 끝이 옵니다.

14.19 결론

새로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그토록 엄청난 사건인 까닭은, 사람의 어떤 지혜나 기술이나 힘으로도 이 일을 이룰 수 없고, 그 결과로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변화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은 기쁨으로 들썩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첫 생명의 신호를 “들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는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많은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창조 세계는 흔히 영적 실재를 비추는 그림이며, 이것은 다시

우리가 영적 진리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청년들은 언젠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들로 자라 갑니다(요일 2:13-14).

오늘날 우리가 “새 본성”을 말할 때, 그것은 사실 “새로운, 곧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생”을 뜻합니다. 이 생명은 동시에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인격으로 친히 구현하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필연적으로 특정한 성질, 특정한 본질, 곧 고유한 본성을 지닙니다. 이것은 이 생명이 단지 존재(곧 있음)를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구의 손길이 이 생명을 특징짓는지, 그리고 이 생명이 도덕적인 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성한 본성”이라는 개념은 신약에서 단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가리킵니다.

바울과 함께 시작한 뒤 이제 우리는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함께 모든 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게 보여 준 매혹적인 전망과 통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행하심을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단지 존재하는 것, 단지 있는 것, 하늘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충만함에서 나오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리고 넉넉히 주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야 비로소 이것을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15. 기질과 성격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근본적인 새로워짐으로 시작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끊임없는 변화가 뒤따릅니다. 기질은 나의 신앙생활과 이기는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인터넷 자유 백과사전 위키백과는 다음과 같이 짧고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기질은 생명체가 행동하고 반응하는 방식, 곧 그 행동 양식을 묘사한다. 이것은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정서적·운동적 반응, 주의와 관련된 반응, 그리고 자기 조절로 이루어진다. 이 개념은 끈기, 자극 역치, 기분, 속도처럼 비교적 일정하고, 그래서 전형적인 행동의 특징들을 가리킨다.”⁹⁹

“거의 2500년 된 기질론은 사람을 기본 성향에 따라 분류하는데, 오늘날 과학적으로 보면 낡은 이론이다 … 기질론은 코스의 히포크라테스(Hippokrates, 그리스의 의사, 기원전 460-375년)가 주창했다고 하는 체액 병리학(4체액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4체액설을 네 가지 기질에 관한 가르침과 결합한 사람은 페르가몬의 갈레노스(Galenus)였다. 그는 몸의 네 가지 체액(‘humores’) 각각에 하나의 기질을 짝지었다. 이 네 가지 체액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세하냐에 따라 그와 연결된 기질이 특히 두드러지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 :

- 피(‘Sanguis’): 다혈질(명랑하고 활동적)
- 점액(‘Phlegma’): 점액질(수동적이고 느릿함)
- 검은 담즙(‘Melas Cholé’): 우울질(슬프고 생각이 많음)
- 노란 담즙(‘Cholé’): 담즙질(쉽게 화내고 흥분함).”¹⁰⁰

15.1 성경과 기질론

먼저 기질론이 이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기질론이 과학적으로 낡은 이론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확인은 이 가르침이

99. <http://de.wikipedia.org/wiki/Temperament> 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0. <http://de.wikipedia.org/wiki/Temperamentenlehre>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성경에서 끌어낼 수도 없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가르침을 그냥 무시합니다. 성경의 둘째 부분(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이미 이 가르침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목욕물과 함께 아기까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질은 실재하며, 그래서 (자신의) 기질을 살펴보는 것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낡았다 해도 모든 사람에게는 기질이 있고, 그 기질은 흔히 앞에서 말한 네 가지 가운데 하나나 그것들이 섞인 것에 어느 정도 들어맞습니다.

저는 거듭난 뒤에도 그 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본성과 본질을 지닌 새로운 영적 생명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생명이 저의 인격을 빚어 가야 합니다. 제 기질의 이른바 강점들도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격만이 새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된 새로운 피조물의 표준이시며 기준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질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격 형성의 규범입니다. 기질을 살펴보는 일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본래 목표에 종속되어 있는 한 정당합니다.

기질들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것들과 씨름합니다. 그것들은 우리 삶의 일부이며,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속합니다. 우리는 구조(우리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를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깨닫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정적인 것들과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가로막을 수 있는 행동 방식들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점액질의 느린 태도는 대개 적극적인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됩니다. 담즙질이 성급하게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면들을 의식하고 그것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사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과 은사와 관련하여 기질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관심이 크게 우리 자신에게로 쏠립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일을 살피라는 권면도 몇 가지 있지만, 거의 언제나 지침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며, 물론 우리도 그 변화에 참여합니다.

W. J. 아우버넬(W. J. Ouweneel)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올레 할레스비(Ole Hallesby), 팀 라헤이(Tim LaHaye), 헨리 브랜트(Henry Brandt))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죄에 자신을 내맡길 때 네 가지 기질에서 삶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밝혀냈다. 그럴 때에는 기질의 나쁜 면들이 우세해진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성령의 인도에 자신을 맡기면, 인격 안에서 강점들이 계발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다혈질의 따뜻함, 진실함, 활발함, 친절함, 낙관성으로, 담즙질의 지도력, 결단력, 팀 정신, 단호함, 진취성으로, 우울질의 신실한 우정, 창의성, 헌신하려는 자세로, 점액질의 차분함, 좋은 기분, 경청하는 자세, 질서 있음, 신중함으로 형상을 이루신다 …

생물학적·심리적 구조와 … 기질과 성격 유형에 관한 모든 연구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 성격의 나쁜 면에 완전히 내맡겨진, 미리 프로그램된 로봇이 아니다. 여기서도 성경과 목회 상담의 실재는 모든 것이 마음의 방향에 달려 있다고 가르친다. 사실 사람의 기질은 유전적 체질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기질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살아가는 동안 작은 변화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은 사람이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기질과 성격**은 잘 구별해야 한다. 성격은 사람의 행동 특성들의 결과이며, 이 특성들은 기질만이 아니라 … 무엇보다 마음에 의해 결정된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거듭날 때, 그는 새로운 기질을 받지 않는다(다른 몸을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는 ‘새 마음’을 받는다. 곧 근본적으로 새로운 마음가짐, 전혀 새로운 태도와 자세, 새로운 삶의 설계를 받는다. 이제 전혀 다른 작동적·동기적 요인들이 그의 삶에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생각(곧 새로운 ‘인지’)과 새롭게 방향 잡힌 의지(의욕적¹⁰¹ 요인)도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새로워진 사람은 자기 기질의 (넓은!) 체질적 한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성격을 계발할 수 있으며, 앞에서 말했듯이 그 성격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형상을 이루신다.”¹⁰²

101. “의욕적”(konativ)이라는 말은 “충동에 따른”, “추구하는”이라는 뜻입니다.

102. W. J. Ouweneel, *Psychologie, Ein bibelorientiert-wissenschaftlicher Entwurf*, 168쪽 (강조는 덧붙인 것).

기질, 곧 물려받은 소질과 성향은 신자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쓸모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혈질의 친절함은 하나님께 유익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모든 기질의 “좋은” 면에 다 해당됩니다. 사람됨의 소질적인 면, 곧 기질에서 비롯된 면은 하나님의 첫 창조에 속하며, 따라서 타락 이전의 아담에게도 이미 있던 특징입니다. 안타깝게도 죄는 기질도 손상시켰습니다. 이런 손상은 철저히 없애 나가야 합니다.

15.2 성격과 그 변화

성격은 한 사람의 알아볼 수 있는 특성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잘 압니다. 이 개념은 대개 좋고 추구할 만한 사람의 특성들, 곧 사회에,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금융계에 부족한 것과 연결됩니다. 고삐 풀린 탐욕, 자기 사랑, 이기주의는 앞으로 올 일을 미리 맛보게 합니다. 사회는 유혹도 이겨 내는 좋고 굳건한 성격이 도덕적 몰락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늦출 수는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성격(Charakter)**이라는 말은 동전이나 인장에 모양을 새겨 넣던 각인 도장에서 유래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새기고 있으며,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성격상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얼굴은 빛 가운데서 알아보고, 그의 성격은 어둠 속에서 알아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이 예수님 안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본질이 우리 안에서 실체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성격은 성령의 열매로, 그리고 그로써 예수님으로 새겨집니다. 그러나 좋은 성격은 그냥 날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를 건너뛰어 마술처럼 우리 마음에 넣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인도 아래,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성격을 길러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격을 훈련하여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영적 열매를, 우리는 말하자면 새로운 언어, 곧 제2

언어처럼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연습한 덕분에 습관처럼 그 언어를 말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영적인 성격이 우리 삶에서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성격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압박을 받거나 유혹을 받을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도 육신을 위하여 일을 도모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롬 13:14). 굳건해진(곧 훈련되고 끈기 있게 추구된) 성격은 극한 상황에서도, 거둬난 뒤 배우고 하나님의 길로 소중히 여겨 온 영적 원칙들을 포기하라는 유혹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격을 어떻게 훈련합니까? 배우고 적용함으로써입니다. 이 “영적인 성격”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려면 배워야 합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내면화하라는 처방이 저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걸음으로 이 특성들을 점점 더 적용해 나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질은 평생 거의 바뀌지 않지만, 성격은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변합니다. 성격의 바탕은 의지와,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의지의 힘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마음과 새로워진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 삶의 출발이며, 이 삶은 목표에 이를 때까지 변화하려는 의지와 함께 가야 합니다.

기질론과 마찬가지로 **성격**이라는 말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에 가장 가까운 성경의 개념은 덕입니다(빌 4:8; 뱀전 2:9 [하나님의 속성]; 뱀후 1:3, 5). 성경은 당시 철학자들의 덕론을 따르지 않습니다. 공통점은 한편으로는 덕이 무엇으로 두드러지는가에, 다른 한편으로는 덕을 연습하고 훈련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덕, 곧 성격과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성격의 변화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업적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로워진 의지의 힘과 거기서 흘러나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변화에 대한 성경의 그림과 목표에 맞습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새 세상이라는 최종 목표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말이 된다.

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행동이 된다.

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이 습관이 된다.

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네 성격이 된다.

네 성격을 조심하라. 그것이 네 운명이 된다.”

16. 맺음말

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거워져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이 터져 나와 우리 자신에게 놀라고 소스라칩니다. 때로는 우리의 무관심에도 똑같이 놀랍니다. 우리가 땅 위의 존재로서 완성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있는 동안, 이 모든 일이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동행할 것입니다. 이 말로 무언가를 변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영적 진리가 얼마나 펼쳐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정직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냅시다! 속으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것은 가장 나쁜 해결책입니다. 체념과 행복은 육신과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내딛는 걸음마다 - 그것이 작든 크든 -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시기를 겪더라도 그분은 우리 가까이 계시고,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언제나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산행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서 지금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주제에 관한 성경 본문을 모두 모아 놓으면 꽤 방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영적 이해의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냥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이룰 수도, 줄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분의 길을 가십니다. 그분은 우리 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잘못과 실패에만 관심 있는 노예 감독처럼 우리 뒤에 서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 곧 자녀로 받아들이셨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 손에 쥐여 주십니다.

바울조차 우리를 위로하며, 자신이 영광을 향해 가는 길에서 아직 바로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고 아직 온전하게 되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방향은 옳습니다. 그는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가 그 목표에 - 그리스도께 - 붙잡히고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비밀입니다.

편을 바꾼 것, 그리고 모든 헌신과 드림, 모든 수고와 포기과 결단은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서는 이 한 번뿐인 기회를 더는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으로”(고후 5:10) 사는 우리의 시간, 곧 땅 위에서의 우리 존재는 더없이 귀합니다. 이 시간은 되풀이될 수 없으며, 그 안에서 주어지는 기회들도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낙심, 겁냄) **아니요,**

오직 (주신 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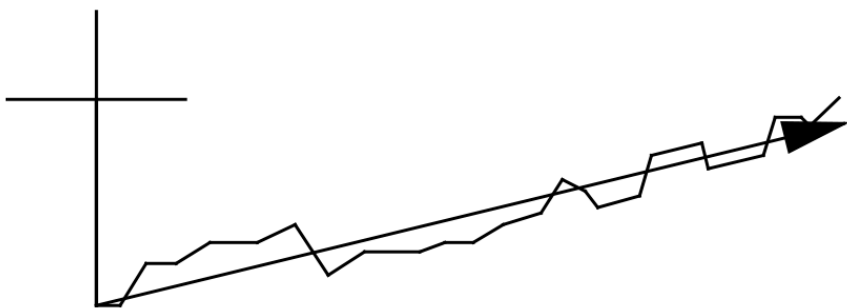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니라

(훈련, 자기 통제, 균형).”

디모데후서 1:7



목표를 향한 우리의 길은 영적 성장과 성화에서 줄곧 오르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리막도 있고, 멈춤과 정체도 있지만, 오르막도 있습니다. 방향이 옳아야 하며, 우리는 목표 자체에 이끌려 갑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17. 참고 문헌¹⁰³

- Adams, Jay E., *Grundlagen biblischer Seelsorge*, Gießen, 1983.
- Anderson, Neil T., *Neues Leben – neue Identität*, Lage, 1994.
- Anderson, Neil T., *Restored, Experience Life with Jesus*, Franklin, USA, 2007.
- Anderson, Neil T., *Spiritual Warfare*, Ventura, California, USA, 2000.
- Anderson, Neil T., *Steps to Freedom in Christ*, Oxford, 2000.
- Anderson, Neil T., *Winning the Battle within*, Eugene, Oregon, USA, 2004.
- Barclay, William, *Geist oder Fleisch*, Augsburg, 1967.
- Binde, Fritz, *Vom Geheimnis des Glaubens*, Wuppertal, 1979.
- Bullinger, Dr. E. W., *Die zwei Naturen in dem Kind Gottes*, Düsseldorf, 1907.
- Burkhardt, Helmut, *Christ werden, Bekehrung und Wiedergeburt*, Gießen, 1999.
- Custance, Arthur C., *Man in Adam and in Christ*, Grand Rapids, 1975.
- Edman, V. Raymond, *Das ausgetauschte Leben*, Kassel, 1963.
- Eldredge, John, *Der ungezähmte Christ*, Gießen, 2005.
- Gahan, M. C., *The Soul's Transfer from Adam to Christ*, Michigan, 1957.
- Gibson, Jean, *Training im Christentum 3*, Bielefeld, 1990.
- Heijkoop, H. L., *Der Heilige Geist*, Zürich, 1955.

103. 저는 여기에 소개한 문헌을 참고했으며, 일부는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록에 올랐다고 해서 제가 이 책들의 모든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Hession, Roy, *Nicht ich – sondern Christus*, Bad Liebenzell, 1980.

Hille, Rolf (역음), *Ein Mensch, was ist das?*, Wuppertal, 2004.

Hole, F. B., *Das große Heil Gottes*, Zürich, 1979.

Ironside, Henry Allen, *Heiligung – Zerrbild und Wirklichkeit*, Bielefeld, 1989.

Käser, Ernst, *Rechtfertigung des Lebens*, Herblingen, 1989, 제2판.

Kelly, William, *Die Lehre des NT über den Heiligen Geist*, Neustadt, 1975 (1880).

Kettling, Siegfried, *Wer bist du, Adam?*, Wuppertal, 1978.

Lutzer, Erwin W., *Das widerspenstige Ich*, Bielefeld, 2011.

MacDonald, William, *Der vergessene Befehl: Seid heilig!*, Bielefeld, 1988.

Markmann, Otto, *Weiter zu etwas Höherem*, 워치만 니(Watchman Nee)의 책 “Das normale Christenleben”(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비판적 견해.

Mauerhofer, Erich, *Der Kampf zwischen Fleisch und Geist bei Paulus*, Frutigen, 1980.

Medema, H. P., *Romeinen 7; Het normale en het abnormale christlijke leven*, Vaassen, 1998.

Modersohn, Ernst, *Die herrliche Freiheit der Kinder Gottes*, Bielefeld, 2008.

Nee, Watchman, *Befreiung*, Stuttgart, 1978.

Nee, Watchman, *Das normale Christenleben*, Wuppertal, 1972.

Nee, Watchman, *Der geistliche Christ*, 1-3권, Heerbrugg, 1975.

Nee, Watchman, *Freiheit für den Geist*, Winterthur, 1969.

Nee, Watchman, *Geistliche Erkenntnis*, Berneck, 1978.

- Nitsche, Walter / Peters, Benedikt, *Dämonische Verstrickungen – Biblische Befreiung*, Berneck, 1989.
- Nitsche, Walter, *Versagen und innere Zerrissenheit*, Berneck, 1989.
- Ouweneel, Willem J., *Geestelijke Strijd*, Vaassen, 1998.
- Ouweneel, Willem J., *Geloofs-Zekerheid*, Vaassen, 1996.
- Ouweneel, Willem J., *Hoe lief heb ik uw Wet!*, Vaassen, 2001.
- Paxson, Ruth, *Life on the Highest Plane, God's Plan for spiritual Maturity*, Grand Rapids, 1983.
- Pink, Arthur, *Practical Christianity*, Michigan, 1974.
- Ryrie, Charles C., *Ausgewogen statt abgehoben*, Dillenburg, 1994.
- Ryrie, Charles C., *Hauptsache gerettet?*, Dillenburg, 1998.
- Ryrie, Charles C., *Ihr werdet Kraft empfangen*, Dillenburg, 2003 (1965).
- Schirmmacher, Thomas, *Ethik*, 1권, *Das Gesetz der Liebe*, Nürnberg, 2001.
- Steidl, Grant, *Konflikt!*, *Der Christ im Widerstreit*, Hückeswagen, 1992.
- Steinberger, Georg, *Das Geheimnis eines siegreichen Lebens*, Stuttgart, 1983.
- Stott, J. R. W., *Men Made New*, London, 1966.
- Thomas, Major W. Ian, *Christus in euch – Dynamik des Lebens*, Holzgerlingen, 2008.
- Thomas, Major W. Ian, *The Indwelling Life of Christ*, Colorado Springs, 2006.
- Thomas, Major W. Ian, *The Saving Life of Christ*, Grand Rapids, 1961.

Thomas, Major W. Ian, Tote können nicht sterben, Neuhausen-Stuttgart, 1973.

Trumbull, Charles G., Befreiung von der Macht der Sünde, Basel, 1986.

Willard, Dallas, Aus dem Herzen leben (원제: Renovation of the Heart), Gießen, 2004.

Willard, Dallas, The Divine Conspiracy, Rediscovering our hidden Life in God, New York, 1997.

이 주제에 관한 소책자, 기사, 논문

Blackburn, John S., Die Befreiung im Römerbrief.

Böhm, Heinz, Die geleugnete Wirklichkeit, Berneck, 1993.

Cutting, George, Die beiden Naturen, Zürich.

Cutting, George, Freedom from Sin: What is it?

Ebertshäuser, Rudolf, Mit Christus gekreuzigt und auferweckt, Leonberg, 2009.

Glassford, Greg, Hey, Fleisch! Hier spricht dein Geist!, Hamburg, 2004.

Grant, F. W., Deliverance: What is it?

Grant, F. W., Life in Christ and sealing with the Spirit, Bedford.

Grant, F. W., Some Themes on the second Part of Romans, Bedford.

Grant, F. W., The two Natures and what they imply, Bedford.

H. E. C., The Believer's two Natures.

Herrick, Greg, Old Man and New Man in Paul, 1999.

John MacArthur's One Nature Teaching,
<http://www.middletownbiblechurch.org/doctrine/1natjm01.htm>

Lüscher, Albert, *Der alte und neue Mensch*, Langenthal, 1971.

Lüscher, Albert, *Euer Leben ist verborgen*, Langenthal.

Pink, Arthur W., *The Christian in Romans* 7.

Scofield, C. I., *The two Natures*.

Trachsel, Walter, *Ein reines Herz?*, Frutigen.

Trachsel, Walter, *Gibt es ein Leben im Sieg*, Frutigen, 2003.

Trachsel, Walter, *Heilig sein oder heilig werden?*, Frutigen, 2009.

Trachsel-Pauli, Ernst, *Heiligung nach Geist, Seele und Leib*, Frutigen, 2000.

Wallis, Reginald, *The new Life, Talks with Christians about Practical Victory*, New Jersey, 1932.

웹사이트

<http://www.bibelkommentare.de;>

[http://www.biblecentre.org/;](http://www.biblecentre.org/)

<http://www.bodedesheils.nl/>

<http://www.soundwords.de/>

<http://www.streitenberger.com/>: 성경 헬라어 메일링 리스트(누구나 참여 가능,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들의 교류, 성경 본문에 관한 언어적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을 수 있음).

주석

Brockhaus-Kommentar zur Bibel, Wuppertal, 1985.

Calvin, Johannes, *Auslegung der kleinen paulinischen Briefe*, Neukirchen, 1963.

Cecil, A. P., *A Summary of the Epistle to the Romans*.

Coates, C. A., *Ein Überblick über den Brief an die Römer*, Leipzig.

- Cousar, Charles B., *Galatians, A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Atlanta, 1982.
- Darby, J. N., *The Collected Writings*, Winschoten, 1972 (재판).
- Ellicott, Charles John, *Bible Commentary*, London, 2004 (재판).
- Grant, F. W., *The Numerical Bible*, New Jersey, 1901.
- Greijdanus, Dr. S., *Korte Verklaringen*, Kampen, 1932.
- Hoehner, Harold W., *Ephesians, An exegetical Commentary*, Michigan, 2002.
- Jantzen, Herbert, *Vorträge zu Röm 6 – 8*, 1997.
- Kelly, William, *Lectures Introductory*, 1869.
- Kelly, William, *Lecture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Oak Park.
- Kelly, William, *Notes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Sunbury, 1981 (1873).
- Kelly, William, *The Bible Treasury*, Winschoten.
- Kelly, William, *The Epistles of Peter*, London, 1904.
- Kramer, G. H., *Christus ons leven*, Vaassen, 1994.
- Lee, Witness, *Der Brief des Paulus an die Epheser*, Stuttgart, 1980.
- Lincoln, William, *Assembly Writer Library*, Glasgow, 1980.
- MacDonald, William, *Kommentar zum NT*, 1권, Bielefeld, 1992.
- Medema, H. P., *De nieuwe Mens*, Vaassen, 1991.
- Medema, H. P., *Der Brief an die Römer*, Bielefeld, 1992.
- Medema, H. P., *Het leven is geopenbaard, De Eerste Brief van Johannes*, Vaassen, 1993.
- Nicholson, J. B. / Waugh, G. P., *Was die Bibel lehrt, 1. und 2. Petrusbrief*, Dillenburg, 1991.

- Ouweneel, W. J., *De vrijheid van de Geest*, Vaassen, 1997.
- Ouweneel, W. J., *Christus unser Leben*, Schwelm, 1984.
- Remmers, Arend, *In Christus gesegnet*, Hückeswagen, 2004.
- Schaeffer, F., *Allein durch Christus*, Die zentralen acht Kapitel des Römerbriefs, Holzgerlingen, 1999.
- Smith, Hamilt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Edinburgh.
- Smith, Hamilton, *The Epistles of Peter, An Expository Outline*, Edinburgh.
- Stadelmann, Helge, *Der Epheserbrief*, Neuhausen-Stuttgart, 1993.
- Stallan, Fred, *Was die Bibel lehrt*, Römerbrief, Dillenburg, 2001.
- Stanley, Charles,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London, 1885.
- Stott, John R. W., *Die Botschaft des Epheserbriefes*, Nürnberg, 2001.
- Stott, John R. W., *The Letters of John*,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Nottingham, 1964, 1988.
- Wasserzug, Gertrud, *Der Römerbrief*, Böblingen, 1984.
- Witmer, John A., *Romans*,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1983.
- Wolston, W. T. P., *Simon Peter, His Life and Letters*, Edinburgh, 1892.
- Wuest, Kenneth S., *Romans in the Greek New Testament*, Michigan, 1955.

그 밖의 성경 번역본에 사용한 약어

- Elb Elberfelder Übersetzung, nicht revidiert, Berlin, 1961.
- ER Elberfelder Übersetzung, revidierte Fassung, R. Brockhaus Verlag Wuppertal, 제8판 2001.

Luther 1912 Die Heilige Schrift nach der deutschen Übersetzung Martin Luthers, Stuttgart, 1912.

Menge Die Heilige Schrift Alten und Neuen Testaments, Dr. H. Menge 번역, Berlin, 1960.

NeÜ Neue evangelistische Übersetzung, Karl-Heinz Vanheiden 번역, Dillenburg, 2010.

Schl 2000 Die Bibel, übersetzt von F. E. Schlachter (Version 2000), Genf, 초판 2003.

Schlachter Die Heilige Schrift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s, F. E. Schlachter 번역, Genf, 1990.

저자 소개

Hans-Jörg Ronsdorf는 1964년생으로, 아내 크리스티네(Christine)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섯 자녀를 두었고 바이에른주 알고이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공구 제작자 직업 교육을 받은 뒤 여러 업종에서 일했으며, 10년 넘게 도장 업계에서 자영업자로 컨설턴트이자 공급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캄프텐(Kempten)의 그리스도인 교회(Christliche Gemeinde)에서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섬기며, 말씀 선포와 성경 가르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Hans-Jörg Ronsdorf

그래도 죽은 자들은 살아 있다(Und die Toten leben doch)



영혼 불멸

240쪽, 페이퍼백

ISBN 978-3-89397-227-2

죽은 사람들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이 모든 존재의 끝입니까? 사람은 영혼 수면에 빠집니까, 아니면 죽음 너머에서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마음에 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에 답하고 또한 소망을 전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며, 그 가운데서 영혼 불멸의 문제가 중심 주제를 이룹니다. 죽었으나 살아 있는 사람들 - 성경은 이 역설을 풀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는 끝나지 않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 말이 참되다는 것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한 분, 곧 죽음의 나라에서 돌아오셔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십니다.